

THE MISSILE

1962年 6月 25日 印刷
1962年 7月 1日 發行

月刊

미사일

1962
7

休戰九年을 돌아보다

豐饒한 社會 <自由世界の 驚嘆>..... 로스토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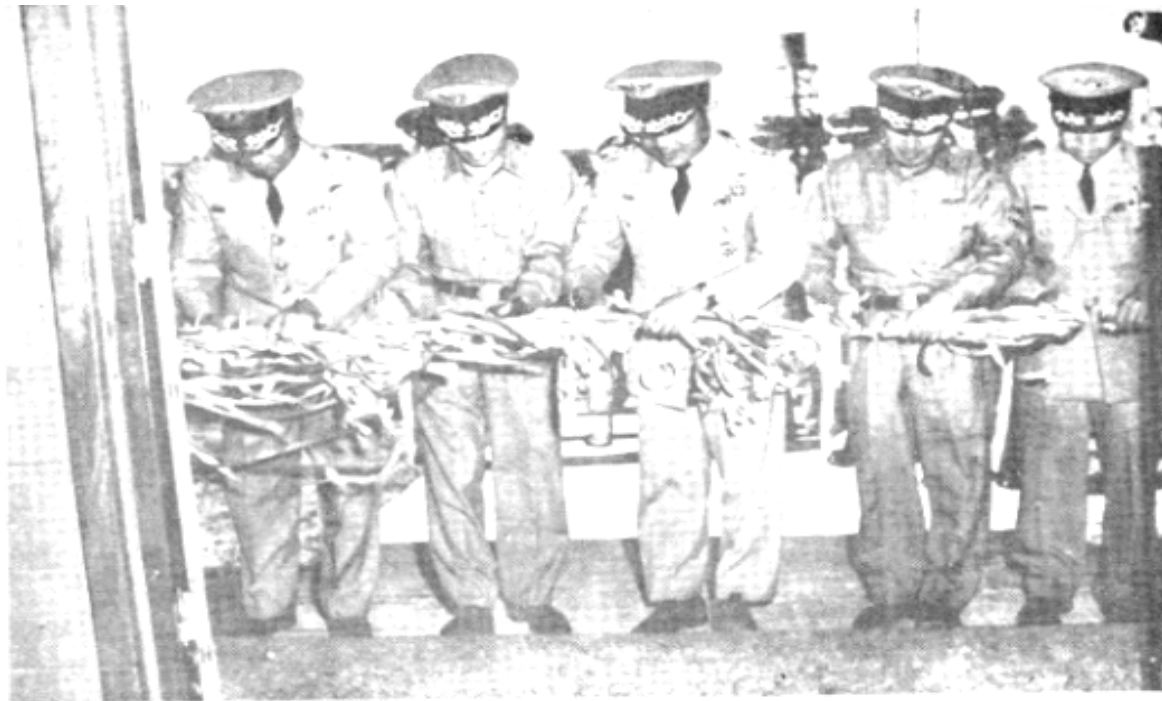
贈呈

★軍人과 信賴感

★軍人과 말씨★



제 15 호



11전비에 현대식 조종사숙소 박정희 의장이 기증

박의장의 기증으로 건립된 조종사숙소가 지난 6월8일 제11 전투비행단에서 준공되었다. 동 숙소는 불철주야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일선 전투조종사들의 노고를 위무하고 이들에게 휴양과 안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여기에 대형 텔레비 한대를 기증해 왔다.

<사진은

상(上) 동 준공식 테프를 끊는 광경

중(中) 동 숙소의 전경

하(下)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기증한 텔레비전>



미사일 제15호 목차

표지 문 학 진
목차·비(扉)컷 이 순 재
생명의 존엄성 유 달 영 (2)

특 집 휴전9년을 돌아보다

누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나	김 종 수 (4)
7·27휴전과 공산전략(共産戰略)의 전환(轉換) -	유 완 식 (8)
종말없는 대화장 <관문점 주변>	이 용 희 (11)

☆ 군인가족에게 드리는 글	복 혜 숙 (29)
☆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군인> 제주도에서 본 소령	석 주 선 (26)

군인과 말씨	최 현 배 (30)
--------------	------------

군인과 신뢰감	박 원 석 (34)
---------------	------------

풍요한 사회 <자유세계의 변영>	로스토후 (14)
맑스 경제이론의 파산	갈부레이스 (19)

☆공산소련의 죄악과 그들의 생활주변	김 청 범 (25)
---------------------------	------------

영농
수기

천왕리는 고독하지 않다

.....	최 광 일 (21)
☆속담춘추 <제멋에 산다>	고 객 자 (60)
☆파나마운하의 경이 <세계경이 순례>	하리바톤 (62)

수필
진진

신록의 기억	고 은 (36)
쓰르래미 소리	윤 석 중 (37)
『여름에』	김 요 섭 (42)
계절의 서정	박 말 레 (44)
잃어가는 녹음의 회상	윤 오 영 (45)
제주도 산책	최 병 규 (46)
폭군	윤 지 영 (47)

시 전신	박 목 월 (38)
남한산성	신 석 초 (40)
메스컴의 자유와 책임	김 봉 기 (48)
우리들이 가는 길(하K군내 현상논문 입선가작)	신 중 우 (51)
전쟁과 항공기 <항공발달사④>	k·나이트 (55)

현대의 방향	사상	박 종 홍 (72)
	연극	여 석 기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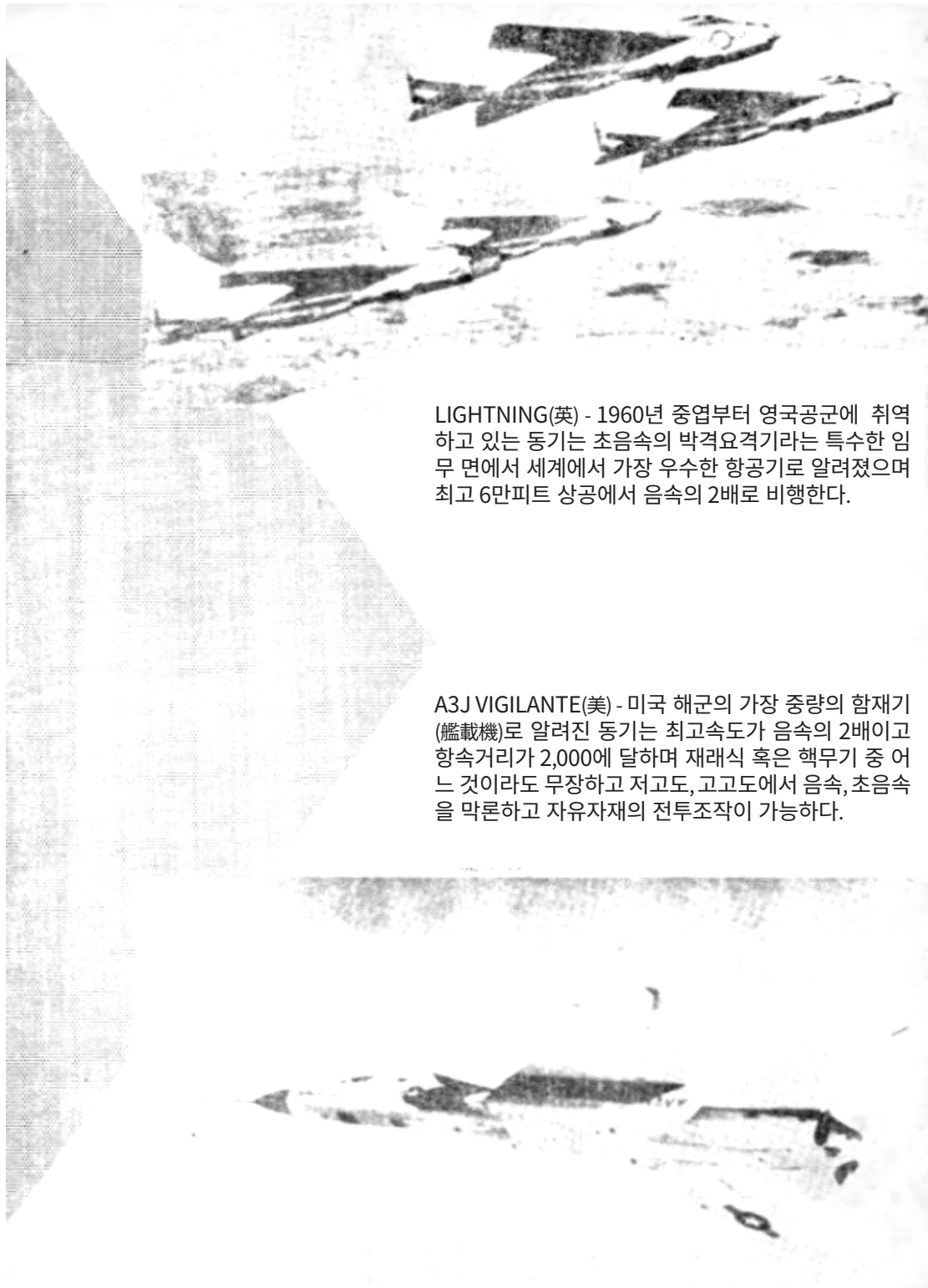
알기쉬운 감상법	음악 - 이 성 삼 (66) 회화 - 송 병 돈 (68) 영화 - 김 규 동 (69)
----------------	---

▲
공
문
V

관객(寬客)	- 곽 학 송 (80)
조인(鳥人)	- 조 혼 파 (83)

▲ 소설 골목안 사람들	김 영 수 (86)
★ <세계를 움직인 책들⑥>	오 병 수 (77)

장병페이지	제11전비편 (78)
-------------	-------------



LIGHTNING(英) - 1960년 중엽부터 영국공군에 취역하고 있는 동기는 초음속의 박격요격기라는 특수한 임무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항공기로 알려졌으며 최고 6만피트 상공에서 음속의 2배로 비행한다.

A3J VIGILANTE(美) - 미국 해군의 가장 중량의 함재기(艦載機)로 알려진 동기는 최고속도가 음속의 2배이고 항속거리가 2,000에 달하며 재래식 혹은 핵무기 중 어느 것이라도 무장하고 저고도, 고고도에서 음속, 초음속을 막론하고 자유자재의 전투조작이 가능하다.

군인의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술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며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군인수칙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도울 것이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여 추호도 적을 도우지 않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기타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국군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생명의 존엄성

유달영

덴마크의 유명한 고등학교의 개척자 「콜드」의 그 소박하고 알아듣기 쉬운 강화는 듣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말을 듣는 학생들이 필기하는 것을 싫어했다. 하루는 어떤 학생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슴 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콜드」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게 아무걱정 말게. 저 땅 속에 토관을 묻을 경우에 그 위에다 무슨 표지를 해 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토관이 묻힌 자리를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일세. 그러나 씨를 묻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표지가 없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네. 그 씨는 산 것이므로 반드시 싹들이 땅을 뚫고 나올 것이니까 말일세. 내 말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어느 때이고 자네가 생을 영위해 갈 적에 자네 가슴 속에서 내 말이 되살아 날 것이 분명하단 말일세.』 이런 자부심을 가진 「콜드」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한 말을 필기도 안 시키었고, 또 한편의 책도 저술해서 남긴 것이 없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콜드」를 존경하는 젊은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늘어가고만 있으니, 「콜드」의 생명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다.

손바닥 위에 놓인 모래알들과 작은 씨앗들은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때가 있다. 겉모양이 이렇게 서로 구별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닮았지만은, 그 하나는 생명이 없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낙낙 백척 푸른 숲을 절벽 위에 우러러 보면서 감탄하는 때가 있다. 저 크고 푸른 거목의 모든 요소가 모래 같은 한 알 솔씨 속에 이미 다 들어 있는 것이다. 모든 생명의 존귀성은 그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는데 있는 것이다. 자랄 수 있는 것을 자랄 수 있는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올바른 도덕이다. 나는 가끔 밤하늘 아래서 내 생명에 대하여 무한의 신비를 느끼곤 한다. 우리 집 족보를 들추어 보면 나는 내 시조로부터 삼십대의 인간이다. 그러나 지구위에 생명이 창조되고 그것이 최초의 인간으로 발전하여 문화 없는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헤아릴 수 없는 긴 생명의 레이스 위에서 헤아릴 수 없는 회수의 바통을 주고받고 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름을 모르는 수다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슴과 팔다리에 수북하게 털이 나고



헛소리조차 가릴 줄 모르는 그들, 낮이면 돌과 몽둥이로 짐승들과 싸우거나 바닷가에서 조개와 생선을 잡아다가 밤에는 킁킁한 동굴 속에서 부끄럼을 모르고 뒹굴던 그들, 수다한 그들 중에 어느 하나 생명의 바통을 다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오늘에 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유구한 세월에 전하고 전해 내려오는 생명의 레이스에서 지금 이 바통을 받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고맙고도 대견하다. 아들을 못 둔 옛 어른들이 자기 조상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슬퍼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어루만져 알 만하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의 고민으로 자살하는 일이 요사이 없는 날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은 생명의 존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행해지는 경박한 일이다.

나에게까지 전해 온 대견한 생명, 그리고 영원으로 전해 내려갈 이 생명의 큰 강물을 생각해 보라.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값없이 생명을 내 손으로 끊지는 못 할 것이다. 우리들 주위의 가지가지의 생명들은 모두 끈덕지게 자라가고 끈기 있게 생명을 전해가고 있다.

모든 생명들은 형제다. 큰 강물이 되어 함께 흐르는 생명들이다. 슈바이처는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침상에 눕기 전에 하나님에게 제 자신들만의 보호만을 기도하는 것을 불만히 생각하였다. 그래서 밤마다 숲속에서 잠자는 새들까지 신에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서야 잠자리에 누웠다고 하거니와 이것은 생명에 대한 그의 순수한 감정이 어릴 때부터 그의 가슴속에 눈떠서 있었기 때문이다. 생명은 존귀하다. 이 우주 안에서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 이 인류 역사의 페이지에 참혹한 전쟁의 기록을 다시 남기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존귀성을 인식시키는 일일 것이다.

인류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부르짖은 「잔작크 룿소」는 『숨쉬는 것이 곧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연 그 말은 옳다. 생명은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의미 없는 생명은 생명이랄 것이 없다. 의미를 가지는 생명만을 비로소 참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귀중한 생명을 가진 내가 한 알의 모래 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짝터 나는 한 알의 씨앗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가치를 충분히 발체하여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명은 참으로 온 우주의 꽃이다. 생명 없는 우주는 의미 없이 돌아가는 한 개의 거대한 기계일 뿐이다. 우리는 생명을 지녔다. 생명의 바통을 아득한 옛날 킁킁한 동굴 속에서 털 깊은 가슴속에 받지 않고 할 일 많은 오늘에 받은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라,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바로 인식만 한다면 온 우주는 밝음과 고마움으로 충만해 갈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행복하게도 이 시대에 바통을 받아 가지고 달리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발견하는 일은 인생의 모든 것의 근본 되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필자: 재건국민운동본부장)

특

집



누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나

김 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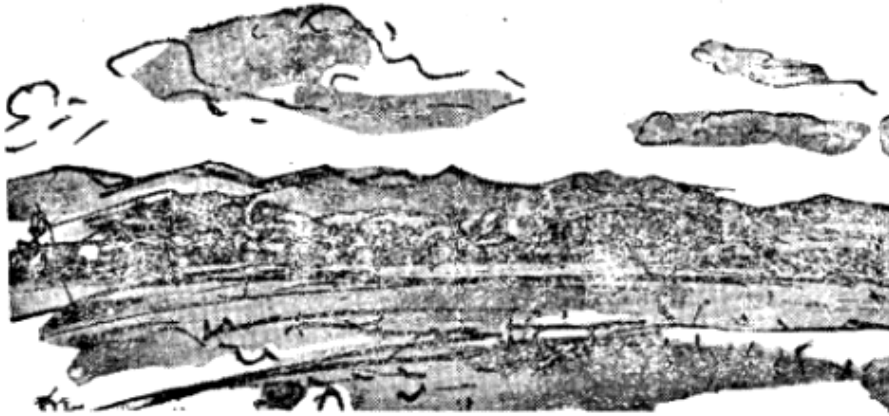
1. 휴전협정의 테두리에서

휴전협정을 일시적이거나 열전의 00 내지 종결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저들 공산괴뢰는 실전에서 불리함을 휴전에서 증강보충하려고 하는 일종의 무혈전쟁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전쟁의 양태를 직접적인 방법에서 간접방법으로 바꾼 전로상의 문제일 따름이며, 이를테면 세균전에 버금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휴전회담을 통한 저들의 군비확장과 선전공세야말로 저들이 휴전성립후의 전술방향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소련의 휴전제의

6·25사변을 도발한 지 만1년에 수일 앞서 1951년 6월 23일 「유엔」 소련대표 「말리크」는 방송을 통하여 한국 휴전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다. 개전 전 미군은 이미 한국에서 철수했었고, 한국은 태평양 방위권 외에 놓여 있었으니만치, 남한의 석권은 용이한 것으로 오해한 공산진영은 일 년간의 전투로서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오산이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더구나 중공군이 개입하자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급속한 군비확장을 서둘렀으며 이러한 일련의 긴장상태는 전자유진영의 결속을 강화하였으니, 특히 자유중국을 본토상륙작전을 준비하게 되었고, 서독과 일본을 재무장의 방향으로 촉구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당황한 소련은 공산진영의 파멸위기를 자각한 나머지 저들이 도발한 침략행위를 그들 스스로가 막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 겉으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전쟁을 종결치 않으면 안 될 정세하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아무튼 「말리크」의 휴전제의는 이것이 평화를 가장한 계략전술임을 알면서도 진정한 세계평화를 회구하는 마음에서 「유엔」군은 이를 받아들여 7월 10일부터는 개성에서 본격적인 정전분회담이 시작되었다. 이때 회담 대표로 「유엔」군 측은 「쥔이」 미 해군중장을 수석으로 하여 미군 4명, 국군 1명이었고 공산측은 괴뢰군대장 남일을 수석으로 하여 북괴군 2명 중공군 2명이라는 대조를 보이었다. 드디어 26일에는 회담의 의제에 합의를 보았으니 ①의제의 채택, ②적대행위정지의 기본조건으로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쌍방의 군사적 경계선협정, ③정전 및 휴전의 실시를 위한 세목의 협정(감시기관의 구성과 그 권한, 기능문제포함) ④포로교환에 관한 제조치, ⑤관계 각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의 의제가 채택됨으로써 토의에 들어갔으나 공산군 측은 사사건건에 시비를 위한 트집과 비행을 거듭하면서 시간을 얻기에만 급급하였다. 이러한 중에도 「유엔」군측의 타협을 위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보로



휴전9년을 돌아보다

휴전 문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남은 포로송환에 있어 자유나 강제냐로 피차 옥신각신하면서 해결을 못 보다가 「유엔」군측은 공산군 측이 그들의 군비증강을 위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음이 분명해지자 1952년 10월 8일 마침내 「유엔」군대표의 무기휴회선언으로 현지회담은 결렬되고 만 것이다. 그러면 「말리크」의 휴전제의로 부터 현지회담결렬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휴전회담을 통하여 본 저들의 비행과 시비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휴전회담은 그 시초부터 공산 측의 부당하고도 저돌적인 고집으로 난항을 거듭하게 된 것이니 맨 처음으로 나타난 저들의 부당한 시비는 「유엔」측 기자단의 회담지 내왕을 거부한 것이며, 또한 휴전회담에서 외군철퇴라는 엉뚱한 정치문제제를 의제에 넣자고 고집하였으며 또한 군사경계선 문제(유엔측은 현전선 공산측은 38선을 각각 주장)로 휴전회담의 담보가 계속하는 동안 8월 4일 중공군은 중대병력을 개성중립지대에 침범케 하였으니 이를 계기로 마침내 10월 8일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의제 제3항의 휴전감시문제는 11월 27일부터 부의되었으나 「유엔」군 측은 휴전 성립 후는 병력증강을 금지하자는 것과 휴전감시를 위하여 합동감시단을 설정하자는데 대하여 공산측은 이것을 외군철퇴로서 해결 하자니 휴전감시기관의 북한감시는 내정간섭이라느니 하는 꾀변을 농하다가 나중에는 전란 중에 전멸 되다시피 한 비행장의 재건, 신설을 비롯한 병력, 장비의 증강을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하고 또한 휴전감시단에는 소련을 포함시키라는 등의 역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의제 제4항인 포로교환문제에 있어서는 「유엔」측이 포로를 1대 1로 교환할 것과, 상병포로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의 실시를 주장한데 대하여 공산측은 포로의 전부 대 전부의 교환을 주장하고 국제적십자의 포로 수용소방문을 거부하였으며 국군포로 5만 명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음은 물론 북괴군, 중공군포로 가운데 송환을 원치 않는 자까지도 강제송환 할 것을 고집하였고 북한에 억류된 남한민간인의 송환도 또한 거부하였다.

이러던 중 1952년 4월 28일 「유엔」측은 최대한의 양보로써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 북한에 비행장재건을 금하지 않는 조건부로 중립국감시단에 서서(瑞西), 서전(瑞典)과 공산국가인 파란(波蘭), 「체코」를 포함시키는 제안을 수락하되 소련은 제외할 것이 결정되고 포로의 자유송환, 강제송환만이 공산 측의 고집으로 남게 된 것이다.

스탈린의 사망과 휴전협정 연결

1953년 3월 5일 한국전란의 사실상의 도발자 「스탈린」의 사망이 발표되자 세계의 정세가 다소 호전되어 그 후종자(後繼者)인 「말렌코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소위 평화공존이라는 새로운 정세전환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대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휴전을 조속히 달성하려는 듯한 기세를 엿보이게 되어 포로교환문제에서 정돈상태(停頓狀態)에 빠져있던 휴전회담은 급격히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였다. 즉 「제네바」협정의 인도적인 조항만이라도 신속히 준수 실현시켜 보자는 뜻으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일찍이 2월 22일에 서한으로 제안한 바 있던 상병포로의 우선교환에 대하여 공산측은 3월 28일에 이르러 돌연히 동 제안을 수락한다는 조건하에 휴전회담의 재개를 제안하였고 30일에는 중공수상 주은래(周恩來)의 성명의로 송환을 원하는 전 포로를 교환할 것과 송환을 불원하는 포로는 중립국으로 이송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타결로 급전환을 보이게 된 휴전회담은 오랫동안의 정돈을 깨뜨리고 4월 6일부터 다시 판문점에서 재개를 보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53년 4월 1일에는 상병포로교환협정의 조인을 보았고 이에 따라 20일부터 7일간에 국군 및 「유엔」군 포로 600명이 돌아오고 공산군포로 5, 800명이 송환되었다. 10대 1로 인수된 이들 귀환자에 의하여 밝혀진 공산 측의 비인도적처우는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것만도 4천여건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6월 8일에 이르러서는 포로교환협정의 조인을 보게 되었으며 그 뒤 7월 27일 상오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 「해리슨」해군중장과 공산군대표 남일과의 사이에 휴전협정이 정식조인을 보았으니 이로써, 2차대전후 양대 진영의 대립이 이 땅에서 최대 규모의 열전으로 화하고 사상초유의 「유엔」군이 동원되어 이 땅을 초토로 만들다시피한 3년여의 대전란은 우선 일단락을 고하게 되었다.

한편 이 휴전협정에서 파생한 중립국감시위원단은 8월 12일부터 남북한 각 통항(通港)으로 향발(向發)하였으나 협정을 미구에 휴지화하며 군비를 증강하고 감시반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공산군의 노골적인 태도에 부딪쳐서 서서, 서전대표는 54년 4월, 감시를 위한 노력이 완전히 좌절되었음을 인정하고 본국귀환을 희망하기에 이르렀으며 남한에 주재하는 파란, 「체코」대표는 간첩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격분을 사고 있던 중 55년 8월에는 드디어 한국정부의 통고에 따라 축출되고 말았다.

△휴전협정과 공산괴뢰의 음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산측은 저들이 뿌려 놓은 침략이라는 악의 씨를 거둬에 있어서도 하등의 속죄의식이 없이 도리어 갇은 비행과 권모술수를 다하여 거둬 침략의 독아를 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이 휴전협정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간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은 휴전회담이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에 의하여 제의되었고 소련수상 「스탈린」의 죽음으로써 막을 내렸다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침략전쟁의 음모와 지령에 관한한 소련이 총 본적이었고 그의 실질적 집행자는 「스탈린」이었음을 여실히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산제국주의의 본질상의 문제, 즉 공산중주국과 종속괴뢰간의 주종관계는 국제적으로 제국주의 이념하에 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수괴의 교체는 공산제국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만을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선에서의 휴전은 「스탈린」의 서거를 계기로 하여, 직접침략에서 간접침략으로 그 실현양태를 바꾼데 불과한 것이지 전쟁도발이나 침략자체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면 저들 공산괴뢰는 간접침략방법으로 휴전을 통하여 무엇을 흥계하고 있나를 알아 보기로 하자.

첫째는 「말리크」의 휴전제의로 저들은 세계의 평화자유인민을 우롱함으로써 평화를 가장하는 방패를 삼았고, 둘째로는 휴전을 통하여 이미 소실된 전력회복을 꾀하는 동시에 재침을 하기 위한 군비확장과 이에 따르는 시간적 여유를 얻자는데 있다.

셋째로는 남한의 군사기밀탈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사상에 걸쳐 내부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밀파가 그것이고,

끝으로 판문점이라는 세계주시리의 활무대에서 갇은 억지와 비난욕설로 터무니없는 선전공세를 자행함으로써 저들의 휴전협정위반 및 기타 죄악상을 「컴퓨터주」하는 일방 자유진영상호간에 금을 긋자는 게 저들이 원하는 목표라 하겠다. 휴전성립 후 저들 공산괴뢰가 혈안이 되어 휴전협정위반임을 알면서도 군비확장에 광분하고 있음은 세인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도리어 「유엔」군 측이 휴전협정을 위반을 하고 있다고 역설선전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적만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하겠으며, 이러한 허위선전공세야말로 저들의 간접침략의 수단이며 목표인 것이다.

2. 휴전협정위반과 판문점

-협정위반의 실재와 선전

△공산괴뢰의 광적인 군비확장

휴전이 성립되기가 무섭게 북한괴뢰는 군사력강화에 골몰하게 되었다. 때문에 중립국감시위원단인 서서와 서전의 2개국대표는 54년 4월에는 감시를 위한 노력이 완전 좌절되었음을 자인하고 본국귀환이 만부득이하게 되자 철수해 버렸다. 이러한 공산 측의 군비강화는 그 후 더욱 열도를 가하여 방악무인격이 되었으며, 따라서 공산측은 휴전협정쯤은 이제 폐리(敝屣)처럼 내던지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의 고위층에서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으니 1956년 4월 17일 미국통합본부의장 「아더·레드포드」 제독은 하원의교위위원회의 비공개회의석상에서 「미국은 일방적인 한국휴전협정의 조건을 무한정기간동안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고 경고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군사정권위에서도 「유엔」군측

은 이러한 북한괴뢰의 군비확장에 광분하는 사실을 보다 못해 군사력의 불균형과 그것이 장차 초래되는 가 공할 사태를 감안하여 1957년 6월 21일 제75차 본회의에서 수석대표인 「밋젠버그」 미 해병소장으로 하여금 협정제2조 13항 D조항의 폐기를 공산 측에게 극적으로 통고한 사실 등이 있었다. 그러면 이들 북한괴뢰의 군비증강이 어느 정도였나를 휴전당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연표(57년 7월 26일)	일본방위청추산	휴전당시보유권
1. 병력 괴뢰육군 괴뢰해군 괴뢰공군 계	411,900명 73,000명 26,050명 439,900명	540,000명 6,440명 미상 미상	251,000명 4,400명 19,360명 275,000명
2. 장비 박격포 대전차포 로켓포 전차장갑차 항공기 합정	3,328문 641대 600대(기중 푸로페라167대) 10,240톤	3,015문 1,800문 46문 600대 990대 17,000톤	3,029문 480대 489대(전부푸로페라) 2,500톤
3. 공군기지 재트기지 푸로페라 경비행기	11개 12개 15개	5개 전투기사단 1개 폭격기사단 1개 경송기사단 1개정찰기사단 공군기지29개 기중T기 기지13개	16개

△공산 측의 협정 위반

「유엔」군사령부집계(1961년 6월 현재)에 의하면 공산측은 지난 8년간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도합 857건에 달하는 협정위반을 범했다고 한다. 그들의 위반은 지상에서의 불법월경, 발포, 살상, 납치를 비롯하여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진지구축, 금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탄약의 도입과 무단한 간첩납파, 어부납치 해 상공격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뻔뻔스럽고 가증하게도 이러한 위반사실 을 부인할 뿐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도리어 「유엔」군 측에 전가시키려고 급급하다간 마각을 드러내 기가 일수였다. 그런데 57건 중 그들이 시인한 것을 단 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부인 일관하는 것이 아니면 묵살하고 마는 것이 상투수단이 되고 있어 공산주의자와의 담론이 천해무익하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비강화금지조항은 지면 부족으로 생략하고 판문점에 서 벌어진 군사정전위원회의 회담상황을 별견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MAC)의 전반적 임무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여 어떤 위반사건이 발생하면 협의하여 처리할 직책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공산측은 언제나 불성실한 태도로서 이 위원회를 그들의 선전무대로 악 이용 해 왔던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61년 7월 현재) 142차의 회의를 거둬왔는데 그중 98회는 공산측 요청 이었고 나머지 44회가 「유엔」군이 소집한 것으로 이것을 연시간수로 통계한다면 348시간 20분에 달하며 그 3분의 2 이상인 236시간 50분을 공산측이 나머지 111시간 27분을 「유엔」군이 소비한 셈이 된다. 기록으로 보 아 1회 회의의 최장시간은 9시간 17분으로 1961년 1월 24일의 136차 회의 때였고 가장 짧았던 것은 1955년 7 월 16일의 7분간 회의였다. 쌍방수석의 1회연설의 장시간기록은 134차 때의 공산측이 72분 「유엔」측이 그보 다 5분 적은 67분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공산측이 요청한 회의 수는 「유엔」군보다 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통산 연 시간의 3분의 2를 공산측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것은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판문점을 공산주의방식 에 의한 선전무대화하려는 공산 측의 시도가 다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 공산 측 의 발언내용 역시 한결같은 형식을 취한다.

즉, 발언시초에는 항상 「유엔」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억지부터 시작하여 미 제국주의이니 자본주의 침략이니 하는 허무맹랑한 비난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며, 끝내는 저속한 공산주의에 대한 선전강의까지 하 게 된다. 이러한 공산 측의 집요하고도 일률적인 선전전은 하고 많은 공격, 비난, 수식사를 총동원시킴으로 써 저들의 침략음모를 엄폐시키려고 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자유진영간의 불화 불신초래를 목표로 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판문점에서 상투수단으로 절규하는 「유엔」군측 휴전협정위반이란 오로지 선전만 을 목적으로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며 휴전협정위반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전가 내지는 망각시키려는 전술 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필자. 내외문제연구소 연구위원)

7 · 27휴전과 공산전략(共産戰略)의 전환(轉換)



유 완 식

북한괴뢰 노동당(공산당) 규약 제1장에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말해놓고 있다. 이렇듯 북한괴뢰의 대남한 재침략의 총체적 귀착점은 남한을 공산화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주객관적 정 세의 변천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6 · 25 무력납침의 야망의 좌절을 의미한 7 · 27휴전으로 북한괴뢰는 불가피적으로 새로운 대남한 공산화 전 략을 책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7 · 27휴전이후 오늘날까지 단일한 전략으로 온 것은 아니다. 휴전 후에도 주 객관적 정세, 특히 남한의 정치, 사회정세의 획기적 변천이 있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괴뢰의 전략적 변화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다음에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7 · 27휴전을 분계선으로 한 전략의 전환

북한괴뢰는 6 · 25납침 전 후만하더라도 남한내의 반공민주세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즉 당시의 남한은 소 위 「식민지화한 반봉건사회로서 극소수의 지주와 예속자본가 및 친미관료」를 제외하고는 「주민들로부터 완 전히 고립된 정권이 오직 미국의 비호 밑에 연명」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소위 「50만 당원」을 가졌다는 남로당과 그의 영도하의 무장「빨치산」 그리고 혁명적 군상들의 붕기 에 의하면 무력납침은 단 시일내에 성공하리라고 타산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확립 못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무력납침을 전격적으로 수행한다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상 태에서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괴뢰는 그러한 단정이 오산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6 · 25동란의 실제행정은 오히려 공산독제를 반대하는 남북한 인민의 반공총력전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미국을 선두로 한 「유엔」군의 반공전쟁 참가는 공 산당의 환상을 부수어 버리기에 충분하였다. 이리하여 북한괴뢰는 7 · 27휴전이 되자, 이전 전략의 오류와 그 에 따르는 참패를 회고하고, 새로운 대남한 공산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주와 예속자본가 및 친미관료의 통치기구」라고 주장하면서도, 주권이 국민대 중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 군이 또한 전시와 전후에 걸쳐 질량 양면에서 현저히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한미유대가 공고하고 한편 남로당 계열의 지하조직과 「빨치산」활동이 발본색원 당한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단 기속결주의 성산이 없는 모험이라고 깨닫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민주기지」(공산화 기지를 의미함)를 강 화한다는 이름 밑에 괴뢰무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로부터의 와해공작에 의해서 기어코 남한을 공산화하 려 들었던 것이다.

북한괴뢰의 3개년 경제계획(1954-56)과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57년-61)이 북한주민들의 중노동과 기아 위에 서 중공업 특히 금속공업에 치중한 사실 그리고 휴전 후 수천 명의 대남정치공작원을 파견한 사실 등은 이 러한 사정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서상(敍上)의 전략을 토대로 각양의 전술이 펼쳐졌는바, 그 가운데서도 소위 「통일전선전술」은 가 장 중추적인 것이었다.

즉 북한괴뢰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반대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그의 붕괴를 촉진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술은 물론 당시의 남한정계의 부패와 무기력에서 온 국민의 불평불만의 정신상태에 소지를 둔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전략 전술의 입장에서 가장 높이 내세운 것이 소위 「평화통일」이었다. 6·25동란과정에 공산당에 대한 증오가 몸에 배인 남한 민중들에게 공산주의를 따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평화통일」을 내세워 민중을 회유해 보자는 속셈이었다. 더욱이 당시 자유당 정부가 무력복진이라는 고식적인 통일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통일」의 선전공세가 보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던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계 사조로 보아서는 국제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1954년 10월의 괴뢰 「최고인민회의」 제8차 회의에서는 「평화통일」노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 이듬해의 「제네바」회의에 참가한 북한괴뢰 대표는 그들의 「평화통일」노선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이 표방한 「평화통일」이란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그것은 「유엔」군의 남한으로부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인구비례에 따르는 총선거가 아니라 남북한 동수로 통일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 주장하는, 즉 오직 선전공세를 위한 것이었다. 어쨌든 북한괴뢰는 평화통일을 선전의 앞장에 내세우고 온갖 선전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남한에 지하조직의 확장에 광분하였으며, 그 지하조직으로 하여금 과거와는 달리 표면상의 파괴활동을 지양케 하고 그 대신 지령에 따르는 음성적 선전조직, 포섭공작을 전개케 하여 유사시에 당의 명령일하에 일거 표면에 진출하게 하리라는 심산이었다.

괴수 김일성은 휴전 후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 계열을 「단죄」함에 즈음하여 「박헌영은 6·25 당시 남로당 원인 정예분자 50만이 남한에 건재하다고 호언하였는데 50만은 커녕 5천명이라도 있어서 한국전선에 출동하는 미군부대의 상륙을 반대하여 부산항에서 시위를 단행해 주었던들 우리에겐 유리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물론 6·25남침 실패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들의 상투적 모략이라 하겠지만, 한편 이 말은 그들의 대남공작의 새로운 방향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괴뢰의 이와 같은 「평화통일」의 선전에 의한 대남한 농락의 책동은 남한정계의 무원칙한 정쟁과 사회적 부패, 그리고 경제적 침체가 우습해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신념이 해이해질수록 더욱더 교활해지고 또 집요해 갔다.

1956년 4월에 열린 괴뢰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는 소위 「평화적 조국통일 방안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에 선전에 혈안이 되있는바 여기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북한의 「건설상」을 과시하는 한편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적」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단합하라느니 또는 「남북한국회 정부 혹은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로써 구성되는 상설위원회」에서 통일문제를 토의하라느니 혹은 남 북간의 상호내왕과 서신거래를 실현시키자느니 하는 등의 제의를 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제의는 간접적으로는 북한의 정치, 경제제도를 남한에서도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으며, 직접적으로 정계의 혼란과 국민의 반정부 운동을 선동함으로써 간접침략의 소지를 넓히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괴뢰는 교활하게도 이러한 남한의 부정적 사회상의 연유가 미국의 대한정책에 있다 하여 언제나 반미운동을 위한 선전, 선동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미유대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한 소기의 간접 침략을 달성하기가 지난하며 또한 무력적 침략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속셈에서 였다.

(2) 4·19이후 5·16까지의 전략

4.19 이전에는 북한괴뢰의 평화통일의 표방은 오직 선전을 위한 것이었지 그 실현성을 애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자유당정부의 철저한 복진통일 노선이 현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실이 기간의 북한괴뢰의 평화통일의 제의 자체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상대방에서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4·19에 뒤이어 민주당정부가 수립되자 용공적인 통일노선이 「다수국민의 의식을 대표한 것은 아니었지만」 쏟아져 나왔고, 한편 민주당정부는 반공국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없는 약체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남한정세를 간파해 버릴 북한괴뢰가 아니다. 북한괴뢰는 변동된 남한정세에 대응하게 새로운 대남한 공산화전략의 책정에 나서게 되었다.

1964년 8월 15일 김일성은 「남북연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연방안이라는 것은 동서독 통일문제에 있어서 공산측이 이미 오래 전에 내놓고,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진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때 김일성은 그것을 과거의 「평화통일」 방안과는 달리 오직 선전을 목적으로한 것이 아니라 남한정세의 동향으로 보아서 충분히 실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괴뢰의 대남한 책동의 종국적 목적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남한의 공산화에 있는 만큼 당시의 정세로서는 남북연방안의 제의가 가장 적절한 공산화 방도로 생각한 듯하다. 즉 김일성은 그 때만 하여도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으로서는 자기 측에 승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국제적 보장을 얻기가 지난했다고 생각한데서 우선

남한의 적지 않은 정치세력이 호응하리라고 믿은 남북 연방안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남북 연방 안이 실현되면 당시 한결같지 못한 통일노선을 점차 자기측 의 그 실 공산화 통일노선에 인입시켜 보자는 속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렇다 하여 당시 북한괴뢰가 대한민국을 내부로 부터 와해하려는 과거의 음모를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자(남북연방안)와 후자(내부로부터의 와해음모)는 상호 보완되는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전후자를 상호 병행시켜 그중 가능한 어느 한 방도로 공산화를 달성해 보려는 말하자면 이중전략의 적용이었다.

여하간 4·19이후 즉 민주당 시대의 북한괴뢰의 대남한 공산화 전략은 이전의 우회적인 성격인 것에 대하여 다분히 직접적 대결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북한괴뢰는 이 전략에서 승산이 있다고 확인하였을 것이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공산당은 충분한 승산이 없는 한 전략에는 가까이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또 아닌게 아니라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당시 그와 같이 무기력한 민주당정부가 5·16혁명이 없이 존속해 나갔다면 서상의 북한괴뢰의 공산화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으리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하겠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은 냉한삼두(冷汗三斗) 전율을 금할 수 없는 심정에 이른다.

(3) 5·16이후의 전략

5·16혁명 이후에는 앞서 말한 북한괴뢰의 남북 연방안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 강력한 혁명정부 앞에서는 남북연방안 따위는 너무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작년 8·15에 행한 괴뢰 제1부수상 김일성의 연설과 그에 뒤이어 9월에 열린 괴뢰 노동당 제4차대회에서의 김일성의 보고연설에서는 새로운 대남한 공산화 전략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그 연설에서 마지못해서 평화통일을 주장해 놓고는 있지만 여느 때와는 달리 노골적으로 남한민중들에게 소위 「노동자들을 태업과 파업을 조직하라」, 또는 전 남한인민들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라」는 양으로 파괴행동을 선동하였고 한편으로는 지하 공산당을 조직하라고 선전해 놓고 있다. 말하자면 종전의 허위적인 평화통일의 표방을 사실상 체재놓고 혁명정부의 통치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파괴활동을 선동해 보려는 것이며 또한 혁명정부의 강한 경제건설계획을 방해해 보려는 책동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 및 전술의 전환의 계기는 어디에 있는가? 과거와 같은 「평화통일」선전이나 남북 연방안 따위로써 주효하기에는 너무나 혁명정부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혁명정부의 복지사회 건설의 시책 앞에서는 그러한 모략적 책동이 자리 잡을 사회적 소지, 혹은 온상이 이미 제거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북한괴뢰가 소련 및 중공과 각각 체결한 군사동맹조약도 이와 같은 새로운 대남한 공산화전략의 방향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북한괴뢰가 존속하는 한 그는 세계 공산세력의 일환으로써 남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공산화 전략, 전술의 추이를 항시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시사평론가)

▲북한 탈출자의 말

북한에서 체육교사였던 「채선경」씨는 북한에서 비교적 후대를 받았음에는 생명을 무릎 쓰고 북한을 탈출했던 것이다. 그가 대한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1961년 9월이었는데 26세의 청년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북한에서 평양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의 체육 선생을 지냈다. 그러나 공산당의 교육제도 밑에서는 선생이 자기 제자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나는 쉬이 알게 되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다. 나는 사실상 생도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야만 되니 참으로 통분한 일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나를 불순분자라고 낙인을 찍고 나를 교직에서 추방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탈출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탈출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두 형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공산당들이 양민을 처형하려 할 때에 소집하는 집회에서 나의 형님들도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이것을 소위 인민재판이라고 한다.

나는 나의 형님들이 무슨 죄로 처형 되었는지 전연 그 이유를 모른다. 형님들은 모두 선량한 종교인이었다. 아마 진실한 신자라는 것이 죄였을 지도 모른다. 공산당은 국영 인쇄소에서 공산당 고급간부들의 사진동판을 더럽혔다는 죄와 아울러 터무니없는 죄명을 나의 형님들에게 씌웠다. 형님들이 처형당한 후에 나는 탈출할 다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공산당과 싸울 결심을 다짐하였다.

『나는 내가 북한에서 겪은 경험과 자유로운 사회의 생활 방식이 공산 노예 제도하의 생활과 판이한 점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 줌으로써 공산위협에 대항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우려고 한다. 나는 남한 동포 형제들에 관하여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북한의 지식층 인사들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싶다. 나는 그들이 공산도당의 선전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들에 나가서 농부들과 흙이나 파는 것이 참된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종말 없는 대화 장

- 판문점 주변의 낙수 -



이윤희

<두 개의 전화>



155마일에 걸친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남한과 북한은 무엇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다. 철로도 절단되었으며 도로도 차단되었고 전선 전신마저 끊어진 채 모든 부면에서 남북한은 철저한 양단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해로, 공로마저도 봉쇄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단하나의 「루트」가 판문점에 있다 그것은 판문점회의장소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유엔」군 측 막사 안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제 야전전화 한 대와 소련제 야전전화 한 대이다. 이 「두 개의 전화」를 가지고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수시로 서로 남쪽과 북쪽을 연락한다. 남쪽과 북쪽으로 가늘게 뻗은 두개의 전화 줄은 이 「두개의 전화」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한을 서로 연결해 놓고 있는 것이다.

전화를 사용할 때의 용어는 한국말과 영어 두 가지 - 공산군 측은 먼저 한국말로 「유엔」군 측에 대하여 용언을 이야기한 다음 곧 이것을 영어로 통역한다. 「유엔」

군 측이 공산군 쪽을 향해서 전화를 걸 때는 먼저 영어로,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해 준다. 원래 휴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등 세 가지로 되어 있으나 전화사용의 경우에는 중국어통역이 생략되어 있다. 단 하나의 접촉점을 통해서 어느 때 무슨 일이 공산군 측으로부터 연락이 올지 몰라 「유엔」군 측은 「두개의 전화」앞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24시간을 줄곧 근무하고 있다.

<고독한 초소>

말뚝과 말뚝 사이를 연결한 흰 「테프」로 표시 된 공동감시구역 안에는 두 가지 명물이(?) 있다. 그것은 한 쪽에는 영어와 한국말로, 또 한쪽에는 한국말과 중국어로 군사정전 분계선을 표시해 놓은 팻말이 그중의 하나이며 또 하나는 「유엔」군 및 공산군이 따로따로 지어놓은 초소들이다. 영어가 적혀있는 쪽은 남쪽을 향해서, 중국어가 적혀있는 쪽은 북쪽을 향해서 서 있는 노란 팻말은 군사정전분계선 155마일에 연해서 천여 개가 서있다. 파란 칠을 한 「유엔」군 측 초소 앞에 서있는 「엠·피」를 볼 때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으나 회색과 흰색을 섞어 칠한 공산군 측 초소 앞에 서있는 괴뢰군경무병을 볼 때 판문점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상한 눈초리로 오랫동안

군기확립에 대한

나의 제언

백정현

군기는 군의 명맥입니다. 군기가 확립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군대의 강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막대한 병력과 우수한 병기를 보유하는 군대라도 군기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군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있고 군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군기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군대는 부과된 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미 그 존재가치마저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물며 현대전에 있어 무력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전 혹은 사상전입니다. 이 사상전에서 승리하려면 고도의 정신무장이 요구되며 정신무장은 또한 확고한 군기유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군기확립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인정신의 충일입니다. 군대는 각기 상이한 개인의 집단이며 이 집단을 한가지 목표로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애국심념이 아니고는 안되겠습니까. 군인은 단순히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한걸음 나아가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호한다는 철저한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정신은 군기와 부합 될 것이며 현재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그들을 쳐다보게 된다.

그러나 괴뢰군경무병을 쳐다본 방문객들 중 한국인이나 외국사람을 막론하고 경무병과의 눈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까지 경무병들은 절대로 무섭게 마주 노려보는 그들의 눈을 돌리지 않는 강한(?) 습성이 있다. 이러한 초소들은 「유엔」군의 것이건, 또는 공산군의 것이건 간에 그것들이 무척 고독한 존재이다. 다만 공동감시구역 내의 공동감시단만이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단하나의 임무 - 물론 「유엔」군 측 「엠·피」와 공산군 측 경무병 사이에는 대화가 오고가는 법이 없으며 그밖에 이야기를 나누어 볼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한다. 판문점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 가설된 「콘크리트」다리 남단에 서있는 「유엔」군측 초소를 가리키면서 미국 한 사람은 『저것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고독한 초소」일 겁니다』라고 뇌까린 적이 있었다.

<독설과 선전>

판문점이 휴전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공동노력이 경주되는 무대보다도 불뽕은 선전무대로써의 역할을 한층 중요시하기 시작한 적은 벌써 오래되었다 판문점 한 가운데 자리 잡은 회의장소는 전 세계적인 동서진영간의 냉전과 발맞추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두 말초신경이 서

로 맞서서 불꽃을 튀기고 있는 곳이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열리는 본회의는 시작만 되면 으레 너댓 시간씩 계속되며 「유엔」, 공산양측 수석대표 및 그 보좌관들 일행은 점심도 굶어가면서 끈덕진 입씨름을 벌린다. 이래서 양쪽대표 및 보좌관들은 상오 11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점심을 먹어 두는 게 상례로 되어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침략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평화를 애호하는 전체조선인민은 이러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당신측은 불법침략군대를 당장에 철수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공산측은 선전전의 막을 열기 시작한다.

『누가 침략자인가? 오늘날 북한 땅에 사는 평화와 자유를 애호하는 한국국민은 「크레믈린」상전의 손발같이 움직이는 공산독재자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북한국민의 이 억울한 사정을 당신측은 「후루시초프」상전에게 보고하라』 「유엔」군측 수석대표의 반격이다. 이쯤 되면 입씨름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번져 간다.

『오늘날 위대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쏘비에트」연방공화국은 썩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주정복에 있어서 그들 제국주의 국가들을 훨씬 뒤에 남겨 놓고 빛나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입씨름의 최고 절정에서 「유엔」측 대표는 『연간 국민총생산고가 5천 억불이 넘는 세계최강의 나라 미국에 대하여 당신측은 그따위 말을 떠벌릴 수는 없다』고 응수한다. 끝없고 속없고 효과 없는 입씨름이 계속되는 판문점은 확실히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유와 평화의 고문장」이기도 하다.

<제4의 지대>

본회의장의 불뽕은 입씨름, 회의장 밖에 서있는 양측의 「엠·피」와 경무병들, 누구하나 마주 보고 웃는 낮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살풍경한 공기가 판문점 전체를 뒤덮고 있다. 그러나 살풍경 하기만한 판문점 속에 단하나의 「오아시스」가 있다. 그 곳은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자리잡은 중립국 감시위원단 사람들이 회합하는 건물이다. 비록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본래의 역할이 정지된 지는 벌써 오래지만 「스웨덴」「스위저랜드」「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 대표들은 자주

있는 우리로서 멸공정신과 직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습니다. 책임완수란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완전히 다하는 것입니다. 개체가 모여서 전체를 형성하고 또한 개체는 전체속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존립은 개체와 전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각자에 부여된 책무를 최대한의 창의와 노력을 경주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군 전체의 임무와 사명은 각기 장병에 부과된 책무에 달려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군기가 확립된 연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교육의 철저입니다. 군대에 계급이 엄연히 있고 상관은 부하에 명령을 하고 부하는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평소에 상관은 부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군이 목적하는 바를 주시시켜 그 교육에 대한 감시 감독은 물론 지도에 전력을 다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오직 강권과 억압을 통한 군기확립은 군기의 근본목적에 상치되는 것으로서 교육을 통한 설득과 이해로서 될 때 인화단결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상관의 일거일동은 부하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무리와 강제는 금물입니다. 넷째로 모든 규범은 숭신하여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한 사명을 지닌 군인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군대의 임무와 존재의의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법규의 준행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적인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혁명의 주체인 우리 군인은 다른 어느때 보다 군기확립에 전심전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자. 공군대령 31전대장)

이 건물 안에서 회합을 연다. 휴전협정 조문에 따라 남북한 양쪽의 무력증강 방지를 감시하는 그들의 입무수행은 「스웨덴」 「스위저랜드」 대표의 북한자유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중지상태에 빠져 있다.

동근 「테블」 한 가운데에 4개국 국가가 꽃혀있으며 「테블」 주위로 열 두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 이 곳에 둘러앉은 중립국 대표들은 본회의장의 「유엔」 공산 양측대표들의 무뚝뚝하고 긴장된 태도와는 달리 서로 이야기할 때 웃음을 섞어가며 명량한 분위기를 무르익힌다. 우호적인 기분이 감도는 이 「제4의 지대」에선 간단한 「쥬스」나 때때로 라선 주류도 함께 마시는 경우가 있다. 숨 막히는 냉전의 장소 판문점을 비웃는 듯 이곳 담벼락에는 4개국의 관광 「포스타」까지도 붙어 있어 「오아시스」의 기분을 한층 돋우어 준다. 제각기 특색있는 「유니폼」을 입은 이들 대표들이 본회의장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나는 입씨름에는 도무지 무관심한 듯 「카메라」를 들고 구경삼아 이곳저곳을 산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비극적인 국토양단에서 일어나는 한국 사람의 서러움은 한층 심각해지지만 한다.

<종말없는 대화>

본회의가 열릴 때면 언제나 양쪽에서는 다수의 기자들이 판문점에 몰려든다. 대략 양쪽 기자들을 모두 합치면 약 4·50명 - 이들은 회의장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서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때로는 담배를 서로 바꾸어 피기도하고 비스켓트나 사탕도 같이 나눠먹는 수도 있다.

『그동안 잘 있었나?』 구면들끼리 서로 인사를 교환하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북한 기자들은 으레 화제를 묘한 곳으로 유도할 때가 많다.

『남조선에도 도로가 잘 건설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야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을걸... 가령 판문점에서 서울에 이르는 길도 완전 포장되어 있고 서울부산간의 국도도 포장의 거의 끝났고 말야...』 남한 기자들의 답변이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기자는 『흥... 그래... 그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도로란 말이야』라고 주석을 붙인다. 이야기가 이쯤 되면 남한기자들은 더이상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구구하게 늘어 놓지않고 한마디로 북한기자들의 말을 부인한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공산군이 남침하면 하루아침에 부산까지 진군하라고 길을 깨끗이 해놓은 것이지...』 이런 답변에는 북한기자들도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해 버린다.

북한기자들과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요즘에도 남한에는 절량농가가 많나지? 그렇게들 굶고 어떻게 사나?』

『흥... 절량농가 뿐인가? 나도 오늘 아침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고 왔더니 배가 고파 죽겠는걸...』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답변을 하면 의례히 묘한 곳으로 이야기를 몰고 들어가 엉뚱한 결론을 내리려 드는 북한 기자들의 작전을 사전에 꺾어 놓자는 남한기자들의 술책이다. 이러한 대화의 내용은 자칫하면 감정의 대립을 유발하는 수가 더러 있다. 그래서 남한기자들은 화제를 자주 가정문제나 생활문제에 집중시킨다. 『어린이가 몇인가? 학교에 다니는지? 부인이 몇살인가? 당신월급은 얼마나 되지?』 등등 가정생활의 근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남한의 그것을 설명해 주면 북한기자들의 얼굴에는 좀 형언하기 힘든 표정이 감도는 것 같다.

(필자. 동아일보기자)



풍요한 사회

(자유 세계의 번영)

맑스가 예언한 봉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단계를 맞아들이는 자본주의경제의 실증.....

W · W · ROSTOW

두개의 명저

케네디 대통령의 부레인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마사츄셋츠공과대학의 로스토우교수는 58년 가을, 캠프릿지대학에 초빙되어 경제성장의 5단계라는 강의를 행하였다. 이 강의의 내용은 이듬해 59년 8월 15일, 22일의 런던 에코노미스트에 연재되었는데 61년에 「경제성장의 제단계」(W·W·ROSTOW :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라는 표제로 단행본이 출판되었다. 그러자 자유 세계에서는 이 책을 「비공산당선언」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로스토우교수가 본서의 서문에서 말했듯이 동 교수가 예일대학 학생이었던 1930년대의 중엽 하나는 경제사를 근대경제 이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해명하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경제 형상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체제력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두 개 명제를 달성할 것을 결의하고, 그 후 줄곧 이 연구에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의경제」를 비롯해서 「경제성장의 과정」등 스케일이 크며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경제사이에 대대한 감명을 주는 저서로 알려져 있다.

또 케네디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브레인으로 알려진 갈부레이스교수(前주인대사·하바드대학교수)의 「풍요한 사회」(J.K.Galbraith : The Affluent Society 1958)는 미국·영국에 있어서 특히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로스토우교수가 캠프릿지대학에서 경제성장의 5단계를 강의했던 58년이다. 갈부레이스교수는 경제사연구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로스토우교수에게 일보를 양보해야겠지만 경제이론의 분야에서는 고전경제학에서부터 근대경제학에 이르기까지의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병행해서 맑스주의 경제학에 대해서도 극히 깊은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있어서의 진보적인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갈부레이스교수가 로스토우교수와 다른 별도의 경제 사회면에 관한 지극히 넓은 상식을 가진 것은 과거의 경험에 힘 입은바 크다. 토론토대학 졸업 후로 캘리포니아, 하바드, 캠프릿지의 각 대학을 다녔고 제2차 대전 중에는 프린스턴대학의 조교수로 부터 정부 요직에도 있었다. 또 오랜동안 포오첸지의 편집원으로 활약 하였고 48년부터 하바드대학에 다시 돌아가서 49년에 교수가 되었는데 그는 이처럼 다채로운 경험의 소유자이다.

갈부레이스교수의 저서로는 「풍요한 사회」 외에 「미국 자본주의」 「물가통제의 이론」 「1929년의 대공황」이 있고 최근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출간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것은 55년 여름철부터 집필하여 3년 후에 출간을 본 「풍요한 사회」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갈부레이스교수의 「풍요한 사회」와 로스토우교수의 「경제성장의 제단계」가 같은 시기에 열매가 익어갔다는 것과 미국에서 가장 오랜 도시인 보스턴의 두 대학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하바드대학과 마사츄셋츠공과대학은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첨단을 걷는 새로운 학문이며 연구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케네디 정부의 부레인도 여기서 새로운 세대의 창엽에 속속 참가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전기 두 개의 저서의 이념이 그 어느 것이나 참신하며 또한 미국적인 젊음과 희망에 넘치는 밝은 저술임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일에 앞서 다짐하자
사심 없는 공무수행

양저에 공통된 특색을 들면 첫째 양저 모두 경제제요인을 사회 현상의 일부로서 극히 광범한 시야에 입각하여 폭넓게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뜻에서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맑스의 「자본론」 또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비슷한 품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경제학을 자기의 수학적 재능을 발휘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최근의 경제학자들의 저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중후감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로스토헌 교수가 처음부터 이러한 태로로서 연구에 임하였음이 분명하게 갈부레이스교수 역시 「풍요한 경제」로 하지 않고 「풍요한 사회」라고 제명한 것도 그의 학문적인 방향의 기보적 태도가 엿보인다.

둘째로는 양저가 모두 극히 명료한 의도를 가지고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맑스주의자가 독점집중단계에 들어간 자본주의 경제는 조만간 붕괴하고 마는 길을 더듬게 될 것이라는 설명에 대하여 양 교수는 함께 자본주의 경제가 맑스주의적인 길을 간다고 보는 것은 이미 오늘의 현실에 눈을 가리는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공급의 면보다 수요의 면에 중점을 두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즉, 로스토헌 교수는 금일의 미국과 다른 여러 선진국의 경제가 벌써 대량소비시대에 들어 갔음을 역사적으로 실증하고 있으며, 한편 갈부레이스는 현대의 미국 경제를 풍요한 사회라는 개념에서 포착하여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자본주의 경제의 실체를 해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진하는 자본주의 경제

미국의 경제와 영국의 경제, 그리고 구주의 경제와의 사이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미국적인 독특한 경제학이 생겨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독자적인 경제학으로는 Henry Carey(1973-1879)의 그것을 제외한다면 이렇다할 것이 없다. 미국 경제학의 시조라고 하는 Carey의 경제학에는 미국 독특한 낙관적이고 밝음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경제학의 모체가 된 영국의 경제학, 즉 아담 스미스, 말사스, 리카아드의 경제학에는 자유주의 경제의 진보에 수반하는 빈곤, 불평등, 불안전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언제나 뒤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신대륙에 들어온 정통학파의 경제학은 미국경제의 현실에 비추어서 그에 의해서 두 개로 수정되었다.

하나는 리카아드의 보수체감의 법칙에 대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말사스의 인구론에 대해서이다. 미국에서는 신이주민은 최초 용의하게 정착할 토지를 가질 수 있었고 그 후에는 넓은 토지를 개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럽과는 반대로 보수의 체중이라는 기현상을 보였다. 또 인구증가는 신대륙의 개척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요건이며, 한사람이라도 많은 협력자를 얻어서 자연을 극복하는 것이 미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합치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Carey에서 순을 돌힌 미국 독특한 낙관적인 경제학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 좋은 후계자를 얻을 수 없이 그의 공적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미국 독특한 제도학과경제학의 건설자로 알려진 Thorstin Vobin도 밝은 후론티어 정신의 소유자는 못되며 Henry George도 리카아드 이상의 심각한 자본주의 경제의 예언자였다.

리카아드는 압담한 자본주의 경제의 장래에 대하여 냉혹한 방관자였다. 맑스는 자본주의 경제의 결함을 추구하며 그 변혁을 구하려는 정의감과 정열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주의의 경제학은 어떻게 되었는지 미국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이에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미국경제의 현실이 유럽에서 자라난 혁명적인 경제학의 교의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희망에 넘쳐 있었고 또 하나는 스펜서의 사회진화사상이 미국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승렬패는 자연법칙이며, 빈민구제와 같은 것은 이러한 자연법칙에 반한다는 생각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뿌리 깊었다.

1930년대의 불황은 맑스의 예언은 결국 자본주의 제도의 붕괴를 가져 오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뉴디일과 그에 뒤이어 제2차 대전에 의하여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케인즈 경제학은 그 이론적 근거를 주었고 전전에 이르는 경제학의 총아가 되었다. 그 때문에 20년간에 미국 경제학은 케인즈 경제학의 위대함에 현혹되어 그를 추수하는 이외에는 다른 길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에 있어서 계속되는 미국 경제의 변영에 대해서는 불황의 경제학인 케인즈 경제학은 이미 만능 약은 아니었다. 거기에 미국 경제의 금일의 발전에는 도저히 리카아드, 말사스의 정통학파로서는 그 비판적 이론을 가지고서는 설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동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위에 다시 그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게 된 오늘의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독자적인 새로운 경제학의 탄생이 필요하게 된 시기가 온 것이다. 이같은 요청에 의하여 생겨난 경제학이 로스토헌와 갈부레이스 양 교수의 그것이라 해도 과히 틀림은 없을 것이다. 이 두 교수는 현실의 경제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장래를 전망 하려는 것이며, 주기적인 새로운 경제학 체계에의 단서를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20세기의 후반에 들어서 Carey 이후 비로소 미국적인 밝고 낙관적인 경제학이 다시 개화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경제성장의 5단계

로스토헌교수의 경제성장 5단계의 제1단계는 전통적사회(The Traditional Society)라고 하여 금일 아직 아프리카 원주민부락의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식량생산을 주체로 하는 원시사회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며, 제2단계는 과도적사회(The Transitional Society) 현재의 「가나」에 있어서와

같이 이제가 투자가 시작되고 상공업, 은행업 등이 일어난다. 제3단계는 비약(The Take off)이라 하여 오늘의 인도의 경우처럼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공업생산이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에 수반하여 절약도 증가, 국민소득의 5% 이내 10%정도의 투자가 가능하게 된 사회를 말한다. 제4단계는 성숙과 전진(The Drive to Maturity)을 계속하는 사회, 오늘의 멕시코와 같이 국민소득의 10% 내지 25%가 재투자되고 자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국내에서 생산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제5단계가 문제의 대량자본시대(The Age of Mass-Consumption)이며 미국을 비롯해서 일부 선진제국은 현재 이미 이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있다. 대량자본시대의 사회에는 거대한 생산력과 생산의 다양화에 의하여 소비재의 종류는 보다 다종다양하여지는 한편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하여 지며,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이른바 「레자시대」라고 일컫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다. 현재 이미 대량자본시대에 들어간 나라로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라리아, 스웨덴, 프랑스, 서독, 일본 등을 예 들고 있다.

비약이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영국 1783-1802년, 프랑스 1830-60년, 미국 1843-90년, 일본 1878-1900년, 노서아 1890-1914년, 캐나다 1896-년1914년이며 현재 비약이 단계에 있는 나라로서는 알철허 1935년-터어키 1937년-인도1952년-

주=영국이 가장 빨리 비약을 하였는데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의 자본을 도입치 않고 자력으로 비약을 성취하였다는 점은 미국, 노서아, 캐나다 등의 경우와는 커다란 상위가 있다.

다음으로 제4단계의 성숙사회로 들어간 것을 보면 영국 1850년대, 미국 1900년대, 독일, 프랑스 1910년대, 스웨덴 1930년대, 일본 1940년대, 캐나다 및 소련 1950년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5단계인 대량자본시대에 도달한 것은 미국이 1920년, 캐나다가 좀 늦게 미국을 뒤따랐고 영국, 오스트라리아는 1930년대, 일본은 1950년대의 순으로 볼 수 있다.

소련은 아직 제4단계의 성숙에의 전진단계에 있으며, 불원 대량자본시대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가장 빨리 대량소비 시대에 들어간 것이 미국이다.

주=비약의 시대에 관해서는 그 기준을 공업생산력에 둔다면 이상에 지적인 연대보다 늦어진다. 영국 1819-48년, 미국 1868-93년, 스웨덴 1890-1920년, 일본 1900-20년, 소련 1928-40년이 된다.

대량소비 시대

대량소비시대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단계를 뜻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대량소비시대의 모델사회인 미국 경제의 그 성장 과정을 훑어보기로 한다.

로스토헌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 경제가 비약을 수행한 것은 1843-60년이며, 그간 두 개의 고비가 있었다. 하나는 1840년대의 본부에 있어서의 철도와 공업의 발전이며 또 하나는 1850년대의 활발한 외자의 유입에 의한 중서부예의 철도의 확장이었다. 거기에 남북 전쟁을 계기로 하는 중공업의 발달이 미국 경제의 비약을 완성시켜 그 후는 철도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그것이 다른 부문에도 철에서 강으로 시대가 바뀌어 제강을 중심으로 성숙예의 전진이 계속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 성숙사회로부터 고도로 대량소비시대로도 급속히 성장 하였는데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관찰함이 편리할 것이다.

(1) 1901-16년

테오돌·루우즈벨트대통령이 취임한 해로부터 제1차 대전에 참전할 때까지의 기간이며, 미국이 문토주의를 버리고 국제적으로 발언권을 가진 시기이다. 획기적인 경제 정책과 대기업을 억제하기 위해 누진세제가 채용되고 노동자의 단결권이 인정되는 외에도 연방 준비제도가 설립되어 금융면으로 부터의 경기조사가 행해졌다. 또 정부의 사회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었으나 사회보장 미 군사지출은 크게 팽창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비는 증대 했으나 도시의 생계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억제 되었다.

(2) 1920년대

농민인구는 1900년에서 40년까지 감소를 계속하는 반면에 공업, 건축, 운수등의 노동인구가 증가하였다. 반숙련 노동자의 증가율은 노동인구의 증가율의 2배, 자유직업 및 화이트·칼라의 증가율은 동일하게 3배에 달하였다. 20년대의 인구는 16%가 증가하였는데 도시인구는 22%, 교외생활자는 44%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중산계급의 흥성이 현저하여졌고 자가용차, 일가족주택, 거기에 내구소비재의 시대가 시작 되었다. 1899년에서 37년까지의 사이에 승용차는 180, 100%, 담배, 석유, 밀크, 사탕은 모두 1,000%이상, 시멘트, 통조림 식료는 1,000% 가까이 늘었다. 자가용차의 대중화와 이에 수반되는 도로건설, 대륙내부예의 발전, 라디오, 전기 냉장고의 보급, 통조림, 냉동식료등의 수요 증대는 20년대의 붐과 함께 성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었다.

(3) 1930년대

1929년의 공황현상은 원래 보통의 주기적인 경기 하강에 불과했다. 제1차 대전후의 주택에 대한 연장수요가 소멸된 것과 인구 증가율 및 가족 형성의 감소가 주원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내외의 금융공황이 겹쳐들었기 때문에 불황은 심각화하였다. 그러나 그 간에도 대량소비시대의 특색으로서 자가용차, 교외주택, 도로,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지 않았다. 거기에 이전에 단계에서는 자본가는 생산 코스트를 인하여 이윤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대량소비 시대가 되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가로서도 완전고용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 되었다. 30년대의 미국 경제는 극단한 하강을 시현하였지만 결국 저수준에서의 안정을 가졌던 것이다.

(4) 전 후

1946·56년은 20년대와 같은 봄의 시기였다. 30년대에 저하한 부외에의 이주의 경향이 다시 활발하게 되었다. 자가용차를 가진 가정은 48년에 54%였던 것이 10년 후인 58년에는 73%가 되었다. 한편 전기 냉장고를 가진 가정은 46년에 69%가 10년 후에는 96%로 증가하고 전기 청소기 세탁기도 동틀로 증가 되었다. TV는 56년에 86% 그런데 교외주택, 자동차 그 밖의 전기기구의 수요에 의한 미국 경제의 성장은 한 고비를 넘은 감이 있어 자동차의 수요는 약간 줄어들고 있다.

(5) 다음 단계

그러면 미국에 있어서 대량소비 시대는 이로써 종말을 고했을 것인가? 로스토우교수는 대량소비 시대는 미국에 있어서 그 생명이 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오토메이슨과 함께 1주간의 노동 일수가 4일내지 3일로 단축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견해에 대하여 현 단계로서는 아직 그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는 미국의 최근의 인구증가 문제가 있다. 미국이 출산율은 전시중 천명에 대해 18에서 22의 증가율이었으며, 전후에는 25로 되어 현재 그률이 지속되고 있다. 46년 당시의 예측으로는 1990년의 미국의 인구는 1억6천5백만으로 추산 되었는데 현재와 같이 1·5%의 율로 증가한다면 1980년에는 2억 사천만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금후 10년간 미국은 생산을 보다 증가시켜야 한다. 거기에 노동인구와 20세 이하 65세 이상의 의존인구와의 비율, 즉 1915년에 노동자 100명에 대해 84명이 있던 것이 35년에는 74명으로 내렸다. 그런데 55년에는 다시 81명으로 늘었다. 현재의 예측으로는 57년에는 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갈부레이스교수가 말하는 풍요한 사회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 주 4일제의 노동은 아직 실현 안되어 있고 공급부족의 문제도 남아 있으며, 자원의 원활한 이용이 다음 단계 즉, 풍요한 사회를 실현시킬 것이다.

풍요한 사회

로스토우교수는 대량소비 시대에 들어간 국가로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가의 이름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갈부레이스교수의 「풍요한 사회」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갈부레이스교수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역사적 과정의 분석에보다도 오히려 풍요한 사회의 대표로서의 미국경제의 현상분석에 중점을 두어 의논을 진행시켰다. 따라서 양자는 문제를 접근시킨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취한 그만한 결론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대량소비시대에 들어간 자본주의경제를 갈부레이스교수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케인즈에 의하면 인류의 필요에는 절대적인 욕망과 상대적인 욕망, 즉 그것에 만족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또는 다른 사람보다 위대해 졌다고 느꼈으므로 만족하는 욕망에는 끝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경제 문제의 밖에 두고 생각한다면 대전쟁이나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없는 한 경제 문제는 불원 인류에 있어서 벌써 영구한 문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일세기전에는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향수할 수 없었던 향락이며 편의를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소유물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이 특량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소유물을 가지려고 한다. 가령 자동차의 소유자가 많아지면 자동차의 수요가 늘고 생산의 증대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욕망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어떠한 종류이며, 광고나 소매업자에 의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처럼 상대적 욕망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때문인지, 생산은 문명의 척도로서 생산에 항상 우위를 두는 비합리적인 경제학의 전통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때문에 하잘 것 없는 생산에 자랑을 가지고 중요한 문화적 써비스의 생산, 이를테면 교육 등을 경시하고 있다. 또 민간생산은 중요시하지마는 공공의 써비스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자동차의 생산은 필요하지마는 도로는 크게 필요치 않다는 생각 따위다. 민간생산에만 우위를 두는 종래의 경제학은 풍요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할 문제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원래 오늘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과 그리고 불안정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빈곤은 없어졌다. 불평등에 대해서도 그 양상이 달라졌다. 미국에서는 1928년에는 소득이 최고의 1%의 개인가처분소득은 전소득의 19%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1946년에는 8%약(弱)이 되었다. 특히 전쟁과 전후의 시기에 대중 층의 소득이 급격히 향상하였다. 1941년에서 50년에 걸쳐 소득의 최저의 5분지1의 세대의 소득은 42%증가하였다. 그리고 부유층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최근 현저히 변화하여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감퇴되었다. 돈 많은 사람을 이러니 저러니 흠 뜯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누구나 그사람을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불안정에 대해서도 그 사태는 달라져 가고 있다. 기업은 황적연결에 의해서 경제경쟁의 불안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관세인상, 수입할당제 등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근대법인의 발전에 따라서 리스크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또 대기업은 선전에 의해서 자기를 방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와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유지제도가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데 그 기능을 거의 발휘 하고있다. 이제야 지금까지 경제학이 대상으로 삼아왔던 빈곤과 불평등과 그리고 불안정의 자본주의 경제는 바야흐로 새로운 「풍요한 사회」의 신단계로 크게 대전환을 함으로써 전체자유세계의 공전의 변명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장세원 역)

자본주의의 공황을 극복하고 번영에
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J · K · 갈부레이스



맑스 경제이론은 제2차 대전 후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입증하는 실증에 의하여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맑스공황론은 그 이론에 의한 예측이 거의 무시되다시피 되어 파국에 이르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새로운 특징은 그것이 이론화됨으로써 맑스 경제이론을 전복해 가고있다.

최근, 맑스경제학 진영에서는 그들의 경제이론을 재검토하자는 이론이 대두하고 있다. 맑스주의 신봉자들이 이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실로 놀라운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적어도 제2차 대전후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경제변동 과정에 대한 그들의 맑스경제이론적 예측이 거의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어 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공황분석은 효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맑스경제학자의 경기분석은 구태의연하여 공황에로의 필지「선고」만을 되풀이뿐 현실로부터 현저하게 유리되어 있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1953·4년의 경기후퇴 때에는 거의 전부의 유력한 맑스경제학자들이 1929·33년형의 「고전적」인 순환성 공황(주기적, 전반적, 과잉생산공황)을 예상하여 실패하였고 1957·8년의 경기후퇴때에도 일부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맑스 경제한 진영에서는 전후 최초의 격렬하고 전반적인 순환성 공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가 이 또한 실패하고 말았다.

한국휴전 이후의 자본주의 경제의 변명을 기원으로 맑스 경제학 진영에서도 이때까지의 「만년공황론」에 대한 반성이 과연 어느 정도로 맑스 공황론을 전진시켰는가에 대한 점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를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래서 최초로 전후 현재까지의 경기후퇴를 예측함에 있어서 많은 맑스경제학자가 범한 예측의 과오가 무엇에서 유래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자.

그 이유의 첫째로 제2차 대전후의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새로운 특징이 충분히 이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특징이 맑스경제학자에 의하여 해명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 특징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아니며 그 특징이 공황이론속에 체계적으로 지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 자본주의론」의 태마로써 많이 논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성과가 이론적으로 살아있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공황의 「원리론」과 전후 자본주의경제의 현실분석과를 연결하는 「중간항」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론」은 19세기적인 자유경쟁단계로서의 자본의 운동법칙을 해명함으로써 「완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편 「현상분석」에서는 자료의 수집이 새로운 경제적 현실의 특징을 열거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후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공황분석을 경제의 군사화와 경기순환과의 관련이며 전후

순환의 기점 또는 국면규정 같은 중요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이론 그 자체는 고전적인 자유경쟁적 산업자본주의의 단계의 이론이기 때문에 현상분석의 결과로서 도출된 예측은 대개의 경우 「격렬한」 전반적, 과잉생산 공황이라는 방향으로 기울어 졌던 것이다.

둘째의 이유는 1929·33년형의 세계공황 내지 만성적 불황이 제2차 대전후의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순환성 공황의 원형인양 생각한 탓이다. 그래서 전후 맑스주의 공황분석에 있어서는 1920년 대전반의 「상대적 안정기」에서와 같은 자본주의경제의 번영이 1929년 공황에서 일거에 와해된 과거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제2차대전후(특히 1950년대의)자본주의 경제의 번영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경기 후퇴의 징조가 보이자 곧 이것이 1929년형의 「고전적」인 순환성 공황의 시작이 아닌가고 속단한 것이다. 분명 1920년대와 1950년대의 경기순환의 국면에 있어 비슷한 성격이 없지도 않으며 「역사는 결코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다」라는 법칙을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1950년대의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이 1920년대의 그것과 약간의 중요한 점에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면 1950년의 말기나 1960년대의 초기에는 1929년형 공황의 도래를 예측한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아 이 두 시기의 자본주의 경제에는 철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국면에 있어서 유사성 만을 과도히 강조한다는 것은 그러한 관점부터가 과학적 과오를 범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셋째의 이유로서는 공황의 주기에 관한 판단이 경직적 고정적이 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평균 10년의 주기를 표자규정으로 생각하고 제2차 대전후의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기에도 이것을 적용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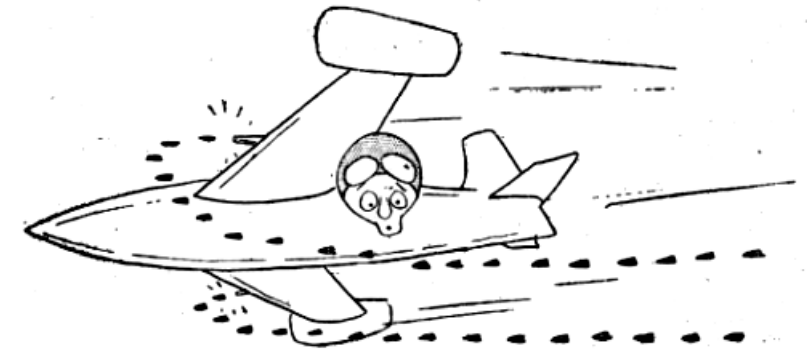
그래서 가령 1948·9년의 경기후퇴를 가지고 제2차 대전후의 순환주기의 시점이라 보는(맑스 경제학진영) 방법을 채용한다면 1958년경에는 주기적 과잉생산 공황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며 1957·8년의 경기후퇴가 많은 맑스 경제학자에 의하여 「격발적」인 순환성 공황으로 예측된 하나의 논거는 이같은 10년주기의 고정적 적용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같은 고정적인 주기의 적용은 기계론적인 생각이며 과학적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넷째의 이유는 스탈린비판(1956년) 이후에 나타난 특징적인 사태인 것으로 그때 까지의 공식논적 분석(가령, 경제의 군사화 → 번영으로 보이는 번영의 모순의 격화, 한층 더한 공황등의 추론)에 대한 맑스 경제학 진영내부에 있어서의 반성의 결과 제법 현실에 부합되는 이론이 생겨난 반면에는 반대로 경제군사화의 의의를 거의 무시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내발적인 성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항구번영론」에 가까운 견해도 나오게 되어 일종 혼란상태가 발생하였다. 이때문에 맑스 공황론은 파산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섯째로 맑스 경제학의 연구대상의 설정 및 그 연구방법이 자본주의 경제가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변모하던 그것이 자본주의인 이상 그것의 「본질적인 생산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은 불변인 것이다. 때문에 현상형태의 변화여하에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기본의 법칙은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 이같은 생각에는 분명히 일면의 진리는 있으나 본질분석만으로 전부가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기본모순만을 지적한다면 공황의 필연성도 논의될 것이며 그 이상 깊이 들어가는 분석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공황은 불가피하다라는 추상적 명제를 단순히 반복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시기의 공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서 나타날 것이며 언제 일어나서 어느 부문에 가장 심각해지는 것인가? 그 심각성은 어떠한 성질의 것이며 「실업」 「임금절하」와 같은 것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타격의 정도며 노동자계급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시작이 필요할 것인가? - 이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는데에 공황론은 그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제2차 대전후 맑스 경제학 진영은 자본주의가 그 자체 내포하고 있는 모순(공황)을 그것을 거듭할때 세계는 혁명할 것이라는 예측은 그들 의 예견을 완전히 전복하여 적어도 세번이나(1945·8년)(1952년·56년)(1957·59년)공황을 물리치고 보다 나은 번영을 구축하였다.

(박병일 역)

속력을 너무 났나보다
총알이 뒤로 가다니
고 두 현



건군14주년
국군의 날 기념

방송씨나리오현상모집

1. 내 용 다음 사항중 1개 또는 2개 이상을 포함하는 건설적인 것.

가. 반공이념 고취

나. 국방사상 앙양

다. 국민단합에 의한 혁명과업 완수의 촉구

2. 원고 분량 매회 20분 24회 내외

3. 제출처 및 제출기간

가. 제출처..... 국방부 정훈국

나. 제출기간..... 8월 7일·8월 16일(10일간)

4. 현상금

가. 당선작 1편 10만원

나. 가작 1편 3만원

5. 심 사 사계권위자에게 위촉

6. 당선작 발표

9월10일 「한국일보」 석간 및 HLKA 국군의 시간을 통하여

7. 방송

당선작은 10월1일 국군의 날을 전후하여 HLKA 국군의 시간에 방송예정

8. 기타

가. 원고제출시는 반듯이 등기우편을 이용할 것

나. 포장표면에는 주서로 「현상원고」라 기재할 것

다. 작품서두에는 2백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줄거리를 첨부할 것

라. 당선작 및 가작 판권은 당부에서 1963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며 그 이후는 작자에 귀속함

(1962년 7월 3일·국방부 정훈국장)

천왕리(天旺里)는 고독 하지않다

냉소의 땅에 부흥을 심어

공군대위 최광일



(최광일대위)

서울서 멀지 않는 소사읍 천왕 리는 우리 농촌의 전형적인 빈곤과 미개와 지방색이 농후한 약70호 가량의 마을이다. 동남향방으로 관악산을 바라보며 3면은 높이 약 150미터의 야산으로 둘러싸인 황토질의 전답반반의 백정도의 넓이를 가진 부락이다. 이조시대에는 이곳 약물터 근처에 천왕사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오류동(오류골)」 참외의 본산지인 바로 그곳이다.

나는 영등포의 작은 집 한 채를 팔아서 그 자금으로 20년 전에 천왕리에 밭 1,200평을 마련하고 붉은 진흙 밭 위에 『흙벽돌』로 초가삼간을 지었다. 10일간의 휴가를 얻어 자수로 가죽끼리 만든 집이라 비가 오면 천정에서 다시 굵은 물방울로 변하여 방바닥 물바다를 만들곤 하였다. 동리사람들과 친구간에는 냉소와 동정을 같이 보내 주었다.

나는 밭에 포도를 심었다. 그리고 주위환경을 미화하고 꽃을 심었다. 그리고는 부락민들과 벼를 삼으며 부락발전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북에 고향을둔 월남피난민신세로서 이곳에다 제2의 고향을 만들 생각으로 농부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부락발전과 나 개인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본래 농촌출신이라 못하는 농사일이 없이 무슨 일이든지 농부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며 또한 나의 야간대학 전공과정이 농촌경제방면이었으므로 이론적으로도 그들을 지도할 수가있었다.

우선 부락유지 어른들과 부락에 청년회를 조직할 것을 결심하고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이 버려졌던 땅들이 이제 주인을 만나 속속 옥토로 변해가고 있다.

-사진은 천왕 리 마을의 포도밭-



광명청년회라 이름을 붙이고 어둡고 미개한 부락에 밝은 빛을 밝히기로 서로 다짐을 하였다.

처음에는 『군인녀석이 쓸데없이 젊은 기분에 날뛰다』는 뒷공론도 수차 들리었다.

그러나 나는 굳은 신념이 있었다. 마치 『서부의 개척자』의 심정이랄까 후퇴하지 않고 전진만을 거듭했다. 이 렇게 1년을 지냈다 5·16군사혁명이 있는 후에 혁명정부는 중농정책을 공약했으며 착착 그 정책이 실천으로 옮겨지자 부락민들은 내 주위에 스스로 모여 들기 시작했다. 권고하기 전에 자진해서 무엇이랴도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며 적극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좋은 기회였다. 우선 부락발전을 위하여서는 상호협동정신을 살려야 하며 공동이 이익은 곧 각 개인의 이익이 된다는 극히 상식적인 진리로부터 나의 설교는 시작하여 협동 조합론과 낙농육축농가 육성으로 제한된 농작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어야 하며 농한기에도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시야를 넓히어 선진농가의 부유한 현실은 꿈만은 아니며 우리도 노력하는 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못사는 농민』이라는 고유의 오명은 능히 벗어 버릴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 넣었다.

그 후에 나는 한국지역 사회개발협회를 찾아 갔다. 그리고 나의 계획을 장황히 설명했다. 얼마 후에 협회원이 되었으며 부락의 일원으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이미 그 계획에 의하여 5개년 개발계획이 착수되고 또한 시범부락으로 선정되어 협회의 물적 기술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없는 돈을 모아서 17평의 공회당을 짓고 내부장식에 분주하다. 그리고 농촌 문화협회를 찾아가서 천왕리에 농촌 문고를 설치해주시기를 요구하여 농촌문고가 설치되었으며 나도 약 100권의 책을 기증했다. 부락민은 책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어려운 문장을 서로 가르쳐 받으며 열심히 독서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회의를 열고 부락발전계획을 세워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 착수해 가기로 했다. 지금은 내가 근무로 바빠서 참석치 못해도 자기들끼리 제법 회의를 진행하며 토론토 전개하고 있다.

나는 70호 가구를 7개 구역으로 다시 나누고 7명의 평의원을 선출하고 그 평의원은 10개 가구를 대표하여 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7개구 역을 월화수목금토일로 각각 이름을 부치여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연구부를 두었는데 재래식영농방법에서 현대적 과학적방법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적과 기타 전문가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며 각 모범농장에 클럽별로 견학을 한다. 양어패부, 양우양돈부, 원예부, 양계부 그리고 특종재배부의 다섯개의 전문부에 전부락민은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인지는 모르되 우선 한 가지 큰 업적은 정신혁명이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하나 둘씩 팔아 먹으면서도 급속히 상승하는 유행과 소비성의 향상은 이들도 열외는 아니어서 멋진 구두와 양복 그리고 권련을 띄워 물고 농사때에도 젊은이들이 빈들거리며 배회하고 다니는 1년 전과는 다르다 1년간에 3분지 2이상이 노는 날이다.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그들의 생활이다. 험구잡담과 노름 그리고 술로 세월을 보내며 이것을 최대의 희락으로 삼고 있다. 겨울이 지나기도 전에 벌써 절량농가의 신세가 되고 여름에는 보리밭도 못먹으면서 고된 농사일을 해야 한다. 리동에서 하는 일은 그들에게 관계없는 일이며, 관계하려하지도 않았다. 아획들은 제멋대로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돌아다닌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 부락에 「어린이 집」이 마련되어 노래와 유희를 가르치고 유아의 영양과 건강에 유의하여 규칙있는 생활을 하도록 된다. 풍금이 협회에 의하여 준비될 것이며 어린이를 위한 봉사자가 자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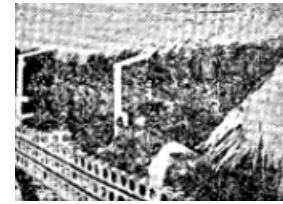
— ★ —

나는 전에 없던 자부심을 가져본다. 10년간의 군대생활을 해온 나로서는 사회의 미성년자이며 한편 낙후자와 같은 느낌도 가져본 일이 없지 않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닌 것이며 장기복무자의 공통된 심리이리라. 그러나 군대생활을 통하여서 얻은 바 적지 않음을 알았다. 군대에서 작성하는 참모건의서는 꽤 좋은 계획방법이다. 자기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하고 과학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여 건의사항을 인정받는데에 이이상 좋은 행정기술은 없다고 본다. 협회에 상신된 모든 계획서는 이 참모건의형식으로 작성되어 크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행정서류는 물론 조직방법도 군대식이 가장 훌륭한 기본형으로 생각된다. 익숙한 나의 군대식 편성방법은 타부락에도 많이 채택되었다. 실천적, 과학적인 사고방법 그리고 시간관념과 철저한 책임감등은 군대에서 배운 귀한 보배다. 그리하여 못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바는 바로 이러한 요건에서다.

나는 여기서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야간대학을 취학하던 당시에도 학생운동과 기타단체생활을 여러 번 지도해보기도 했는데 그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칭찬을 받았으며 모회사의 사장임도 같이 취학의 친구였는데 회사의 사원도 군대에서 양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의 실천력을 은근히 칭찬해주었다.

우리는 군의 임무를 십분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군의 임무를 철저히 완수하는 사람은 그 여가를 이용하여 다시 사회의 모범청년도 될수 있다. 물론 특수군무자로서는 여러가지 환경이 허락지 않겠지만 자아수신과 주의의 모범인이란 어느 경우이고 가능하다. 방법과 형식은 다를 지라도 자신의 긴 장래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으로 훌륭한 인격과 성공을 약속할 수 있다는 소신을 얻었다. 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로의 전이란 우리 청년의 제2의인간형성의 중요한 전기이리라. 과거 무수히 볼수 있었던 사회악의 조성은 제대군인에 의하여 일어났다. 자기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자기 행위에도 변명할 여지는 있었으리라. 건전한 인간이 있고 훌륭한 군인이 있을 것이고 훌륭한 군인은 사회가 따듯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군대생활을 통한 여가를 선용하여 장래의 행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물질 준비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신적 준비가 더욱 필요한 무장이다.

전우간에는 군인 됄을 사회의 낙후자 또는 비굴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주저 없이 버려도 좋다. 우리는 특수사회에서 특수 인간교육을 받았다. 확고한 심적수양과 각오가 필요하다. 『돈』만 가지면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재력이란 자기욕망을 채우는데 필요한 매개물에 불과하며 결정적으로 자기 행복을 의식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며 정신이다. 타인이 아니며 자기이다. 우리는 지성인이다.



훌륭한 인간교육도 받았다.

혁명정부에서는 제대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막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금과 사업자금의 대부 등 적지않은 액의 자본을 우리는 미래에 약속받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 얼마간 있다고 해서 곧 모든 사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의 어느 개척자가 산골촌락을 지날 때 그는 돌연 막대한 액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그 부락어린들이 작은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공기들은 바로 다이아몬드였던 것이다. 그 개척자는 많은 돈을 주고 그 돌을 바꾸어 가지고 돌아갔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돌이 아주 귀한 보물임이 확인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이 평범한 예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일감이 널려있으며 생활자원이 무진장으로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방법은 거의 원시인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은 한 평의 땅에서 연간 천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농촌에는 거의 이에 비하여 그대로 묵히는 셈이 된다. 어느 외국인은 우리의 산야를 보고 한국에는 일감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못사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며 우리는 깊이 각성할 때는 왔다. 우리의 산야는 모두가 옥토이다. 우리나라의 인삼과 벌꿀은 세계에서 가장 그 성분이 좋다고 하는데 그 토질이 특수하여 그렇다고 하며 최근 서독에서 각국의 벌꿀을 분석했는데 한국 산이 가장 그 성분이 좋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특수한 토질에서 성장하는 화초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천왕리 부락에는 포도를 심어 놓기만 하면 4년 후에는 보기도 소담송이게 포도송이가 주렁 주렁 달린다. 그리고 그 황토질에는 모든 열매가 달다. 황토성분에 의하여 열매가 꿀과 같이 달게 된다. 그래서 서울 장안에서도 요류풀 참외 하면 침 부터 삼키었던 가 보다.

— ★ —

나는 천왕리에 제2의 고향을 택하게 된 동기와 현재계획중인 영농부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말을 끝맺으려 한다. 하루 종일의 딱딱한 업무로부터 풀리어 거리의 화려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차한잔이라도 나누며 환담하거나 영화 감상하는 것도 없어서는 안될것이나, 우리는 대부분의 생활을 인간과 접촉하며 눈과 눈의 대결로 신경을 써야하거나 매일 똑같은 행정양식의 종이 위에 정력을 다하여 펜촉을 움직여야 한다. 근무후와 공휴일에는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 되풀이되는 일을 피하여 자연의 품속을 찾아 시의 조용한 들과 산으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소풍을 즐긴다. 나는 이러한 환경을 내집에다 실현하고 싶었다. 내가 택한 천왕리는 족히 이러한 환경을 부여해 주며 집주위는 천연적공원이나 다름없이 잔디풀과 아담한 소나무 물오리나무 그리고 밤나무가 옥여와져 있다. 또한 싱싱한 각종 채소부식물이 나온다. 포도, 참외, 수박, 밤·고구마등 여러가지의 실과가 생산된다, 몇 발걸음 나가면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맛있는 안주감도 만들수 있다. 작년에도 토요일이면 친구들과 고기잡이로 한철을 즐겼다. 나의 영농계획은 처음 단계에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제법 포도원 원장이며 그곳의 수입으로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된다.

돈이 되는 꽃

농촌의 부업으로서 꽃 가꾸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서 꽃을 가꿀 겨를이 있겠는가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노는 여가와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부수입을 볼 수 있다면(사실 볼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일급도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꽃을 수입하고 있다. 이만큼 꽃이 곧 돈이라는 것이다. 일본이나 화란같은 나라는 꽃을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의 수요량은 자족되어야 하겠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형편으로 꽃까지 외국에서 사 들인다는 것은 가까운 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들에 흔하게 피어있는 산나리(산백합)는 그것을 밭에다가 심어서 잘 가꾸면 도시에서는 훌륭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것을 인조재배하여 외국으로 막대한 랑을 수출하고 있다. 또 제주도에는 풍란이란 좋은 야생화가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그것을 모두 채취해 갔다는 말도 있다. 어쨌든 이 방면에 다소 머리를 쓰면 농촌의 좋은 부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산소련의 죄악과 그들의 생활주변

김 청 범



소련이 공산주의제도로써 4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건만 오늘에 이르러서도 아직 소비자의 욕구와 주문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과연 오늘의 소련이 있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일삼아 왔는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유를 들면 첫째 모든 생산이란 군비확장을 위한 전쟁도발행위에만 광분한것과 다음에는 지난날 「나치」독일에 게 황폐화한 광광한 지역과 생산시설의 복구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말엽이래 도대체 소비물자가 112%나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장막속에서 볼 수 있는 상가의 소매점의 진열장에는 약간의 사치품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물품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즉, 생산품 공급이 아주 적고 값이 고가한 데다가 품질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열등한 것이어서 아무리 고가의 상품일지라도 미국의 최저가격에 해당하는 물품보다도 초라하기 짝이없다.

공산당은 인민대중의 구매욕을 감퇴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고가로 소비자에게 내놓은 것이고 보면 공급은 심히 부족한 상태라 한다.

물론, 소련에 있어 상가에 미국과 같이 채봉틀, 전기세탁기 전기소제기 전기냉장고 같은것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가정에서 구득하기에는 너무나 곤란한 처지에 있으며 일반수요층에 혜택이란 바랄 수 없을 정도이고 전기공기조절기나 전기선풍기같은 것도 일반가정같은데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간혹 공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도라 한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자동차같은 것도 생산하고 있으나 거의 일반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먼것이 되어있고 다만 공산당기관의 공동집합처나 당간부 정부 고급간부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고가이고 보면 일반수요자의 소비생활이란 그 얼마나 비참한 국민경제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가가 짐작이 가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자동차소유율을 본다면 3·4인당 1대인데 비하여 소련에서는 인구백명에 1대의 자동차 할당도 예측키 곤란하다.

소련인들은 유물론적 제도하에서 장기간육성되어 왔으며 어린 시절부터 물자적 필요성과 그것을 충족시켜 주리라는 약속을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귀가 달토록 들어 왔으나 아직껏 민간수요에 대한 충족이란 「사기」를 당하여 온 셈 밖에 안된다.

이밖에도 너무나 엄청난 소련에서의 일반의 소비생활이란 미국의 현재생활수준에 비해 본다면 너무나 참혹하고 보잘것 없으며 다만 공산당의 욕구 충족에만 강요당하고 있을 뿐 이다.

다음은 가소로운 사실로서 소련의 주택문제를 들어 본다면 수도인 「모스크바」의 변두리나 가두의 뒷골목은 대부분이 빈민굴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로변은 번지르하게 고층건물이 좀 있으나 이것도 한낱 빗줄은 개살구 모양이다.

물론 공산당국은 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계획을 내 세우고 있으나 앞으로 20·30년 이상걸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공장관계를 보건데 소련공장의 관리인이나 기사들은 각기의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는 사실은 모든 생산계획이란 어떤것에 기준하고 있는가가 짐작이 가는 것이며 반드시 공장의 생산계획은 상부로부터의 승인과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소련은 과학부문에 있어서 뒤떨어진 기술 분야만 연구과제를 시험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항상 이러한 공산당이나 당정부기관의 승인과 통제를 받음으로 해서 개인의 창의력 신장은 한낱 당노선의 충실을 위한 것으로 그치게 하고 있다.

기계의 설계변경, 공장설치전환, 작업순차, 신실험설비, 노무인원 결정 등 사사건건이 모두 공장지배인이 나 관리인의 자유아량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당의 지시에 의해 움직여질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련의 공장의 대부분은 일반인민의 출혈과 무수한 희생으로서 강제로 건설된 것이라는 것을

소련은 자유인민의 소비생활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세계적화의 야망을 꿈꾸고 있다.

이제 소련국내의 생활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죄악과 허위선전의 이면등을 해부함으로써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는 인류의 양심앞에 사실 그대로의 <소련>을 밝혀보고자 한다.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군인

제주도에서 본 소련

석 주 선

나는 직업적인 관계인지는 모르나 별로 군인과의 접촉이 없었고 고작 안대야 내 주변의 친지들의 자제들 정도로 불과 몇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긴 접촉이란 물론 있을 리 없고 때때로 만나는 정도이다. 나는 군인이라면 먼저 마음이 깨끗하고 소박하고 또한 단순한 줄로만 생각해 왔다. 아니 그렇게만 믿고 싶은 심정은 비단 나 뿐만이 아니리라고 생각 된다.

해방후 우리는 6·25를 겪고 고생의 비중은 다르겠으나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은 사람들이다. 혹은 남으로 피란을, 혹은 의지할 곳 없어 서울에서 백성 전체가 죽을 고생을 다 같이해왔다. 우리들이 난리를 격기 전에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뉴스에서 외국사람들이 남부여대로 피란 가는 것을 통해 이따금 볼 수가 있었다. 우리들이 그 비참한 모양을 직접 체험 했으니 그때의 고통스러웠던 그 심정은 일생을 두고 산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의 고생을 우리들이 살아나가는데 반영시켜 어떤 일이 부닥쳐도 6·25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강한 정신에서 어떠한 고생이라도 이겨 나갈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다.

사람이란 언제나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른다는 것이 우둔한 인간의 소행이라고 본다. 인간이 살아 나가는데 잘 먹고 싶은 것도 하나의 허영이요, 잘입고 싶은 것도 허영이요, 자기에 맞지 않는 영달을 꿈꾸는 것도 일종의 허영이요, 남 보다 잘 살아 보겠다는 것도 또한 허영의 하나이다. 여기서 욕망이 생기고 그럴듯하게 허위를 행하고 이것을 거둬하는 동안에는 마음 속에 괴로운 그림자가 희미해지고 의리를 잊게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두드러지고 싶어서 남을 중상하고, 행 하는 하나 하나의 허영의 씨, 아니 악의 씨는 맹렬하게 팽창되고 그 뒤에 남는 값없는 고기 덩어리만 움직이게 된다. 결국 허영이라는 두자에서 발산하는 독소는 능동적인 몇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을 한없이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참다못해 4·19를 끌어 왔고 꽃이 피어도 보지 못한 채 수많은 꽃들이 목숨을 초개같이 던지고 우리 강토를 다시 찾았던 것이다. 이것이 얼마 아니 가서 다시 5·16혁명을 맞이 했다. 필자는 어떤 소극적인 면에서 인지 모르나 언제나 마음 속에 이번에는 잘 되야하겠는데 하는 염원에서 자기 말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있다.

정부에서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백성만이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과 백성이 손을 잡고 거족적으로 단결 해야만 우리나라는 하루 빨리 복지국가도 될 수 있고 국민안도 차치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작년 7월에 재건 본부의 일로 두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갔던 일이 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니 만큼 모든 생활이 메마르고 문화면에서도 많이 뒤떨어진 감을 느낄 수 있었다. 45일을 묵으면서 제주도 일원을 한 바퀴 돌았다. 학생을 상대로 또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수 많은 사람을 대해 보았다. 남한에서 유명하다는 주정공장도 견학 하였고 제주도 명물이 굴(밀감) 밭도, 어촌도 도라 보았으나 굴 밭만 종전대로 겨우 유지하는 상태이고 다른 분야는 태반이 부진상태에 놓여 있었다. 어촌이니 만큼 활발해야 할 처지인데 이것 역시 냉장고의 미비로 말미암아 어민들이 불안한 생활

충분히 알수 있으며 최저자금으로 간신히 다만 연명할 수 있는 저열한 생활수준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즉, 소련의 오늘날의 공장이 건설된 이면에는 자유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강제 노예노동이 있으며 노동수용소나 공장에서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제노동수용소는 부지기수로 전소련내에 산재하고 있어, 선량한 인민까지도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련의 공장생산부문은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며 혹독한 추악사가 언제가 멀지 않은 장래에는 세상에 밝혀 지리라고 믿어진다. 또한 그러한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 틀림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소련이 농업부문을 들여다 보면 소련농민은 「스타린」이 농장을 집단화한 이래 공장노동자와 같이 「크레믈린」, 정책과 「모스크바」 공산당 조종에 의해서 다만 기계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소련의 농민은 개개인의 창의와 자유에 대한 진가를 맛보지 못하고 강요당하여 농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소련농민은 미국의 농민과 달리 자기소유의 채원, 농장, 가축을 갖일 수 없기 때문에 하등의 농업생산에 대한 의욕이 부풀어오르기란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미국의 농민들과 같이 생산을 위한 열의는 농업생산기업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핍되어 있다.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이 그 모양이니 다른면은 말할 여지도 없는 내핍 생활들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필자는 하나의 인간을 발견 하였다. 제주 시에서 모경비대를 전학 갔었는데 안소령이라는 분이 영내를 안내 해주어 군인 생활의 편모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안소령이 하고 있는 거룩한 사업의 일부분을 청취했다. 내용인즉 이러하다. 안소령은 본래 이북 사람으로 혈혈단신으로 1·4후퇴때 남하 하여 군에 입대한 분으로 처음 뵈기에 대단히 공손하고 진실 그대로의 인간이 었다. 지금까지 독신으로 경비대에 있으면서 그 마을에 국민학교만 겨우 나오고 진학 못하는 학생들을 3,40명 저녁이면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이다. 여기 모이는 애들이야 말로 내핍 생활에 시달려 헐벗고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이라고 한다. 여기 글을 배운다는 것은 이 애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이러한 불상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매일 저녁 근무 시간 여가를 이용하여 글을 가르친

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다른곳의 경제 뒷받침이 있는 것도 아니오, 본인이 경제가 넉넉한 것도 아니다. 책은 물론 없고 노오트, 연필도 불과 몇천원에 지나지 안 건만 이것 역시 아무 원조 하나 없이 본인의 빈약한 주머니를 털어 해결한다는 것이다.

제일에 책이 없어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고충도 말해 주었다. 안소령의 소망은 어디까지나 거룩 하였다. 될 수만 있으면 짧은 시간이나마 배운 것을 밀천으로 될 수 있게끔 일인일기식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심정이었다. 경제의 뒷받침 없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러한 사회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누구나 다 못하는 일이다. 남단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한 벽촌에서 이러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안소령을 뵈었을 때 마치 그옥한 산속에서 피어난 한송이의 백합같이 참다운 인간의 향내를 맛볼 수 있었고 누구나 느낄 수 없는 이 호뭇한 감정을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싶었다.

안소령을 뵈 온 순간 첫인상이 말이 없는 키가 비교적 작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보기에도 독실한 청년이었다.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난 고독한 청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소령이야 말로 가장 행복하고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인간이 아닐까. 안소령같은 인간이 좀더 많았던들 이렇게까지 수 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으면서 몇 차례의 혁명을 거듭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을 참으로 유감 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 많은 학도들의 피로 찾은 4·19도 호지부지 일 년도 못가서 5·16혁명을 맞이하였다.

5·16혁명이야 말로 마지막 혁명이라 하겠고 온 겨레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제 앞에 올 것은 죽음의 길밖에 남은 것이 없다.

바로 이러한 생산의욕의 결핍은 소련의 농업제도의 최대약점인 동시에 집단농장제의 앞날에 생산고조라는 것은 기대할 때가 못되며 농민의 이에 대한 불평불만은 언젠가는 표면화 할 것이 틀림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면 소련의 농업실태를 잠간 들여다 본다면 우선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두 농장은 모두가 굉장한 규모인 것이기는 하다. 대략 집단농장은 2천~7만오천「에이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영농장은 이보다 더욱 넓은 토지로서 5만~약8만「에이카」에 달하고 있으나 국가는 생산과 수급수단의 모든것은 통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농민들의 개인소유권이란 하나도 부여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관리인 역시 「크레프린」에서 임명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국영농장의 생산품은 국가가 매수할 필요도 없이 국유로 되어 버리는 것이며 집단농장은 그 농장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한 생산계획에서 운영하며 소련의 모든 농장은 국가의 감사기관의 예리한 감시로서 각 농장마다 공산당세포가 잠입하고 있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출혈을 당하고 있을 뿐이지 개인생활의 욕구충족이란 생각조차 못한다.

또한 「크레프린」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집단농장보다 국영농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집단농장보다 노동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소련은 소위 농장의 기계화를 과장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5·16혁명에 과거의 썩어빠진 허영과 사치를 구축했고 국내의 각 방면의 생산공장의 생산량을 뚜렷하게 올리고 있다. 과거의 무질서하였던 교통도 자리가 잡혔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만큼 질서정연 하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향토자매결연문제 이외에도 향토개발문제 등 일년 동안에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를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시원했던 제일 큰 일은 강패 소탕, 이것이야 말로 우리 백성으로서 누구하나 기뻐하지 않는 이 없으리라. 나라가 부패해 갈 수록 강패는 날로 번성해 갔고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5·16혁명과 더불어 인간개조를 모토로 강패소탕, 부정축재등 인간 도의면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체 벌칙으로써 처단하게 되니 과연 인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별의 신성함을 다시금 생각하여 보았다. 과거에는 돈으로 죄를 살수도 있었고 돈으로 죄를 팔수도 있었다. 엄연히 나쁜 사람인줄 알면서도 돈이 무서웠고 권세가 무서웠던 것이다.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았고 억울한 위치에서 돈도 권세도 없었기 때문에 면할 길이 없었다.

5·16혁명은 백성들을 불안속에서 건져주었다. 이제는 돈도 권세도 빼도 필요 없다. 인간 하나만이 진실하면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다. 5·16혁명이 되었다고 해서 백성들이 갑자기 전부 선량하여진 것은 아니다. 인간 개조라고 하여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5·16혁명 후 우리 백성들을 지도해야만 할 입장에 섰던 고급 정치인들, 군인들, 매일같이 신문의 제일면에 명단이 보도되는데는 펍으나 마음이 괴로웠고 우리들의 실망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못 볼 것을 본 것 같은 불안하고 허탈한 마음, 누구를 믿을 것인가 몇백번이고 되씹어 보았다. 매일 아침 대문안에 들어 치는 신문을 펼 용기조차 잃어 버렸고 아침 저녁 보도되는 부정사건이 눈에 띄는 것이 역겨워 한때는 신문을 읽지 않은 때도 있다. 그만큼 머리가 괴로웠고 과거에 군인에 대한 깨끗한 인식을 더럽힌 것으로 원망스럽기도 했다.

필자는 이 원고를 쓰면서도 이 순간 저 제주도 벽촌에서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상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신파도 같은 안소령의 환영이 머리에 떠오른다. 고달플 때는 언제나 나의 앞길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안소령의 모습이야말로 마음속의 수호신이라고 하겠다.

5·16혁명 일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안 소령과 같은 성스러운 인물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기를 빌면서 멀리 안 소령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필자는 연륜과 더불어 참다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간다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하루의 일과를 유쾌하게 끝마친다.

1962년 5월 18일
(필자·동덕여자대학 부교수)

즉, 소련의 농장은 80%-90%이상의 모두가 기계화되었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미국의 현대기계화 된 농기구나 농업생산수단에 비해 볼 때 아직도 구식 기계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미국의 구식농기구의 다소의 개량 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말하자면 「트럭터」 「가르지매터」 건조저장기 「부르도저」 「소맥콘바인」 기타 약간의 자국제조농기구가 있지만은 대부분 1930년대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면 무기대여법으로 얻은 미제기구의 모조품 등이라 한다.

이것으로서 농장의 현대 기계화되었다는 과장선전도 역시 가소로운 사실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크레프린」이 이러한 소련내에서 일반인민의 소비생활이라든가 공장건설에 숨은 추악사가 또는 농장제도의 모순점이나 농업생산수단의 저열성은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선풍한 인민을 혹사하고 있는가를 감히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스타린」치하의 소련은 1인 독재의 아성을 이루었던 것이다. 오늘의 소련은 변모하여 집단독제로서 요리되어 오고있는 것이며, 새로운 「크레프린」의 주인공 「후르시쵸프」등, 「스타린」의 공포정책을 전환해서 새로운 전략을 꾸며 오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의 종래의 궁극적 목표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다만 실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으로 형태만을 바꿨을 뿐이다.

소련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지중해 중국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등지에 대하여 자기의 세력을 부식하려고 하거나 여러가지 형태로 자유서방측의 지위에 대립하여 자기세력 확장을 꾀하는 반면에 서방측의 약체화를 위한 전략이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소련은 자국내의 모든 생산은 일반인민의 소비생활 욕구를 충족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후진국, 미개발제국에 대한 경제원조라는 허울 좋은 미명으로 감싸고 숨긴 공산당의 야심적이고 침략적인 계획을 추진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밖에 군사원조라는 명목으로 후진미개발지는 물론 중립제국에 가급적 진출하여 전쟁물자를 배치 함으로서 정치적 정복과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소련의 음모는 나날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라 하겠다. 이것뿐이 아니라 무역으로서 또는 평화공존이란 징소(徵笑)외교로서 현금 「크레프린」은 이러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앞서 말한 일반의 소비생활 주변의 위협을 장막 속에 숨겨두고 있으면서 이를 세상 밖에는 과장 선전하여 「크레프린」의 정체를 은폐하고 나아가서는 평화애호를 가장하는 오늘의 소련공산당과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그 얼마나 흉악한 인류의 죄악사를 만들고 있는가를 잊어서는 안되겠으며 자유애호의 세계인민의 경각심을 바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또한 이 모든 인류사에 죄악의 씨를 뽑아 낼 시기가 오리라고 믿어진다.



군인의 아내와 머리 스타일

복혜숙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5만개로부터 8만개 사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던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한다. 창조의 신은 사람의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머리위에다가 5만 이상의 파수병을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겨울철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다. 옛날 삼손의 경우를 보면 머리카락 때문에 사람에게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네 여성들은 단발을 한 여성보다 머리가 긴 여성이 힘이 센 것을 흔히 본다. 물론 남자들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남자들 보다 강한 힘하나가 있다. 그건 밀어 던지는 힘이다. 밀어던지는 힘은 도저히 어떤 남자라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힘도 여성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주는 힘일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성미의 총본산이라고 생각한다 여자의 아름다운 것은 첫째, 얼굴을 여러가지 형태로 아름다움을 바꾸어 놓은 것은 머리카락의 역할이다.

또 사람의 성격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도 이 머리카락의 역할이다. 고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상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머리의 모양으로 되는 것이다. 나는 연기자로써 4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배역에 따라서 극중 인물을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우선 단골 미장원으로 간다. 미장원 매담의 말을 들어보면 머리모양이 150여 종류가 있다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머리에 대한 말이 길어지는지 나도 모르게 늘어 놓았으나 얼핏 말해서 여성의 머리는 그 여성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늘의 여성은 학생으로부터 호// 할머니까지 미장원 출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특히 여성들은 미장원 출입을 매일 하다시피 한다.

요사이 내가 미장원 출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히 군인의 아내되는 사람들이다. 남편은 군대에 가 있고 집에 홀로 쓸쓸히 남아 있어서 어린자식들을 키워가며 생활고와 싸워야만 하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내가 아는 범위의 여성들이 미장원에는 출근성적이 오히려 나보다도 우수한 편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이 나쁘다거나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군인의 아내로서 머리를 가다듬어도 어떠한 스타일의 것을 택하느냐에 달렸 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 같아서는 지나친 유행을 따르지 말고 자기 얼굴에 맞는 형 수수한 형 말하자면 머리형의 이름에는 폭포수 형도 있다. 공산명월 형, 단풍 형, 바람 형, 로켓 형, 국화 형, 파도 형, 근로 형, 한강 형, 고독 형, 애정 형, 이루 말할 수 없으리 만큼 복잡한 형들이 많은데 내가 아는 도시인 여성 중에는 자기 남편은 군대에 가 있는데 머리모양을 세록세록이 유행을 따라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게 생각이 들곤 한다. 나는 요새 방송국이니 텔레비니 촬영이니 무슨 회합이니 더구나 아세아영화제니해서 편안히 앉았을 시간여유조차 없으면서도 가끔 느껴지는 것은 첫째로 문화인으로서 문화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당국자들의 협조하는 속도있는 성과에 좋은 인상을 주고 컴컴하던 거리가 형광등으로 찬란한 거리를 만들어서 밤거리를 거닐때도 상쾌한 기분이어서 나도 젊었다라면 애인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걸 어 보고싶은 충격을 받는다.

로타리에 잔디 한포기와 빈틈없이 들어선 가로수를 볼 때 혁명정부에서 보람있는 실천에 감사를 느끼게 된다. 혁명정부는 젊은 군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다. 젊은 군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다. 젊은 군인들이 38선을 굳건히 막고 안으로 문화, 경제, 정치 할 것 없이 활약한 재건이 진행된다. 젊은 군인들은 조국의 흥망을 걸머지고 불철주야로 매진하는데 그들의 아내되는 젊은 여인들도 군인 아내답게 근로형의 머리로 단장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가정을 지키는데 충실하였으면 한다. 때로는 극장구경도 가야하고 친구들이 모이는 회석에도 가야 한다. 그러나, 머리를 단속하는데 맘보형이나 바람형 같은 산란한 것을 피하고 누가 보아도 군인의 아내답게 양전한 타일의 머리를 하고 출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항상 분장관계로 머리에 관심이 있는 것 만큼 남의 머리에도 관심이 가고 더욱, 군인들의 힘으로 새싹이 피고 새로운 과학과 예술의 꽃이 피려는 이때에 군인의 아내로서 새로운 인식에서 일상생활에 제일 눈에 띄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머리에 주의하기 바란다.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5만개라면 머리의 모양도 5만가지의 스타일이 생길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울리는 또는 자기 생활에 어울리는 머리에 주력하기 바란다.

(필자·대한배우협회회장)



군인과 말씨

최현배

군인은 총칼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군인도 여느 사람 한 가지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 그런데, 말과 글은 판 것이면서 같은 것이기도 하다. 말은 소리를 일으킨 공기 진동을 타고 퍼져서 맞편(대자(對者))의 귀청을 뚫드리어 그 청신경을 타고서 뇌에 전달되어 그 뜻이 이해되는 것이요, 글은 점과 줄의 짜임으로 된 글자로 나타나야, 맞편의 시신경을 자극하여 그를 타고서 뇌에 도달하여, 그 뜻이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고, 그 말미암은 길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제 스스로의 생각을 맞편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전달의 목적은 한 가지이다. 만약 크게 말해서 말이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나타내어 다른 이의 이해를 기대하는 수단이라 한다면, 글도 일종의 말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은 소리말이요, 손으로 하는 말은 글자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과 글이 한가지로 되어 무(武)에 대한 문(文)을 이룬다 하겠다.

현대의 전쟁은 국민 총력전이란 말이 있거니와, 그와 한 가지로, 오늘의 군인은 문을 겸하게 되었다. 오늘의 문인은 무를 겸하는 일은 거의 불필요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무인은 반드시 문을 겸해야만 전쟁의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다 하겠다. 8·15해방 직후 미군정청 그 중에도 학무국(문교부)에서 아침마다 군사 관련 신문(정식 인쇄물이 아닌)을 국장실 벽에 꼭차게 붙여 놓고서 직원들을 보게 하였다. 미군국장 라카아드 님이 그자리에서 말하기를, 미군은 종이로써 전쟁한다고. 그렇기도 하다고 생각했다. 군대 특히 전시의 군대에서는 정확 신속한 소식의 통달이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중에 나는 비행기가 지상과의 연락을 가지기 위하여, 무선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도 정확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무선전화 전신뿐 아니라 텔레타입, 타입우라이터, 같은 모든 기계가 어디보다도 긴요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글도 일종의 무기이다.

이와 같이, 오늘의 군인은 문을 요구한다. 여기에 군인과 말이란 문제는 한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실로 본무 수행을 위하여 극히 긴요 중대한 문제이라고 할 수가 있다. 8·15 직후 우리 한글 동지들은 함흥 감옥에서 풀려나와 서울로 돌아오자, 곧 한글 학회 회의를 열고, 한글 운동 재기를 의논하는 마당에, 갑자기 상해, 일본 등지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몰려들어와, 당장 필요한 군대용어의 제정을 청하였다. 우리는 회의를 중단하고서, 이에 응하여 「차려!, 우향우!」같은 말수를 토론 결정한 일이 있었다. 그 뒤에 군에서 총기를 한글학회로 가져와서 그 각 부분의 이름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있었다.

군대는 다수인을 현장에서 일제히 움직이는 일이 많은 이만큼, 그 용어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 반세기 동안이나 탄 겨레의 압박 밑에서 말과 글을 거의 잃어버릴 지경에서 지내오다가, 일조에 해방된 겨레가 그 나라 재건, 과학 재건, 교육 재건, 들에 있어서 그 무수한 용어의 제정의 필요가 기막히게 간절하였다. 문교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학과 용어 제정 사업에 아직 그 완성이 요원하여, 학문의 발달, 교육의 향상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군대 중에서도 공군에서는 특히 그 특유의 용어 제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이미 「항공 용어집」이 두 권이 발간되었으며, 그것이 완성되면 모두 8만 말수나 된다 한다. 군대에는 기계가 소중한 것처럼 말이 또한 소중한다. 기계를 배우고 부리는 데에는 손이 필요한 것과 같이, 말이 또한 필요하다. 말이 아니면 기계를 배울 수 없으며 또 부릴 수도 없다. 공군 뿐 아니라, 육군, 해군에도 각 부문에 관한 용어의 제정이 극히 필요한 일임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군대는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 특수 용어를 통일 제정함이 필요한 것은 앞에 말한 바와 같거니와, 일반의 말씨에 있어서도 군인의 말씨로서의 특히 요청되는 점이 적지 아니하다.

첫째, 표준말을 쓰는 능력이 요청된다.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각 지방의 사람, 그중에도 특히 산촌, 농촌, 어촌, 등 벽지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다. 우리 나라의 의무 교육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는 표준말(대중말)을 못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만약 표준말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 때문에 입는 손실이 매우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표준말과 한글을 통달하는 것은 대한 군인의 필수 조건이 아니면 안된다. 유능하고 우수한 군인은 그 위계의 상하를 물론하고 다 나라의 표준말을 잘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군대의 글자 말은 모두 한글로만 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이 완성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는 그 징집된 군인 중에는 한글조차도 깨치지 못한 사람이 간혹 없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군사에는 영중에서라도 한글을 가르쳐야 할 것은 물론이요, 또 군대의 일체의 글자 말은 모두 한글만으로 적어야 한다. 「한글만 쓰기」가 국군에서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음은 유능한 군대를 만들어 감에 매우 유조한 일이다. 위급한 지경에 빠진 한 배 나라가 5·16군사 혁명으로 건져진 바가 되어, 국민을 부패와 구악에서 해방하였고, 그 결과로, 나라가 생성되는 동시에, 국민은 그 생활 의지를 굳게하고 재건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나는 일찍 육군사관학교의 교육이 진정한 겨레의 양심을 회복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더니, 드디어 그 양성된 겨레 양심의 소유자인 청년 장교들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진 조국은 건져진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생각하노니, 밝은 슬기와 맑은 양심의 소유자인 군대지도자들이 「한글 전용」을 실시함으로써 군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을수록, 한글이라야 능히 이 조국을 건질 수 있을 것이란 신념으로써, 국민 전체를 한자의 속박에서 풀어놓아, 자유민 독립인이 되도록 할 것을 군인 집권자들에게 바라야 말지 않는다.

셋째, 군인의 말씨는 명료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이렇기 위하여는 군인의 정신부터 명확하여야 한다. 눈앞에 놓인 모든 사물에 대한 주도한 관찰과 정확한 판단을 가져야 한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를 표현하는 말씨도 똑똑하고 정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말을 똑똑히 하기 위하여는 그 말소리를 똑똑히 내는 버릇이 있어야 하며, 그 월(文)이 말본에 어긋남이 없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국민 교육을 베푸는 국민 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잘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제나라 말에 대한 비중이 약하여, 외국말보다도 오히려 시간수가 적은 형편이니, 이는 참 우스운, 자기멸시의, 낡은 관념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증거이다. 그리고, 국어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글자말만을 중시하고 소리말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남의 말을 듣기와 남의 글을 읽기에만 주력을 기울이고, 제 생각을 자유로이 정확히 발표하는 소리말과 글짓기는 등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결과스런 현상으로서, 라디오에서 듣는 방송 말씨가 종종 발음이 틀리고 말본에 맞잖음을 보잡게(발견, 간취)된다. 사생을 가르고, 승부를 좌우하는 군인의 말씨는 명료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군인의 말씨는 간명하여야 한다.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며, 제 생각을 똑바로 발표하며, 더구나 시간을 잡지 아니하고 빨리 하려면, 글이나 말이 간단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꾸밈말이 필요 없으며, 또 지저분한 군소리를 덧붙일 필요도 없다. 보기로

「그 일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와 같은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말(월)의 뜻은 무엇일까? 뜻 잡기에 따라서 「그 일이 그렇다」고도 되고, 「그 일이 그렇지 않다」고도 된다. 곧 「그렇지」에 힘주면 「그렇다」의 뜻이 되고, 「않을까」에 힘주면 「그렇지 않다」의 뜻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호한 월은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군인의 말이 될 것이다. 군인의 말씨는 간명 직통의 것이어야만 쓴다. 겸손의 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뒤집은 물음월」을 쓰거나 또는 이상스런 「뺑도는 표현」은 좋지 못하다. 보기로

그것은 그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리 아니 할 수밖에 없었다.

와 같은 월은 다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말이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설교자가

「안디옥으로 옮기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말의 내용으로써 생각한다면, 이 표현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었다. 그의 생각대로 하자면, 그중의 「밖」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었다. 세간에는 말을 잘한다는 사람의 연설에서도, 이러한 「밖」에 「아니하지 못한다」 「않을 수 없다」 따위를 그릇 쓰는 일이 혼함을 본다. 군인의 말씨로써는 이러한 표현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크게 유해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경어 문제도 한번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말에서는 경어쓰기가 배달말에서보다 훨씬 번거롭다. 그래서, 그 나라 국어학자 사이에 「경어 간소화」가 문제로 의논되고 있다.

경어는 먼저 맞편(상대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자기와의 관계들을 고려하여 특별한 말씨를 쓰려는 것이니,

1. 훌륭한 이에게는 특별한 말씨를 쓰겠다.

2. 손위의 맞편에게는 각근할 말씨를 써야 하겠다.

3. 이익을 주는 이에게 대하여는 특별한 말씨를 쓰겠다.

4. 친밀하지 않은 이에게 대하여는 손위에 쓰는 말과 같이 한다.

이러한 요소가 얹히어서 경어를 쓰게 되고, 또 말하는 가운데에 오르는 사물에 관하여도 특별한 경어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사회적으로 경어를 쓰게끔 마련되어 있는 이.

2. 듣는이(맞편)에 관계 있는 것.

3. 말하는 이에게 관계 있는 것(이 경우에는 특히 낮후는 말을 써야한다).

이러한 요건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 이와 같은 경어 쓰기는 봉건제도의 유물이며, 일본말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서, 말하는 이로 하여금 공연한 노심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국민을 이 경어쓰기의 심로와 부자유에서 해방하는 것이 국민의 말씨 생활을 편하고 유쾌하게 하는 동시에 일본말로 하여금 내부의 생각과 느낌을 막힘없이 순하게 발표하는 노릇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된다고 그들 국어학자들은 외친다.

우리의 배달말에서는 경어의 표현이 일본말에서처럼 그리 번거롭지는 아니하니 일본말에서와 같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도 여러가지 문제가 없지 아니 하다.

(1) 대이름씨(대명사)에 관한 문제 - 이에 관한 가장 뚜렷한 문제는 두째가리킴 대이름씨(제2인칭대명사)이다. 우리말에서 높임의 등분은 (ㄱ) 아주 낮춤, (ㄴ) 예사 낮춤, (ㄷ) 예사 높임, (ㄹ) 아주 높임의 네 가지가 있는데, 두째가리킴대이름씨의 이에 맞는 것으로는 (ㄱ) 너, (ㄴ) 자네, (ㄷ) 그대, 당신 만이 있고, (ㄹ) 아주 높임에 맞는 말은 없고, 다만 맞편의 나이, 지위들을 보아서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영감, 대감, 주사, 나으리, 선생 사장 ……」들을 쓰고 있다. 이러한 것은 말씨 표현을 매우 번거롭게 하면서 또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억지로나 「당신」을 쓰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히 가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첫째가리킴대이름씨로서는 (ㄱ) 아주 낮춤에 「지」, (저)는 피, 「제」는 자기)로 하고, 「ㄴ」 예사 낮춤에는 「나」로써 통일함이 좋다고 생각한다. 영어 같으면 You와 I로 아무 거리낌 없이 다 통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옛날부터 이 두 가지 말씨에 관하여 너무도 많은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 말씨의 정확 신속을 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지 못함이 크다고 본다. 군대의 말로서는 첫째가리킴에서는 그 맞편의 누구임을 물론하고, 「나」하나로써만 통용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란 말은 그 뜻이 여러가지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확성, 명료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째가리킴 대이름씨(제3인칭대명사)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에 「사모님」이란 말이 근래에 많이 쓰이고 있다. 자유당 시절의 「사모님」은 이미 들어갔다 하지만, 이 말만은 아직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사모」는 한자로 「師母」이니, 얼른 보기에 「스승의 어머니」 같지만, 사실은 「스승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스승의 부인은 그 제자로서 보면 「어머니」같은 이인데, 그도 또한 나의 「스승」이다. 그 남편이 나의 스승인즉, 그 안해도 나의 스승으로 높이 대접하여 부르는 말이 「사모」, 더 각근히 「님」을 더 붙여서 「사모님」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모님」은 제자된 사람이 그 스승의 안해를 이르는 말이요, 결코 딴 사람은 쓰지 못할 말이다. 그러한즉, 같은 교사들끼리가 저편의 안해를 「사모님」이라 함은 틀린 말씨이요, 더구나 군인, 관리 같은 사람의 안해를 일반으로 칭하기 위하여 「사모」라 함은 극히 무식한 말씨인 것이다.

김에, 다른이에게 대하여 자기의 안해를 가리켜 말할 적에는 「나의 안해」, 「나의 내자」, 「나의 집사람」으로 말함이 좋겠다. 또, 근래에 젊은 여자들의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말할 적에 자기의 남편을 「주인」 또는 「집주인」이라 하니, 이야 말로 시대역행의 창의없는, 사대주의스런 말씨라 하겠다. 이 「주인」, 「집주인」은 일녀들의 쓰는 말 「主人」 「內, 主人」을 그대로 뒤친 것이니, 참 「말씨에서의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노예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가련하고도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름지기 「나의 남편」, 「나의 가장」 또는 「나의 바깥사람」으로 함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의 안해, 나의 남편,

당신의 부인, 당신의 가장.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이 군인 가정의 말씨로서만 아니라, 현대인 일반의 말씨로서 합당한 것이다. (「우리 남편」, 「우리 안해」와 같은 말은 좋지 못하다.)

(2) 씨끝(어미)에서도 높임을 쓰는 경우에 그 간단한 꼴 「-(으)니라? -(으)니라」정도로 함이 좋겠다.

(3) 직접스런 표현이 아니고 간접스런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겠다.

보기로

나도 간다오, 간답니다. (나도 간다 하오 나도 갑니다.)

누가 안다뎡가?(누가 안다고 합데가? 나는 모릅니다.)

와 같은 말은 좋지 못하다.

또 서울 말로서는 어른에게 대해서는 「묻다」(問)를 쓰지 않고 반드시 「여쭙어 보다」를 사용해야 된다고 요구된다. 이 말도 실상은 간접스런 표현인 것이다. 바로 대어놓고서 「묻는다」고 하면 너무 반지빠르다고 하여 「여쭙어 보다」를 쓴다. 그렇지만, 「여쭙다」는 어른에게 무슨사연을 아뢰는 것인즉, 「여쭙어 보다」는 반드시 「묻는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뢰다」가 아니요, 거기에 도움 움직씨 「보다」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뢰 말에 대하여 어른의 의견이 어떠한가를 살피본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반드시 묻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특히 관습적으로 「묻는다」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씨를 일반적으로 경어의 법으로서 장려하는 것은 어떠한가 나는 생각한다. 그보다는 논리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바로 「묻는다」 「물어 본다」를 사용함이 좋고, 특히 경의를 나타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묻고 싶습니다」 「물어보아도 좋습니까?」 「묻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따위로 함이 말이 양판스럽고 활달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군인의 말로서는 「여쭙어 보다」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다」를 쓰는 것이 간명 쾌활한 기상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고 본다. 또 다른 보기로

「오늘은 사단장께서 말씀이 계시다」 보다는

「오늘은 사단장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실 예정이다」

로 함이 간명할 것 같다. 또, 높임도움줄기「시-」를 쓰는 경우에, 그 움직씨마다 이를 붙이지 말고, 그 맨 끝의 움직씨 하나에만 붙이는 것이 군인의 말씨로서는 간명하고 효과스럽다. 보기로

「대장이 나가시어 보시고서 말씀하실 예정이라 한다」.

보다는

「대장이 나가 보고서 말씀하실 예정이라 한다」

가 좋겠으며

「글을 읽으시어 보시지도 않으시고」

보다는

「글을 읽어 보지도 않으시고」

가 좋겠다.

한 말로 몽그리면, 군인의 말씨는 간명직통의 것이어야 한다. 사실을 바로 말하고, 생각을 솔직히 나타내는 것이 군인의 말씨의 생명이다.

〈글쓴이·국문학자 연세대학교수〉

(1962, 5, 23)

◇ 「말」은 조금 앞에 갈것이나 「행동」은 곧 그 발꿈치에 붙어 가야 한다. (스펜더)

◇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누구도 너를 비평하지 못하리라. (스펜더)

◇ 다변은 결코 남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상대방을 하여금 마음껏 얘기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카네기)

◇ 사람을 대해서 자기 일만을 떠드는 인간은 첫째로 자신의 교양 없음을 자백하고 둘째로는 사교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다. (카네기)

◇ 세계의 대 웅변가는 다 엄숙한 인물이었다. (에머슨)

◇ 말할 재료가 가장 적은 사람은 오히려 가장 많이 말한다. 기이한 일이 아닌가! (칼라일)

◇ 그 마음 속에 숨겨두지 못하고 다 말을 펴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할 수 없다. (칼라일)

◇ 침묵은 무궁한 것 같이 깊고 담화는 시간 같이 얕다. (칼라일)

◇ 모든 것은 죽지 않는다. 또 모든 것은 죽일 수 없다. 너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한 말도 때를 맞추어 자라날 것이다. (칼라일)

◇ 무릇 반만 배운 사람은 말이 많고 항상 그릇 됨이 많다. (괴테)

◇ 장(醬) 단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말라. (한국 속담)

◇ 말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익스 피어)

◇ 말은 여자와 같고 사업은 남자와 같다. (허버로)

◇ 말은 나무 잎과 같다. 그의 가장 무성한 때는 열매가 없다. (포트)



군인과 신뢰감

박 원 석

자국의 주권과 자국민의 안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군대가 과거에는 봉건군주 혹은 영주의 사병으로 존재하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문관 우위의 계급제도가 이조말까지 장구한 세월을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국민이 군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리 좋은 것은 못 되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 군에 경력이 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군이 창설되었지만 그 당시의 군의 사회적 지위는 불우한 것이었다.

「좋은 쇠(양철)는 못이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동양의 숭문천무하던 전래적 관념과 아울러 왜정때 일본군의 횡포와 군국주의가 범한 여러 가지 죄악상에 결들여 군인이라는 어감부터가 벌써 경원의 대상으로 받아 들여졌던 것으로 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눈초리는 매우 냉정한 것이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의 작용 때문에 국군의 존재가치와 그 증강의 시급함을 통찰하고 그 육성에 의욕적이었던 초창기의 국군은 일반의 완전한 이해와 협조를 얻지 못하였다. 당시 일반국민 혹은 경찰과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던 것은 저간의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군 내부 자체에서도 일체의 군국주의적 특권의식의 잔재와 불합리한 억압주의가 도입되어 우리 국군이 국민으로부터 경원당할 동기는 점점 커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건국초기부터 국민과 군과의 관계는 너무나 먼 거리에서 서로 도외시될 뿐만 아니라 군의 존립의의까지도 오히려 무시될 정도이었다.

그러나 1950년 6·25 사변은 수많은 병사의 꽃다운 목숨을 요구하였고 온 국민은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이룰 젊은 국군의 힘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실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우리 국군은 드디어 명실공히 국토수호의 역군으로 마침내 국민의 이해와 협조와 단결의 새로운 각광을 받고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조직으로써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6·25 동안은 조국통일의 염원을 기약없는 숙제로 남긴 채 오늘날에 이르렀고 그 후 구정권치하의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침체는 국민의 생활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어 놓았다. 약육강식의 살벌한 사회상이 노정되어 권력은 권력을 낳고 또 권력은 치부를 낳아 부작용은 연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사회는 날로 부패 일로를 더듬게 되었거니와 정치 사회의 부패에 따라 군 또한 그러한 부패의 마병이 고질이 되어 그 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갔던 것이다. 따라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기회는 또다시 멀어만 갔던 것이다.

혁명전의 일이지만 어느 신문에 「제대군인이 민간인을 구타」라는 표제하에 보도된 기사가 있었다. 제대군인은 군복을 벗은 국민에 지나지 않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그러한 표제를 내어 걸었던 것일까? 어찌서 군인도 다 같은 국민인데 각별히 혹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하긴 방대한 국군을 보유하다 보니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눈에 잘 띄이는 것이 국방색 입은 장정들일 것이고 질주하는 차륜중에서는 군용차륜이 많이 눈에 띄이게 되며 제복한 군인의 추태가 곧 잘 눈에 띄이게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은 국민을 위한 국민자신의 형제들이요 자체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국민의 군대라는 것이 친밀감으로써 느껴지지 않는다면 4·19, 5·16 혁명에 있어서의 군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군이 그릇된 특권의식을 갖는다면 국민에게 증오를 주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민주국가의 군인은 어떤 우월한 특수계급의 사람일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옛날처럼 무가 비하시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니 군인은 곧 일반국민과 동등한 사람들이다. 단지 경찰이 사회질서를 확립 유지함에 있어 국민에 봉사하는 것과 같이 일반 공무원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군인은 국가안전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군과 민을 막론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릇된 관념이 있는 한 과거 왜정때에 본 군대를 연상하게 되어 군과 민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전력의 배양을 일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때다.

전쟁준비태세 완벽은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이어야 할 것이니 일단 국가 유사시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인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엄정한 군기와 철저한 훈련 신예장비의 유지로서 국방에 대한 안도감을 주게함과 동시에 예의단정하고 친근하여 대중속에서 같이 호흡하는 평범한 인간이면서도 국가가 처한 위난에 당해서는 그의 용기를 다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군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군인은 겸소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구한 세월을 두고 사회가 부패했었던 만큼 군도 부패했다는 일반의 인식은 혁명후라 하여 그리 간단하게 일소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군인이 사치부부하여 나날의 일락을 영위한 것이 오늘에 와서도 그 태도를 감히 부정하지 못하는 양심적 요소가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가 어떤가도 반성해 볼 일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운위함은 지나친 간섭인 듯도 하지만 그러나 사치한다는 국민의 축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라면 이는 군자신을 위해서나 국가 장래를 위해서나 위험한 일이라 아니 할수 없다. 헐벗고 사는 고통스러운 국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이들과 같이 고통을 참아가며 사는 가운데 군인과 국민이 융합되고 또 친근해질수 있으며 따라서 신뢰를 받는 법이다. 더구나 혁명 후 인내와 겸소로써 국가 재건을 위한 국민의 정신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군인의 생활은 국민의 그것과 별개의 것일 수 없음은 체언을 요치 않는 일이다. 특히 군인이 청렴결백 해야 한다는 말은 고래로부터 군인의 가치관이며 좌우지명과 같은 생활신조기 때문에 군인의 지나친 사치와 방일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치와 방일은 투지와 인내력을 약화시킨다. 여기에 특히 군인된 자 더욱 호사방종을 경계해야 하는 근본적 뜻이 있다. 참으로 세인은 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으며 혁명의 주체자로서 군인자체의 인간혁명은 과연 행해지고 있는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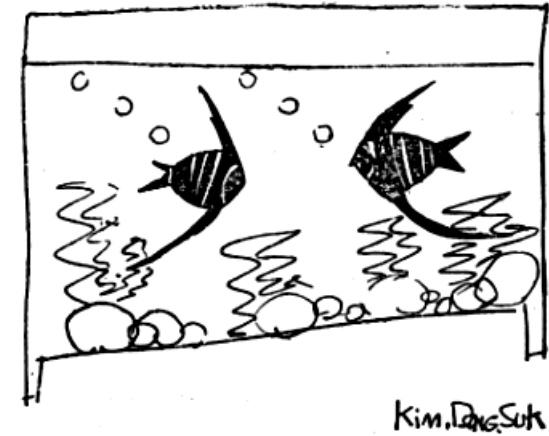
또한 군인에게는 군사적 지식, 기술, 체력과 정신을 고도히 요구 되는 까닭에 군은 주도면밀하고 철저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견지에서 군은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써 매우 중요한 존재라 볼 수 있다. 군국주의적인 의미로서 기이하게 들릴는지 모르나 필자는 그러한 주의하에서 기능을 규정지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군이란 강력하고도 방대한 조직을 가진 사회이며 적어도 그 내부에 있어서는 방종과 나태를 일소시키고 자율, 책임, 인내, 근면, 협조, 겸소, 예절, 보건의위생등의 제 미덕을 체득케 하여 이를 습성화 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간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한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전국민이 지·덕·체의 합일된 인간으로 개조되는 데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전술한 제덕성은 우리 일반국민에게도 요구되는 자질이기에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제미덕에 의한 인간개조가 군자체내에 있어서도 아직 만족할 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특히 군의 간부되는 각급 지도자들이 중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군의 간부된 자 과연 지도자라는 말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아니 자신이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란 자기자신이 술선수범함으로서 부하 장병으로 하여금 군인으로서 또 한 새 세대의 국민으로서 구비해야 할 제덕성을 체득 습성화 하도록 지도감화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식사전에는 얼굴과 손발을 씻도록 가르칠 것이다. 그것이 처음에는 일일이 꼭 말을 해야만 실행되지만 점차 그 실행은 습성화하게 된다. 병영생활도 가정생활과 다름이 없다. 24시간의 생활을 적절히 습성화 시킨다는것은 군기확립의 첩경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신이 건전한 많은 청년을 육성 일반사회에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한 것이다. 종래의 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관계로 장병의 병영생활이 의욕적이 아니며 피동적이고 따라서 비창의적이라는 것이 지도자 된 간부의 무책임한데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군의 각급 지휘관 및 간부는 애국적 열성으로 국민을 교육하고 군의 가치를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요 또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오직 각자의 자각에 의한 하고저하는 기운조성으로서 그 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열의가 없는 지휘관 또는 간부란 아무런 국가의식도 없이 그날 그날을 안일하게 소일하는 무사주의자요 이기주의인 것이다.

우리는 왜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고 군문에 들어오게 되는가. 그리고 또 왜 과거에 많은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했는가. 왜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군문에 다녀 나갔건만 아직도 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잘 되어 있지 못한가. 군인이 왜 병영생활을 보다 의욕적으로 하려 하지 않는가. 군과 민사이에 개재되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군을 신뢰하게 하는 근본은 각급 지휘관의 헌신적이며 열성적인 부하 지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필자·공군준장 공사교장)

필자
김동석



신록의 기억



『남부독일의 신록이 좋았다』

『그리고 「라인」강 기슭의 기나긴 신록이 더욱 좋았다』

어렸을 때다.

고 은 전라도의 항구에서 외가인 충청도의 항구에 갔다 오는 첫여름이면, 으레 가난한 저자의 소녀들에게 나는 정말 외국에라도 갔다 온냥 그들을 일러서 들뜨게 하였다.

그들은 「사회생활」에서 배운 먼 나라의 이름들을 내가 들먹이면 으레 그 말에 바짝 홀려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나는 겨우 외가나 있는 그곳 초라한 항구의 가로수나 몇 그루 보고 온 것 밖에는 없지만, 돌아와서 갑자기 꾸며대는 내 거짓말에 소녀들도 나도 취해서, 나는 참말로 독일의 우거진 남부 삼림지대나 다녀 온 것 같이 자신을 착각하였던 것이다.

이런 거짓말이 지금은 나의 연륜 속에 잠겨 무슨 진실의 침묵이나 되지 않았는지도 모겠다.

생가나 많이 살았던 외가의 기억이 썩 없어져 버렸다.

남과 같은 향수도 별로 갖지 않는다. 이는 너무도 여수에 향하여 떠도는 내 인생의 업고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가장 실감이 있을 고향의 옛 신록도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오직 있다면 신록이 아니라 삼복염천하의 시드는 듯한 녹음 속에서 집에 아무도 없고 홀로 낮잠에서 깨어 났을 때, 쓰르라미만이 건너 마을의 언덕에서 울어댈 뿐 세상이 교묘한 고덕에서 울어댈 뿐 세상이 교묘한 고요로 죽은 듯 했을 때, 나의 고독과 공포는 지금도 한 감동이 모형으로 남아 있다.

나는 그때 아주 지긋지긋하게 두렵던 건너 마을의 나무들을 바라보고 소름을 쳤었다. 그들의 땅바닥을 파서 자꾸 입속에 담고 담았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 파진 흙구덩이에 얼굴을 처박고 한 나절을 엎어져 있었던 생각도 난다.

이러한 것 밖에 내 가난한 동심은 더 화려하지 못하였다.

어느 때는 꽃보다도 잎이 미덥게 느낄 때가 있어 신록 때가 되면 무척 반기고 하였다. 아무 뜻도 없는 생각이고 또 바로 변해 버리는 생각이다.

중화인은 식물을 사랑하다가 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가 꽃 속에서도 다 거쳐서 난에 이르게 되면 화초벽도 격이 무거워 진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때는 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 이르면 도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밋이고 이렇게 취미만큼 또는 도박만큼 그리고 광신 할만큼 도락할 수 없다. 신록도 그럴 따름이다. 남반도 각 지방을 여러 번 다녀서 대개 가는 곳의 여름을 지내 보았건만 내게는 다못 여기 사는 것 밖에는 별로 로마네스끄와 같은 여름날의 추억은 없다.

제주도의 삼대식물도 보기는 보았다. 그러나 다 잊어 버렸다. 그리고 그 섬의 벼들도 다 잊어 버렸다. 아마도 나에게는 자연이나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잊어 버리기를 바라는 의식없는 욕망이 숨어 있나보다. 이제-세상을 몇 해 살았다면 살았다고 할 이 나이에 비해 과거가 별로 없는 간단한 「하아프」의 리듬처럼 통명스러운 외마디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내 무력한 체념도 어떤 고급의 동정녀나 거두어 줄 것인지는 몰라도 벌써 나에게는 세상을 표백해 버리는 개성의 고정화작용이 있다.

이러한 작용이 최근에 내가 시련으로 겪은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통해서 한층 더 굳게 되었다.

누구한테 귀에 젖도록 들어 왔지만 「케로이드」피질의 내 인연 한 토막이 있다.

어떠한 것이든지 억제하면 할수록 폭발하고 마는 저항의 여신과 같은 비수의 역을 맞이하였다 해서 이제 사세삼 커다란 변화는 없다. 아무튼 신록을 바라보아도 예전 보던 것과는 다르기는 다르다.

세월이 가면 으레 그러느니라고 늙은 이들이 곧잘 말하는 그런 투의 허탈이 어느 듯 내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짜르뜨르」의 근간의 작은 수상에서 그답지 않게 고달픈 인생감을 노출한 것을 보아도, 불탄서의 지성의 한 지도자도 역시 이런 인생일반에서 오는 덧없고 허전한 모퉁이에서는 어쩔바 없는 것이나 아닌지, 누가 쉽사리 단정하랴.

열 아홉 때의 신록은 학대와 고독 속에서 맛았다.

스무살의 신록은 산 속의 절에서 무표정으로 맛았다.

스물 다섯의 여름 불교의 이른바 「자연법이」이라는 이미지에 닿았다.

스물 여덟살의 여름 녹음은 헤레니즘을 상기시키는 복고적인 다양한 사색으로 맞이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름이 오나 가을이 오나 봄이 가나 아무런 변질의 사상은 없다. 달리 보인다는 것은 별도의 것이다.

마치 홀로 맞이하는 제 탄생일처럼 아무런 축의도 없게 계절은 나의 강위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다.

어렸을 때 왜 나는 거짓말까지 만들어 가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유럽의 신록을 자랑했을까

아마 이것은 내가 어디로 떠나가고 돌아오고 하는 끝없는 여정에 오른 값없는 나그네의 숙명의 여명기가 아니었던가를 이제 더듬어 생각해 본다.

내가 더 살고 더 병 들고 더 늙어 보고서 정말 남부독일이나 가서 햇세, 하이데가들이 지내던 곳을 둘러 보면서 그때는 정말로 고국의 어린이들에게 신록의 이야기를 해 줄 것을 공언히 계획해 본다.

하이데가에 의하면 아무도 발을 들여 놓지 못한 삼림속의 미로가 그의 존재의 미로를 표상하는 철학의 일전개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그런 신록이나 첫여름을 갖지 못한다.

「샤가」(석가) 말하시기를-한 나무 아래서 사흘을 머물지 말라 하셨다.

이는 유행하는 수도승의 근본적인 자세를 명시한 불교의 집씨 훈이다.

아무리 불만하고 지낼만한 녹음의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오래 살고자 하는 집착은 없다.

「그리고 라인강 기슭의 기나긴 신록이 더욱 좋았다」는 그런 의미없는 감탄에 지나지 않을 내 운명을 나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권한이며 신록에 대한 권한이기도 하다.

올해 첫여름에 이내 눈으로 보이는 신록은 이내 혼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내 탓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탓이다.

언제 보이는 것이 다 부처이라. (필자·시인)

쓰르라미 소리



윤석중

쓰르르람, 쓰르르람, 쓰르르람 ……

멤, 멤, 멤 멤……

시원한 소리들이다.

잔등에 땀 땀을 들여주는 고마운 울음소리다.

그러나 저 시원한 벌레 소리가 무던히도

시와수필



전신

박목월

나는
나무가 된다.
반쯤, 아랫뚜리의 꽃이 무너진
그
적막한 무게를
나는 안다'.

나는
바람이 된다.
밤들판을 달리는.
고독이 부르짖는
갈증의 몸부림을
나는
안다.

나는 물방울이 된다.
추녀에 떨어지는,
그 생명의, 흐르는
리듬을,
나는 안다.
나는
접시가 된다.
그것이 받드는
허전한
공간의 충만을 나는
안다.

나는
씨앗이 된다.

덥게 들리는 수가 있다. 자꾸 눈이 감기고, 꾸벅꾸벅 졸게 만드는 수가 있다. 같은 매미 소리, 같은 쓰르라미 소리가 시원하게도 들리고, 답답하게도 들림은 어찌된 일인가.

쓰르르람, 쓰르르람, 쓰르르람……

멤, 멤, 멤, 멤……

시원하다 하고 저 소리를 들어보라. 마음 속까지 서늘해 올 것이다.

쓰르르람, 쓰르르람, 쓰르르람……

멤, 멤, 멤, 멤……

답답한 마음으로 저 소리를 들어보라! 괜히 짜증이 나고, 진땀이 흐르고, 조름이 올 것이다.

매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

S선생댁 대청 마루에는 웅전우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곰웅(熊)짜, 앞전(前)짜, 소우(牛)짜, 이렇게 석자를 써 붙인 것이었다.

웅전우, 곰웅 앞전 소우-웅전우, 아무리 새겨보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다.

『웅전우라……저게 무슨 뜻입니까?』

『으응 저거……곰웅, 앞전, 소우 아닌가 첫소리만 따 읽어보게그러』

『곰앞소』

『바로 그 뜻이야, 고맙다는 소리야.』

「고맙소」라고 써 붙이면 너무 노골 적이니까 S선생은 자기만 알아보도록 한문 글자 석자로 「웅전우」즉 「곰앞소」라 적어논 것이었다.

육과안에 박힌. 신앙에 싹튼 미래의 약속과 그 안도를 나는 안다. 나는 무엇이나, 내가 마음한대로 나는 된다. 나는 돌이 된다. 하상에 당구는. 신의 섭리와 역사를 나는 안다.	나는 팬이 된다. 지금 내가 쓰는. 헌신과 봉사의 즐거움을 나는 안다. 나는 무엇이나 된다. 지금 이 순간은. 나는 다 안다. 지금 이 순간은. 다만 내가 아는, 이 전부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과 함께 나도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나는 안다.
--	--

그러면 무엇이 이처럼 고맙단 말인가.
방으로 들어가다가 탕! 하고 문설주에

이마를 부딪쳤다. 어이쿠! 그러나 이마가 좀 부들었을뿐 터지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S선생은 혼자 입속으로 「고맙소」

밥상을 차려 왔다. 반찬이라곤 김치 깍두기에 된장찌개뿐, 그러나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얼마나 황송한가. 그는 반찬 타박을 하려던 자기를 속으로 나무라며 혼자 입속으로 「고맙소」

켜졌다 꺼졌다 약을 올리는 전깃불-그러나 등잔불도 못 켜서 밤이면 어둠 속에서 눈만 껌벅거리는 시골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견한가. S선생은 분통이 터질 뻔하다가 마음을 달랜 다음 혼자 입속으로 「고맙소」

S선생은 철두철미 「고맙소」의 생활이요 「웅전우」의 하루 하루였다. 소극적인 듯 싶은 그의 태도는 알고 보면 매우 적극적이요 낙천적이었다. 온갖 불평, 온갖 불만, 온갖 짜증, 온갖 양탈이 그의 앞에선 힘을 못 썼다. 그런 것들이 대들었다가도 햇볕에 얼음이 녹듯 고대 스러져버렸다. 그래서 그는 늘 웃고 지냈다 잠도 잘 잤다.

내 노래 가운데 「미투리와 나막신」이라는 것이 있다.

마나님이 신발장수
아들 형제 났는데
비가 오면 큰 아들
미투리가 안 팔리고,
날이 개면 작은 아들
나막신이 안 팔리고,
마나님은 혼자 앉아
자나 깨나 걱정이지.

동네 사는 영감님이
하도 딱해 하는 말이



남한 산성

신석초

한장 푸른 이내(람)의
그림폭 속에
동시런히 솟아 있네.

점점히 깔린 구룡이며
아슬한 퍼런 풀밭이며
질편한 허연 모래밭이며
선녀가 풀어논 의대같이
구비치는 한강물이며……

저기 송파나루를 건너던
침략의 대열이
한눈 아래 역역히 보였으렸다.

북이 뚱뚱 울리는듯 하이.
연하속에 무너지는

「비가 오면 작은 아들
나막신이 잘 팔리고,
날이 개면 큰 아들
미투리가 잘 팔리지」

그제서야 마나님이
무릎 치며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괜한 걱정 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이처럼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비는 오게 마련이요, 비가 오면 개에게 마련이다. 비가 퍼붓는다고 발을 동동 굴러 보았자 소용이 없고, 날이 가문다고 역정을 내보았자 별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비가 오면 큰 아들 미투리가 안 팔린다고 끝탕이고, 날이 들면 작은 아들 나막신이 안 팔린다고 징징 운다면, 이 마나님은 일년 열 두달, 삼 백 육십 오일을 두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생각하며 사아 보면 어떨까. 비가 오면, 작은 아들 나막신이 잘 팔리니 좋고, 날이 들면 큰 아들 미투리가 잘 팔리니 좋고, 마음을 그렇게 가진다면, 마나님은 언제나 싱글병글하면서 살아 갈 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

어찌 미투리와 나막신 뿐이라. 여름에 우산 장수와 아이스케키 장수 두 아들을 두었다고 하자. 장마가 들면, 아이스케키 장사를 들어먹을 것이요, 장마가 개이면 우산 장사가 세월이 없을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걱정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말고서, 장마 철에 우산 잘 팔릴 생각을 하고,

옛 성 둘레,
묵은 이끼 낀 돌의 「땀」이
바다 한 복판에 출렁이는
큰 물결 처럼
구비 구비 서렸네.

육된 세월이 가난과 인내의
땅에
삼백년을 흘렸노니
이제 새 나라 백성들이
네 이마에 올라
큰 소리를 쳐 본다.

서장대 높은 뜰에 꽃이피고
사람은 모다 봄술에 취했는데,

석양빛긴 서울길에
찬란한 꽃 구름, 찬란한
나우리, 오오, 서울이여!
북아 올려라. 저 퍼런
오월의 하늘에 큰 소릴
번저라.

날이 들면 아이스케키 잘 나갈 생각을 한다면, 그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든든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 매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하나로 제 아무리 찌는 더위라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산이나 들로 피서들을 간다. 더위를 피해서 가는 것이니 「피서」라고 할밖에 없지마는 가야 될 사람은 못 가고, 안 가도 좋을 사람이 앞장을 서는 수가 많다. 더위와 싸우지는 못하나마 더위를 슬슬 피해 다닌다는 것은 태양과 대결하는 해바라기 보다도 비겁하지 않은가.

밤에 멧꽃이 만발하고 보면 그 넓은 창경원에 사람들이 짝 들어차 만원을 이루는 일이 많다. 벚꽃과 더불어 밤을 즐기고자 온 가족이 밥을 해 싸 들고 창경원으로 밀려들어 갔다가 둘러앉아 먹을 자리가 없어서 창경원 문간 근처에 있는 변소 옆에 웅기증기 앉아서 먹는 것을 보았다. 당자에게는 구경이 아니라 곡경이요, 구경꾼들 눈에는 꼴볼견이었다. 꽃구경을 간 것이 아니라 끼니를 때려 갔었고, 꽃구경을 한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구경을 하고 온 셈이었다.

피서 역시 마찬가지다. 땀에 젖어 걸레처럼 되어 해수욕장에 당도하고 보면, 들뜬 명동바닥을 옮겨다 놓은 꼴이요, 주머니가 빈 사람은 사람 축에도 못 들기가 일수다. 더위를 피해 갔다가 더위를 먹고 오는 수도 있는 것이다.

요새 사람들은 더위를 더 탄다. 몸이 허해져서 그런것이 아니라 맘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다.

시와수필

그전 사람들보다는 요새 사람들이 먹기도 더 먹고, 음식을 더 가려도 먹고, 좋은 약이 쏟아져 나와 병에 걸려도 두려울 것이 별로 없다. 그렇건만 더위를 더 탐은 몸보다도 맘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고 하지마는 그와 반대로 건전한 육체는 건전한 정신에 깃드는 수도 많은 것이다. 스포츠계에서 왕노릇하는 명선수들을 보면 그들은 매양 체력보다도 정신력이 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마라톤 왕인 손 선수를 보더라도 그는 집안이 구차해 변변히 먹지도 입지도 못한 고학생의 몸으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압록강철교다리를 뛰기 연습 삼아 달음박질로 왕래한 것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첫출발이었다. 강한 것은 그의 결심이었고 그 결심은 그의 뻘뻘마른 다리팔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강철 같은 정신력에서 용솟음 친 것이었다.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자고 한다. 인간개조를 부르짖기도 한다. 민족 개조에 앞서 생활 개조, 생활 개조에 앞서 인간 개조, 인간 개조에 앞서 마음의 개조일 것이다. 이 순서가 뒤바뀌고 보면, 조끼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들이 모조리 잘못 끼워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시 입는 도리 밖에 없는 것이다. 혁명이란 잘못 낀 조끼 단추를 빼어 다시 입는 운동이다. 돌발적이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쇠를 녹이는 것이 「용광로」라면, 삼복 더위야 말로 녹슬고, 찌들고, 게으르고, 하품나고, 기대고, 드러누워 뒹굴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글이글 타는 태양열로 녹여 다시 고쳐 단단하게 만들기에 알맞는 계절이다. 삼복 더위는 인간 개조의 씨즌이요 참을성을 기르는 계절이다.

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가다니 될 말인가. 더위를 물리치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탁탁 막히거든, 띄약별에 앉아 신을 깎는 신기리 장수를 생각하라.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탁탁 막히거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지게꾼을 생각하라.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탁탁 막히거든, 구공탄 굵은 인부들을 생각하라. 그러노라면 보채던 더위도 무안해서 물러 가버릴 것이다.

쓰르르람, 쓰르르람, 쓰르르람……

땀, 땀, 땀, 땀……

무던히도 후덥지근하게 들리던 저 소리가 오늘따라 무척 서늘하게 들려온다.

폭양에 오히려 생기가 도는 여름 꽃밭에서 향기가 풍겨온다. 폭양에 붉게 타는 백일홍을 보라. 맨드라미를 보라! 봉숭아를 보라. 해바라기를 보라! 태양과 대결하는 정열의 꽃들이다. 태양이 노염을 풀고 서산으로 피해 들어갈지언정, 여름 꽃밭이 그늘을 찾아 읊아 앉는 법은 없다.

여름 꽃밭에 꽃바람이 불어온다. 꽃바람을 타고 꽃향기가 풍겨온다. 여름 꽃밭이 눈이 부시다.

쓰르르람, 쓰르르람, 쓰르르람……

땀, 땀, 땀, 땀……

선풍기보다도 서늘한 소리가 아닌가.

(필자·아동문학가)

× ×
× ×
여름에



김요섭

여름이 되면 책장에서 조금 무겁고 딱딱한 책을 꺼낸다. 부드러운 책은 여름에 읽지 않는다. 이것은 여름의 나의 투지다. 해마다. 버르면서도 아직 산이나 바다를 가보지 못한 나의 여름의 습성이 되고 말았다. 여름에 책 읽는다는 것조차 무리다. 아예 읽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든지, 정력축적을 위해서든지 좋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여름에 두껍고 딱딱한 내용의 책 한 권을 독파하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 일종의 반발이었다. 좀 건사한 말을 흠쳐오면 저항이었다. 피서를 못 떠나는 나의 여름의 저항이다. 만문조로 말하면 나의 피서법이기도 하다.

그 서늘한 계절을 다 어디다 두고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딱딱한 책을 읽는다고 설칠까, 혹자는 공허한 나의 허세로 웃어넘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도 속임 없는 사실이다.

어릴 때의 일이다. 살살 그늘만 찾아다니니까 여름이 더 지겨웁고 더웁던 것을 기억한다.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이든지 일을 하고 나면 몸이 오히려 가벼웠다.

여름이면 더위에 시달리다 보면 이상하게 머리가 사막으로 굳어가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 때 나는 초조스러운 생각 끝에 머리에 무슨 불빛이라도 켜야 하겠다고 결의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책, 별로 머리를 활동을 시키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정적인 책을 읽게 되면 읽으나 마나다. 책장만 술술적 넘기다가 조름이 소르르오고 만다.

역시 딱딱한 책을 읽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지 않으면 긴장이 되지 않는다. 읽어가다가도 의미가 단절되면 다시 넘겼던 페이지를 도로 찾아간다. 후퇴다. 이렇게 아리스식 독서강행군을 하게 된다.

창작생활을 하게 되면 독서생활이 위협하다. 단물만 술술 빨아 마시는 식의 책임기가 되기 쉽다. 그리고 독서를 학습보다도 오락으로 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서도 창작만큼의 고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을 쟁그리며 그런 답답한 생활은 집어 치우라고 충고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독서에서 쾌작을 얻기보다는 초조와 불안으로 책을 읽는 것이 태반이다. 일종이 전투로써 책을 읽는 것이다.

이 전투를 여름에 전개한다. 한창 무더운 더위 속에서는 조금도 나의 생각을 파해칠 수가 없다. 짜증만 나고 머리속이 멍해지면서 나는 지금 바야흐로 바보가 되어가지는 않는지 하는 걱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다.

걱정은 초조를 낳게 되면서 책이라도 펼치고 앉아 멍한 머리에 불꽃을 튀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나면 이열 치열이라 할까, 더위도 머리도 좀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려고나서 옷통을 벗고 먹는 보신탕이라든지, 여름에 채운 수박, 피속까지 서늘기를 불어 넣어주는 냉 막걸리의 맛은 그야말로 여름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서민의 생활 일 것이다.

그러나 소원은 여름 복터위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다 집어치는 것이다. 산이든지 바다든지 찾아가서 한달 쯤 쉼 쉬는 것이 좋겠다. 수풀 속이나 바다가의 시원한 바람 속에서는 머리가 멍해가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책도 읽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복작거리는 저자와 거리를 두었듯이 책과도 거리를 두고 생각이 흐르는 대로 번동번동거리기만 하여도 마음 받은 기름지게 될 것이다.

아무 걱정이 없는 소년처럼 사는 것이다. 깊은 사색보다는 무책임한 공상이나 하면서 지내는 것이다.

소년 때처럼 책 같은 것은 읽지도 않으면서 손에다 멋으로 들고 다니다 마음 맞은 녹음 밑에 가서 책을 베개로 하여 누어 섧하얀 몽게 구름이나 쳐다보는 것이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것을 ○ 하였다. 집 뒤에는 바로 그리 높지도 깊지도 않은 산이 있었다. 이 산을 잘 쏘다녔다. 누구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다. 혼자서 산 속을 헤맸다. 손에는 으레 내 실력에는 좀 어려운 책을 쥐고서는 산 속을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녹음 밑에서 낮잠도 잔다. 책을 베개 삼고 누어 눈부시도록 하얀 몽게 구름을 보면서, 나는 나의 황홀한 공상에 가슴마저 떨었다.

나는 얼마 전에 어렸을 때 몽게구름을 보면서 쾄 공상을 하나씩 하나씩 되 찾아내 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즐거운 공상들이었다. 그 공상을 하게되면 밥맛도 없을 정도로 달던 공상들이다.

지금 그런 공상들을 하라면 못할 것 같다. 유치해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말라 있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싱싱하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빠져린 패배의식 이런 독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 쾄 공상을 지금이라도 내가 내 생활에 충실만 하면 어떻게 그 원형만은 골격을 세워 놓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소년의 공상이란 신비한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이 허무맹랑한 것만 아니다. 무슨 계획처럼 짜여 있지는 않으나 탄력은 계획보다 더 있어 보인다.

올 여름에는 산이든지 바다로든지 가야 하겠다. 거기서 책을 베개로 하여 누워 하얀 구름을 쳐다보면서 지나야겠다.

소년 때에 한 공상을 다시 한 번 하여 보아야겠다. 그것은 왕년의 영화에서 새 감동을 얻을 수 있듯이 새 감동을 내 생활에 일으켜 주리라고 믿는다.

공상이나 희망은 자유의 아들과 딸들이다. 소년처럼 자유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나는 지금 소년처럼 자유스럽지 않으나, 이 구속의 도시를 떠나 자유처럼 펼쳐져 있는 하늘을

시와 수필

쳐다보면 소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공상도 자유스러히 띄어 오르리라고 믿는다.

이것도 역시 시들해진 내 생활에 새 감동을 불어 일으키는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필자·작가)

계절의 서정



박말레

침울한 생활에서 숨 가쁜 호흡에 시름하러니, 창밖에 언제부터 내렸는지 비에 젖은 거리는 선명한 초록 위에서 진주같이 뒹구는 기름방울, 맥을 놓고 쳐다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나가고야 말았다. 먼지에 부대끼던 가로수가 서정의 운을 띤 듯 더욱 푸르다.

아침에 들고 나간 우산은 축스러운 듯 손에 들고 오늘날이 맞볼 수 있는 훌륭한 산보로를 마냥 걸어본다. 비 개인 7월의 아침은 선명한 풍경화다. 이러한 아침이면 조용한 교외로 달리고 싶은 심정이다. 비좁고 텅 텅한 버스안보다 좀 일찍이 나서서 자연의 색채 고운 풍경을 바라보며 서서히 걷는 것이 더욱 좋다. 초록빛 자주 빛 쉼타를 입고 수목색 입체화속을 걷는 7월의 화폭위에 건강한 여인들 그러나 경쾌한 빛깔의 파라솔에 하얀 실타로 바꾸어 신은 촉각의 날카로운 여인, 그 보다도 모기장 같은 혹은 거미줄을 엮은 여인의 손등이 얼마나 허약한 모습이라. 이렇듯 허위적이고, 냉혹한 생명의 향기가 풍기는 7월의 아침은 나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위선과 허위에서 생활의 연결을 기하는 도회인과 뱃해나가기에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듯 불안에 못 이긴다. 한 달의 하숙비에 쌀 두가마 값을 요구하는 그들의 산판위에 7월이 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불만과 우월에 벅차게 한다. 그러나 계절의 선량한 장난은 공평의 원칙을 준수 하는데야 어찌 할 수 없다……그러나 모처럼 오는 한적한 일요일을 나는 혼자서 시가를 벗어나 교외로 나가니 마음은 가볍고 청량해진다. 이럴 때 하늘에 날으는 새라도 되어 7월의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싶다. 산위에 올라 산봉을 바라볼 때 고향으로 뚫린 길이라도 있으면 한숨에 날아가고 싶은 충동이다. 고향이라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렇지만 내 몸이 자랐고 마음을 길러낸 땅,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의 영혼이 조용히 묻힌 곳, 그곳의 흙이라도 밟고 싶다. 언제나 정답고 그림기만 한 곳, 가고싶은 마을……고향에 7월이 짙은 날 나는 어머님의 다정스러운 손목에 매달려 아카시아 우거진 길을, 땀꾸기 우는 남산 양지 바른 아버지 묘지를 찾아, 전설같이 먼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어머님에게서 들던 일기장,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며 내 단발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엄마의 표정을 7월의 훈풍속에서 들리는 듯 보이는 듯 찾아본다. 그러나 지금은 나란히 잠자고 계시는 곳, 언제나 그림과 아쉬운 향수에 가고만 싶은 마을, 지금은 아는 이 없고 내가 살던 옛집은 다 무너지고 내가 놀던 그 들에는 장성같이 큰 집들만 즐비하고, 낮설은 사람들만 드나들 적골 마을은 마음의 고향. 고향에 7월이 짙으면 발이랑엔 옥수수랑 우거지고, 땀꾸기 우는 산천·산정에 오르면 아득히 보이던 산들이 한눈에 다가서고 무성한 녹음사이에 새들이 노래하는 그 곳에 파란 하늘이 경쾌하고, 집마다 등성에 푸른 대숲에 죽순이 하늘을 뒹고 푸른 발이랑엔 꿩 새끼 눈을 부비는 평화로운 마을 가보면 하잘 것 없는 쓸쓸한 마을이건만 오늘 먼 하늘 고향 그리움에 눈시울을 떨어보는 향수를 씹어 본다. 복잡한 도회안에서 이러한 감상에 젖는 때라면 아마도 통행금지 시간을 앞두고 종점으로 달리는 빈 버스속에서 일까……나는 가끔 막차를 타본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회 평소에는 찻잔만 차장도 지친 하루의 피로에 선지 유난히 다정한 표정이다. 저물어가는 회색의 황혼에 사랑하는 산판위에서 그들의 투영을 발견한다는 것은 고기 잡으러 사막으로 달리는 애교 있는 현명이니, 그들은 근세사의 종장을 성경처럼 읽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서 피로를 느낄 때 7월의 어느 일요일을 택하여 교외로 나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음탕과 교활의 네온싸인이나 한 별의 나이롱 옷, 한 병의 맥주보다는 우리의 호흡과 시각을 통하여 육체에 스며드는 7월의 찬연한 청량제가 얼마나 값있는 것이라.

무한히 솟은 7월의 하늘 망망한 푸른 바다.

7월의 하늘 7월의 푸르름에 온 몸을 몽땅 담그고 싶은 충동이다.

7월의 선명한 아침 오늘을 종지부 찍으며 내일의 무한한 초원으로 바다로 달리는 경쾌한 아침 나는 7월의 맑은 하늘 푸른 바다를 향해 출항하는 어부가 된다.

(필자·수원여고교사 이승국 중령 부인)

잃어가는 녹음의 회상



윤오영

먼 시골서 노인 한 분이 왔다. 30년 만에 만나는. 박람회 왔다는 거다. 순박하고 고요하던 옛 마을의 풍경이 떠오른다. 사흘같이를 덮는다는 큰 느티나무 고목 밑 푸른 그늘 속에 모여앉아 참외껍질을 벗기며 소박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옛 추억을 회상하며 마을 소식을 물었다.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하게 변했다는 거다. 그럴 일이다. 10년이면 산천이 변한다는데, 더욱이 창상 누집을 치른 우리 강토에서 30년이 흘렀으니. 그 느티나무가 없어지고, 마을도 거의 폐동이 되었다는 데는 실로 감창한 회포를 금할 길 없다. 이 느티나무를 없앨 때부터 이 마을이 결단 날 징조인 것을 알고 그 노인은 이사를 갔다는 거다. 「어느 동리고 말 앞에 숲이 우거지고 말 안에 큰 고목이 서야 부촌이지요, 서울서 신학문했다는 청년이 내려오더니 부모의 말도 제 가족의 말도, 온 동리가 야단이 나도 제 고집대로 그 느티나무를 작별을 해 없애버리고 양계장이니 뭐니 별려노니, 저는 미신이니 뭐니 하지만 그 나무가 수백 년 내려오며 마을을 지켜주는 터주나문데, 한 가지만 꺾어도 탈이 나는 법인데 그것을 송두리채 벌목을 해버렸으니 무사할 리가 있오, 그해 온 동리에 병이 퍼지고, 저의 부친도 그래죽고, 시름 시름 동리가 패하기 시작했지요」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노인이 간 후에 집안 아이들은 그 노인 흉내를 내며 여러 가지로 화제를 삼았다. 사실 그 노인의 지방 음성과 표정이 약간 우스운데가 없지도 않았다. 「시골 사람들은 미신이 많아. 나무 하나만 건드려도 꼭 사람이 죽는 줄 알지, 사람이 병이 나면 굿이나 경을 읽는데」 나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귓결에 들으며, 3년전의 그 시골 풍경을 눈앞에 그리고 있는 것이다.

풀밭에서 피어오르는 녹연과 방향, 참외밭에서 풍겨오는 폭 익은 과향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 앞방죽에 실실이 푸른 수양버들, 산 밑에 울창줄망한 초가집, 연당을 앞에 둔 큰사랑집(유일한 기와집이자 큰 사랑이 있어 큰사랑집이라고 들 불렀다) 멀리보이는 높은 산봉우리, 여기저기서 들리는 새 소리, 금방 내 머리 위 느티나무에서 일성만수주의 매미 소리가 일제히 쾅아하고 울리는 것 같았다.

「미신보다 더 무지한 것은 과학이다」 「설익은 과학」이런 말을 생각한다. 미신은 그래도 수백년 동안 그 느티나무를 보존해 왔다. 그들은 이 미신으로 해서 무르녹는 녹음의 혜택 속에서 생을 누릴 수가 있었다. 미신조차 믿지 않는 감쩍하게 알로 깬 사람들, 그 설된 지식을 과학이라고 믿는 또 하나의 미신, -무지의 광폭이 될 수도 있는. -양계장의 실용적 가치가 천년고목의 그늘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조상 때부터 금해 오던 교목을 겁 없이 작별하다니. 이런 생각도 한다. 사람은 녹음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메마른 산비탈에서 자란 악송같이 된다.

한강은 서로 흐르고 청계천은 동으로 흘러야 수도의 복이 새지 않는다. 그래서 청계천을 뚝섬으로 뚫었다. 남산에는 솔이 푸르고 북악에는 연포지목이 울창하게 솟아야 왕기가 쇠하지 않는다. 앞은 산에는 금잔디가 깔리고, 곳곳에 맑은 물이 흘러야 서울이 고요하다. 성곽은 용처럼 들려있고, 사대문은 웅장하게 서 있고, 궁성과 전각은 성과와 음양 일월을 응하고, 방방곡곡에는 고목이 울창해야 동방의 목기가 생왕한다. 수표교 위 아래 열두 다리로 열두 다방꼴 녹의홍상들이 오락가락 장안의 화기를 돕는다. 사부 뜰에는 짙은 녹음 속에 사진사가 국조를 빌고 있다. 이것은 풍수설이란 허망한 미신에 의해 배포되고, 지켜온 서울이다. 나는 미신이라도 좋다. 산이란 산은 다 깎아 판자집 흙벽 돌집이 마련없이 붙어있고, 전아한 고관의 성곽은 다 변모될 대로 되고, 맑은 샘, 기이한 돌, 흐르는 내,

풍치있던 고목은 자취도 볼 수 없고, 소음과 「다이루」속에서 사는 날카로운 신경이 피로 속에서 자극만으로 살아가는 과학도시 서울에서 생각하면 그 미신의 존엄성이라도 유지 되었다라면 좀 더 손을 덜 대고 유적의 보존이 있고 녹음의 혜택이 있었지나 아니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도 마음도 좀 더 유쾌하지나 아니하였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도 해보는 것이다.

사람은 녹음 속에서 살아야 한다. 녹음은 풍운하고 주락하고 청신하다. 일광에 따라 다채롭고, 새 소리, 매미 소리, 물소리를 짝한다. 예전에 해자가 가축나무(저)가 쓸모 없이 터만 차지하고 용재가 못되는 것을 한탄하는 말을 듣고 장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참 선생은 따분한 분이요. 좀 좋소. 무변광막한 무하유향에 심어만 두면 베어갈 놈도 없으니 지킬 필요도 없고 그 넓고 시원한 푸른 그늘 밑에서 잠을 못 자겠오, 산보를 못 하겠오」 목전의 이보다 원대의 복을 「유」의 실용가치보다 「무」의 무궁가치를 말했다. 장자는 녹음의 덕을 아는 사람이다. 정간곤이란 사람이 회안국왕의 초빙을 받아 남가태수의 영화를 잠시 누려본 것도, 그리고 허무한 인생에서 도를 깨달은 것도 녹음이 우거진 느티나무 밑이 아니었던가. 역시 그리운 것이 녹음이언만 내 마음 속의 녹음은 청춘과 아울러, 점점 잃어가는 메마른 진토만이 끼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필자·보성고등학교교사)

× ×
× ×

제주도 산책



최병규

물동이를 허리가 휘도록 어깨에 질머지고 물을 갖는 아낙네들, 풀을 깎는 농부, 말을 끌고 초원을 헤메이는 목동……이러한 향토적인 모습을 산보 중 흔히 볼 수 있다. 군복을 걸치고 논길 밭길을 홀로 거니는 나를 그네들은 무심코 바라보고 있다. 그 때 나도 무심코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가벼이 던져주면 그네들도 정중하게 나를 대하여 준다. 석양은 서산에 거의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있다. 마지막 낙조는 황홀한 벌판에 그리고 넘실거리는 바다위에 비치이고 초여름의 또 하루는 질어가는 황혼 속에서 살아지는 듯 하다. 나는 어느덧 해변에 다다랐다. 거센 물결은 오늘도 천년 전 그 모습대로 백사장에 넘실거린다. 그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잔디밭 둔덕에는 무덤들이 정답게, 나란히 놓여 있다. 무덤마다 돌로 둘러 쌓여 돌담을 이루고 있다. 돌을 마음껏 구경하려면 이 곳으로 여행 오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온종일 물속에서 자무락질 하다가 해녀들은 저무는 해를 등지고 물속에서 나와 그물망태기에 가득 찬 어물들을 세어보고 있다. 나는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득한 평원으로 눈망울을 굴렀다. 한라산 산마루턱에 이르기 까지 잔디밭으로 평탄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고 돌담으로 이루어진 층계선이 석양에 한층 뚜렷하였다. 한라산은 오늘도 섬 한복판에 우뚝이 솟아 있다. 그 웅장한 봉우리에는 언제나 구름이 자우룩하다. 지팽이를 집고 어깨에 배낭을 짊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다.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상봉을 정복한 자랑과 범벅이 되어 터질듯한 기쁨으로 타오르고 있다.

건너 마을엔 몇 백년이라도 묵은 고목이 몇주 서있고 그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저녁 연기가 뭉게 뭉게 솟아오르고 있다. 집집마다 앞뜰엔 보리단이 쌓여있다. 그것은 이곳 주민들의 알찬 근육을 반영하는 도표다. 풍보리에 된장찌개를 먹는 날이 많더라도 어디에선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농부들의 잠행이는 천연식물로 염색하였다. 옷이 낡아도 염색은 변하지 않는다고 마을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은 일이 새롭다.

이곳 마을 전체는 어딘지 단조로워 보이지만 평화가 깃들여 있다. 나는 이 곳에 정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째 이 마을까지 해질무렵이면 산보를 나왔다.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 있는 모든 것과 친해지고 만 것이다.

나는 발길을 오던 길로 되돌렸다. 주변은 어둑기 시작하여 땅거미가 지고 있다. 저멀리 사원에서는 저녁종이 은은히 들려온다. 아마도 승려는 회색 승복을 두르고 영겁의 순간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불상앞에서 고요히

명상에 잠기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곳 탐라도에 발을 딛기전 폐환으로 계룡산의 어느 조용한 사원에서 안정생활을 하였다. 주지는 새벽 다섯시면 기상하여 세수하고 부처님께 향을 올렸다. 그 때면 주지의 목탁 두드기는 소리와 염불소리에 나도 잠이 깨어 억지로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약수부터 한모금 마시고 그 다음엔 신선한 공기를 담뱃 마시러 산에 올랐다. 이러한 생활을 몇 달하고 낙엽이 질 무렵에 몸이 많이 회복되어 주지와 헤어질 때 주지는 그 인자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나의 손목을 어루만져주던 일이 종소리와 함께 나의 추억을 더듬게 하여 준다.

(필자·공군중위 107기지단근무)

폭군



윤지영

○……겨울은 음울하고 봄은 여성적이고 가을은 감상적이고 여름은…? 폭군적이다. 폭우 폭풍 폭서 폭염…모두가 폭군적이다. 여름은 독선적이고 독존적이며 「네로」나 연산군처럼 독재자인가?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가? 그러나 구태여 이렇게 연역적 논증만을 캐 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여름의 속성이고 녹음이라는 본질을 찾아 거기에 우리 인간이 동화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찾아봄이 어떨까.

○……우리나라에는 야자수는 없지만 야자수가 없다면 감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도 야자수에 빌배없이 좋은 그늘을 만들어 줄 터이니 그 그늘 밑에서 좋아하는 아가씨와 사랑을 속삭인다고 해서 법에 저촉될 것은 없다. 그러한 아가씨가 없다면 혼자서 맥고모자에 코카콜라 한 병과 약주 반대 쥘 가지고 그러한 그늘나무 밑을 찾아가면 비싼 선풍기를 돌려놓고 전기메터를 걱정하느니보다 몇 갑절 신선노름이다. 하필이면 왜? 피서를 가야하고 한강에 가서 경찰의 신세를 저야하는지?

○……생각하면 우리 한국사람은 분명히 좋지 못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 피서라면 반듯이 돈을 써야만 그것이 진짜의 피서인 줄 아는 모양이다. 더우기 피서행을 하나의 멋으로 알고 현대적 생활을 하려면 꼭 피서를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것 같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어야하고 비싼 카메라 같은 것을 올려메야만 격식인 줄 안다. 이것은 더위를 피하러가는 것이 아니고 더위를 맞음가는 격이 아닐까.

○……유독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에게도 일장일단이 있는 것과 같이 계절에도 일장일단이 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여름이 어느 철보다도 남성적인 것 같다. 봄에는 꽃, 가을에는 낙엽, 겨울에는 눈이라면 그 어느 것 보다도 썩성한 녹음은 여름의 상징이요 다소 폭군적이기는 하지마는 그 개방적인 것이 마음에 든다.

○……옛날에는 여름철이 가장 돈이 들지않는 절후라 했다. 현대 요즘의 여름철은 그렇지 않다. 과학이 발달하여 득을 보는것도 많기는 하지만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돈이 들어간다. 얼음으로 만들어 내는 음식의 종류만도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고 이들 음식물이 하나도 보전에 도움 되는 것이 없는데도 비교적 비싼편이다 더욱이 다방 같은 곳에서 파는 소위 냉물이라는 것, 이것을 마신다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 값이야 말로 정히 폭군이다. 그래도 이것을 마셔야 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내변재? 폭군이 아니고서야 이 폭물(?)을 마실것 같지는 않다. 아무래도 여름은 폭군적 계절…….

○……될 수 있는대로 시원 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시원한 냉물을 마시거나 냉수에 자주 뛰어들기 보다는 위생적으로도 낫다. 차운것을 마시거나 차운데 들어가면 마시고 들어갈수록 더욱 더위를 더 느끼게 된다. 가령, 어느 산 기슭 모퉁이를 돌아 숲속 불어오는 바람이 내가 지금 그늘 나무 밑에 나란히 앉아있는 귀여운 그녀의 이마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건드리며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한다 고 생각해 보자.『보세요. ×중위님, 저어기 나룻터를 보세요. 발가벗은 아이들이 벼드리 처럼 머리를 맞대 구……』 그리고 그녀를 상대로 공상을 맛있게 전개한다. 선풍기보다는 몇 갑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상이 여성적이라 하여 「네로」나 연산군의 폭정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위를 느낀다. 의분이나 의협심은 아무래도 몸을 확확달게 하거던…….

(필자·속기사)

매스 · 컴의 자유와 책임



김 봉 기

1. 머리말

근대 사회는 여론정치의 시대요, 동시에 「매스·컴」의 시대라고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근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불가결한 것임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다. 그러기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있고, 드디어는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 언론자유를 명문화하고 학계나 정계 그리고 신문계나를 막론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언론의 자유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뚜렷이 헌법으로 성문화시켜서 이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가 문제되는 것은 법체제상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상의 자유보장 여부가 문제화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매스·컴」의 발달사를 들쳐 볼 적에 먼 옛날에도 그러했거니와 현대에 있어서도 성문화된 법체제상의 자유와 실제로 다스려지고 있는 언론자유와의 관계는 사실상 전연 다른 양상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과거나 현재, 미래에 있어서도 「매스·컴」기관으로서의 미디어(Media)인 신문이 전적으로 정부의 구속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란 있을 수도 없었고 허용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일거거니와 후진성을 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흔히 언론의 자유란 형식화된 성문화시킨 것 뿐이고 정부가 비공식 또는 비합리적 방식으로 이면적인 제재나 탄압 혹은 간섭을 하여 반 구속 또는 통제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산업혁명이후 인쇄문화가 발달되어 인쇄화 된 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했던 초기인 특허 내지 검열제도로서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을 취했던 때는 고사하고 소위 자유주의이론이 발달되고 인정화 된 이후에 있어서도 집권자 내지 집권세력의 작용 여하에 따라서 때로는 탄압 때로는 폐쇄 때로는 조장하는 등 임의로 법을 개정 또는 법을 표면상 인정하는 듯 하면서 이면적인 방해공작을 피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자유의 침해는 평상 안정기에서도 있었으나 흔히 혁명정변, 정권 변동시에 주 작용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문이 사회적 공기역할을 하는 반면 여론의 통합과 조작등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서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서 이 미디어가 가장 본질적인 본분을 다하기에는 첫째,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일면 이에 따른 책임성이 병행하여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신문의 자유와 더불어 책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면에는 오늘과 같은 자유가 허용된 것은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던 일로서 이제 각국의 신문자유화의 역사와 아울러 신문의 자유가 보장된 금일에 있어서 자유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 신문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신문의 책임론을 병행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자유화 이전의 신문

서구나 동양을 막론하고 신문의 자유가 보장 되기전까지는 관권에 봉사하는 「매스·미디어(Media)」역할에 불과했었다.

먼저 창간할 때부터 왕이나 집권자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서약상에 그것도 충성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해서 조건부 발간허가를 했던 것임으로 자유로운 취재는커녕 특히 관에 대한 비판태도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결국 이것은 사회의 공기라기보다 관권에 보사하고 충성되며 왕이나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수단에 따른 부속적인 이용물에 불과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영국같은 곳에서는 「위크리 뉴스」(Weekly News)란 주간신문이 세계최초의 정기간행물로서 발간되었으나 이때에 해외기사만 번역시켜서 게재시키고 국내 뉴스는 국왕의 권리침해란 한계를 지어서 일절 게재시키지 않았던 사례도 있으며 당시 영국 절대주의의 입법, 행정, 사법의 최고기관인 성청(Star Chamber)과 고등법원이 1586년에

최초의 성문법으로서 인쇄조례란 언론출판을 통제하는 법을 공포해서 이 법에 따라 특허제도와 검열제도를 병행적으로 적용시켜서 강력한 통제를 가하는 한편 인지세법과 의회기사취재금지, 정부비해법 등을 제정하고 강렬한 언론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특히 심한 예가 1798년 당시 핏트(Pitt)내각의 언론탄압법률로서 1808년부터 1811년까지 3년간 기소된 언론탄압건수가 42건에 달했었다. 또 것처럼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1690년 최초로 「보스톤」(Boston)이란 신문을 냈으나 단1회 밖에 못 내고 영본국의 탄압으로 폐간되고 말았고 1704년 4월에 다시 「보스톤 뉴스 레터」(Boston News Letter)를 냈으나 반드시 제호밑에 「정부발행」(Published by Authority)이라고 놓지 않으면 안 되겠끔 되었다. 독일에서도 1609년 「레라치온」(Relation)이란 조간과 1660년에 「라이프지히·자이툼」이란 일간지 등 단 두개만의 신문을 「푸룻」에서 허가해서 「뵉헬름」1세의 절대군주치하를 이루고 사실상 독일을 2분하여 농노제도 및 조세제도를 확립하는데 이용하는 이용물에 불과했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865년에 「히꼬」란 해외신문이, 그리고 1868년에 「중외신문」과 「강호신문」이 각각 발전했었으나 명치신정부가 무허가신문이란 이유로 일체의 발행을 금지시키는 등 정부의 절대주의적 권력에 의하여 시민언론이 완전히 탄압되었었고 이와같이 무허가신문이 발행 금지되기까지의 전기한 신문도 역시 번역, 번각 신문역할에 불과했었는데 1869년에 이르러 정부는 민심수습을 위해서 결국 발행허가제와 사후검열제를 전제로 한 신문지인쇄조례를 발표하여 신문발행을 허가하고 제1차적으로 1890년에 황빈매일신문이 일간지로서 등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신문은 1883년에 「의성순보」가 처음 생기고 물론 그전 이조의 선조대에 신문의 시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보」란 것이 있었으나 이것은 국비로 발행되어 관의 테두리속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고 한성순보는 귀족출신의 개화당일파에서 자금을 내서 채국주의를 타파하고 정치적 개화운동의 출발점으로 발간한 것이었으나 역시 논조 필법이 불순운운의 이유로 탄압 또는 습격을 받다가 드디어는 그 이듬해인 1884년 12월 4일에 개화당의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막이 내려지자 수구파들이 사옥을 습격하고 기계 활자까지 불태워 버려 하는 수 없이 관계 측의 책임자들은 해외로 망명하고 신문도 자연 폐간되고 말았는데 물론 기사취재 보도도 자유스럽지 못했었다.

이상과 같이 자유화 이전의 신문은 오직 모두 공통적으로 절대주의의 권력 앞에 억눌리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자유의 권리보다 오히려 맹종의 의무를 다하기에 힘쓴 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자유의 보장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기 까지에는 이르는 동안 여러 가지의 과정과 고초가 있었다. 즉 산업혁명이후 인쇄문화의 발달에서 신문의 체제를 활자화시키게 된 이래 수세기 동안 절대주의권력과 투쟁했다. 또 이 자유쟁취의 투쟁은 세계 어느 지역이고 공통적이었고 그 참여인물도 신문인뿐 아니라 정치가나 사상가나, 교육가나, 문필가나, 시인까지 모두 합류해서 쟁취한 귀중한 소산물인 것이다.

이 자유투쟁의 많은 예 중에서 대표적인 몇 사례를 들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즉 미국에 있어서는 「젠거」(Zenger) 사건이 일대 쟁세이손을 일으켜서 1791년 처음으로 버지니아주 헌법에 신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명문화 했고 미 연방헌법개정시에는 동법 제1조에도 신문의 자유를 보장토록 되어 있었는데 실인 즉 「젠거」(Zenger)란 신문인이 주지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자기신문에 게재보도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투옥까지 하여 결국 재판에서 기사의 증거를 제시할 기회마저 거부당하고 재판장으로 부터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배심판사가 재판장의 명에 역해서 무죄로 선언까지 하고만 중대사건이며 이것이 미국의 신문자유를 보장하는 인식을 구체화시키는데 가장 중대한 모멘트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영국은 「존 밀턴」(J.Milton)이란 시인이 「아레오, 파지티카」(Areo Pagitica)라는 책자에도 신문의 발행허가 및 검열제도의 불합리란 내용을 써서 의회에 항고한 것이 신문자유이념 실현화의 첫 모멘트였고 이 사건이 있는 후 신문탄압이 곧 지식에 대한 제압인 동시에 지식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격이란 인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1771년에는 의회기사보도의 자유가 허용되고 1855년에 인지세가 폐지되고 1949년 이후 왕립신문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ress)의 신문자유에 대한 활동과 더불어 1953년 동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신문총평의회까지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은 산업혁명으로 힘을 얻은 신생 시민계급의 발언권이 커지면서부터 1848년의 시민혁명이 드디어는 헌법상 언론자유를 보장시키기에 이르렀고 그 후 1919년에 와이말 헌법제정시 불국의 인권선언보다도 더 강력한 절대적인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조문을 명백화했던 것이다.

프랑스는 1789년 근대민주주의국가의 제 원리를 선포한 역사적 선언인 인권선언 11조에 언론의 자유보장을 성문화함으로써 1790년에 140개의 신문이 발간했고 1792년에 60개지가 다시 새로이 발행하는 등 언론자유에 따른 신문기업의 자유화가 활발해지게 된 것이다.

일본은 1913년에 헌정옹호운동이 일어나고 이때에 같이 신문의 발행, 기업의 자유화도 떠들여 신문세력은 총집중적으로 자유주의의 승리와 신문을 통한 세론의 위력을 과시해서 결국 1913년 당시 계태랑(桂太郎)내각을 실각케 한 바도 있다. 물론 일본의 언론자유를 쟁취하는 봉화가 이때부터 었으나 1925년에 다시 치안유지법 1937년 내각정보위원회의 설치,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성립 1940년 용지통제위원회의 설치와 1941년 언론취체를 위한 신문지 등 게재 제한회, 국방보안법, 신문 사업회 등의 발효로 일질의 신문의 자유를

제한했었으며 사실상의 일본의 신문자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사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음에 일본식 언론통제가 가하였던 고로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나고 서방의 문명사상과 민주주의의 싹이 트기 시작한 8·15해방 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는 일정한 서식만 갖추고 능력만 있으면 발행허가를 얻어서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자유당집권 중 내면적인 통제가 심하였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신문자유화의 관념이 실현화되기 시작한 것은 어땠던 8·15후라고 볼 수 있겠다.

4. 신문의 책임

신문제작은 권위주의이론과 자유주의이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론과 소비에트전체주의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소비에트전체주의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오직 당이나 정부가 짜여진 정책을 강행해 나가기 위해서 신문을 구속통제하고 전적으로 동원해서 정책집행의 한 무기로서 이용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성이 허용된 신문과 비교하는데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이론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 이행되었던 이론으로서 이는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에 통용되었던 논법으로서 신문발행자체가 왕의 특허를 받아야 했고 정부를 지지하고 권력에 봉사하며 정부나 관료의 비판을 일체 불허했던 것이다.

다음 자유주의이론이 즉 1688년 영국에서부터 보급이 되어 미국 등 각 민주우방국가에 확대되기 시작했던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 이론은 신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론인 동시에 현재 자유세계에서 거의 통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즉 이 이론에 따라 신문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신문을 발행할 수가 있고 취재도 자유롭게 하며 신문이 입법, 사법, 행정등 다른 3부와 함께 같은 4부로서의 위치에서 정부를 견제 또는 비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론은 자유이론발달이후 이 자유이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문의 무제한한 자유와 신문의 무책임한 언론호포같은데서 초래되는 사회악을 저지하고 신문이 지닌 자유를 본분 그대로 지켜서 언론창달과 아울러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목적으로 가장 새로운 근래에 생긴 신 이론인 것이다. 즉 이 사회적 책임이론은 1944년 전 미국의 시카고대학총장인 로버트 하칭스교수(Robert. n. Hachings)에 의해서 신문의 자유문제를 연구조사하고 순수한 언론창달을 위한 민간운동으로 발족한 『신문자유위원회』(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가 3년간에 걸쳐 연구조사한 결과를 심중히 심의분석한 끝에 신문의 자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신문의 책임이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서 1946년 12월 『신문의 사회적 책임이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을 제의해서 이이론이 신문의 자유가 허용된 자유진영 각국에 보급 강조하고 있는 바 이 위원회의 멤버는 전기 하칭스교수이외에 하버드대학의 『체피』(Cheffe)교수와 『허킹스』(Hachings)교수 및 『젠거』교수, 콜롬비아대학의 『구라-그』교수등 13명의 정치학, 철학 법률학, 경제학, 역사학계의 제1인자급 들이 총망라되어 있고 현업신문인은 당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책임이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사의 공정, 정확성과 공중의사결정상의 충분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기여하는 책임성인 것이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되는 일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한 어느 개인이나 기관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자유의 권제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붓대를 흔들면서 사실과 상이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존귀한 명예를 훼손함도 무방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쳐도 관계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신문의 자유보장은 개개인의 기본권의 존중과 보장의 확립사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서부터 작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신문이라고 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유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시에 자유라는 것은 도덕과 양심의 한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이나 신문의 자유는 국가의 안녕질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스스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불가결한 문제이다. 고로 이와 같은 무한정한 자유의 관념에서 벗어내기 쉬운 모든 폐단을 방지하고 또 그로부터 자아낼 우려가 있는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오늘날 신문의 사회적 이론이 새로이 강조되는 것인 것을 거듭 납득해야 될 줄로 안다.

따라서 오늘날 P를 비롯해서 자유진영의 각국별로 신문의 자율적인 통제를 목적 코 신문논리위원회 신문평의회등을 구성해서 관의 타율적인 통제를 피하고 자유화를 누리려는 것도 이러한 신문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이론을 병행적으로 다 함께 이룩하자는 데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코리언 리퍼블릭 전문이사)

◇ 여론은 말하자면 여왕, 폭력은 세계의 폭군	-빠스칼-
◇ 여론은 사회의 지력이 일반의 감정에 움직이어 얻는 혼화물이다.	-디즈렐리-
◇ 여론은 무기를 안 가진 천하무적	-나폴레옹-

☆ 군내현상논문 입선작 <가작>

우리들이 가는 길 (하)

- 국군장병이 수행해야할 민주국가건설 -



소령 신중우
〈공군대학 학술연구부〉

현대전의 양상이 재래식 전쟁체제로부터 핵전쟁체제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무기 아닌 사람인 까닭에 장비와 화력의 우월성만이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강력한 적대의식과 감투정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방에 임하는 군인의 심적태도는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의에 바르고 용감하여야 한다.

국토방위라면 곧 공산괴뢰의 침략에 대한 방위를 의미할 정도로 한국의 현정세는 적구공산도당들의 위협하에 전전공궁한 상태에 놓여 있다. 6·25와 같은 무력남침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괴뢰와 소련, 중공의 공산도당들은 그들의 세계적화를 목표로 침략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들은 휴전 이래 오직 무력증강에 광분하였기에 공군력만 하더라도 수적으로 우리보다 우세하다. 이와 같은 그들의 침략적 야욕으로 우리는 부득이 다른 신형무기를 입수하여 그들보다 화력의 우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미국에 군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괴뢰들의 침략수단은 무력만이 아니다. 그들 특유한 전술인 간접침략을 통하여 교묘하게 우리들의 내부를 교란하고 멸망시키려 든다. 어찌 이 간계에 넘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군부내 또는 군민상호간의 친선과 단결을 두터이 하고 소위 그들의 평화통일을 가장한 성명에 유혹됨이 없어야 하며 일체의 용공적 태도와 군기밀의 누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 4월 16일 미국하원외교위원회에서 밝혀진 극동지역에 대한 군사원조계획안에 의하면 극동에서는 수위인 28,000만불의 군원이 한국에 배정되어 있다. 이토록 미국이 공산침략으로부터의 한국방어를 중대시하고 있음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우리의 국토를 노리는 또 하나의 적이 있다면 그는 곧 전과자인 간국 일본일 것이다. 장시일에 걸친 한일회담도 성의없는 그들의 태도로 이미 본궤도에서 이탈된지 오래이다. 그들은 일제때 약탈한 것이나 착취한 것을 정당히 돌려 주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독도를 탐내고 평화선을 어로선으로서만 착각하고 있다. 일본은 소위 중립적태도에 입각하여 눈에 거슬릴 정도로 친공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일본을 가되 한국을 지나서 가는』「크레트린」의 적화전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일본의 침입을 저지할뿐만 아니라 일본을 중계점으로 삼아 침투해 오는 공산침략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소위 조련계를 통하는 간 간첩의 침투가 동서해안과 휴전선을 넘어 오는 그것에 비하여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음은 우리들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우리들 국군은 군의 명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한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강토와 문화를 공산도당이나 기타 여하한 침략자들에게도 또 다시 더러운 발길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위에서 필자는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하였고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공산도비와 아직도 회의적인 일본의 태도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국토방위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그 참뜻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무릇 국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국민 각자가 건전한 민주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확실히 그 사회는 안전한 사회이며 내적인 일부독소로 인한 병폐나 외적의 침입에 대하여 강한 저항력을 지니게 된다. 결국 국민자체가 강력한 방위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우리들의 사명이 종래의 개념인 소극적인 국토방위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으로서의 국토방위 즉 실질적으로 국토를 견고히 하여 여하한 외적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국가로 육성시킴으로서 진실한 의미의 방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들의 사명은 사회의 발전을 도우면서 국토방위에 완벽을 기하는 데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국토방위의 궁극의 목적이 그 나라 사회의 안전에 있고 그 사회의 발전은 사회의 안전이 전제가 되어야 함으로 국토의 방위는 곧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사회발전은 국토의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참된 민주주의정치를 실현하려 하고 자주적인 경제체제를 확립하려 하며 국가기관의 순결성과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조성발전시키려는 정부당국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반공은 자유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과제이다. 오늘날 공산마수가 뻗치는 곳은 어디나 고민과 불안 그리고 혼란이 일어난다.

실제적인 반공이 형식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는거나 마찬가지로 그 체제의 정비만으로서도 족하지 않다. 물심양면으로 자치능력을 키워 공산주의 온상화를 방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이비 반공운동을 전개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반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반공에 대한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어떠한 침략적 야욕이라도 적시에 분쇄해 버릴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국군장병이 오로지 매진하여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며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만이 참된 국가의 간성이 되고 국민의 사표가 되는 것이다.

4. 자립경제건설에 기여하는 길

민주국가건설은 서구의 선진 국가들이 그러하였듯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평탄한 과정을 밟는 것도 아니다. 수세기에 걸쳐 일어난 구라파의 종교혁명, 정치혁명, 산업혁명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의 혁명도 장기적인 경제개발과 인간개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위의 두 가지 요건과 밀접하게 유대를 맺어 나갈 때 비로서 성취되고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성 내지 민족성의 개조 또한 안전 된 경제생활이 전제가 되어야 함으로 민주국가건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경제개발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한지는 이미 오래이다. 자유당정부와 민주당정부가 공통적으로 세운 바 있었다. 오늘날 혁명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재건국민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혁명공약에 명시된 바 있는『구약과 병폐를 일소』하고『빈곤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케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인 것이다. 혁명 주동체인 우리들이 정부의 시책을 적극 호응하였으며 또 앞으로 계속 조력해야 할 것은 소극적인 협의의 국토방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저개발국가군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목표와 애로가 산업의 근대화를 위한 공업화와 그 공업화를 달성시키기 위한 재원의 확보이다. 우리의 경우 전력, 석탄등「에너지」공급원의 확보, 농업생산력의 증대, 기간산업의 확충과 유희자원의 활용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보면 5개년간에 32,115억원이 소요하게 되는데 외자가 27.8% 내자가 72.2%로 되어 있고 재원별로 보면 실질적인 정부재원이 55%, 순수 민간재원이 45%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연 외자와 내자가 그토록 확보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자본 조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와 추진은 관계 주무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들 국민 된 입장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 군인 된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떠한 면일 것인가 또 어떻게하여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는 제 자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자본화를 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군대 내에 있어서 군의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에있어서 유희수송력, 공병력, 노동력과 기술병을 최대한으로 화용하고 장병 개개인의 낭비와 사치 및 허식을 버려 공사를 막론하고 절약하여 내핍과 저축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면 확실히 부족한 재원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희망이 서게 된다. 군의 인력과 기동력 그리고 예산절약 저축으로 인한 재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원조당국인 미국의 원조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장병들이 하나같이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단결함으로서 비로소 집단적인 강대한 역량이 발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는 전후방근무를 막론하고 말단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봉사정신을 높이며 군 당국의 고도한 통솔력과 이에 따르는 효율적인 군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와 같은 방안은 실제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채택되어 1962년 3월 25일에는 군 예비역장교와 일부보충요원 2,912명이 동원되어 국토건설단에 제1진으로 편입되어 정읍 부산, 진천등지에 파견되었고 군의 일부 공병단이 국토건설에 임하게 되고 육군 제50예비사단에서는 제대장병을 위한 농촌재건지도 교육을 양어, 온상재배, 농장 관리 등 다방면에 걸쳐 실시 하고있다. 예년 실시하는 농번기 휴가제로 농업생산을 도움고 이밖에 도 매일 장교 봉급에서 계급호봉에따라 균일적으로 저급하여 민간자본

육성을 도울고 있으며 「군에 복무중인 기술병중에서 필요한 자를 군인신분으로 국영기업체나 각종 연구소에 파견 근무케 하라」는 지난 2월 20일 국립지질조사소 시찰 석상에서의 박의장의 지시등은 건설을 위한 시책이 실시되고 있는 중좌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와 같은 후진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약 30년전 미국에서는 「프랭크 린·루즈벨트」씨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백일만에 불경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종의 국토건설단인 민간관리단(Civil conservation corps)를 창설하였고 상이용사, 재향군인, 실업자등 약 200만의 청년을 동원하여 1933년에서 1941년까지 3억 그루의 나무와 45,000군데의 교량을 건설하는 등 여러 가지 건설 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였고 건강과 기술을 얻게 하였다. 이들은 현역과 마찬가지로 캠프생활에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육군2등병의 봉급과 같은 취포리 만한 수입과 지급되는 피복 밖에는 없었다고 한다.

서구에서도 이름 높은 「스위스」나 「스웨덴」 영국 같은 데서는 일찍이 내핍생활을 통한 풍풍의 저축으로 거대한 민족자본을 형성하였고 자본의 형성은 수입의 증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러 일으켜 오늘의 낙원을 형성한 것이다.

이토록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국민이 국가비상적 또는 빈곤에서 허덕일적에 모두 단합한 결과 국운을 바로 잡았거늘 하물며 다난한 혁명기에 처하여 방종하는자 그 누가 있겠는가? 군수물자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며 사자에 유용하는 자는 없는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주색과 오락에 지나친 낭비를 하는 자는 없는가? 안전제 일주의, 적당주의로 임무를 소홀히 하는 자는 없는가? 이토록 우리들 가운데 만의 하나라도 그와 같은 자각없는 행동을 하는자가 있다면 나와니 그리고 우리들의 장교를 위하여 맹성할 단계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는가?

이상은 경제개발에 관하여 군대내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외국의 전례를 들어 보았고 군대내에서 불식을 요하는 우려되는 악습의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국가비상시에 처하여 국군이 수행해야 할 자체내의 자립 경제를 지향하는 대책이란 위에 열거한 것만이 아니다. 이밖에도 관리 운영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항은 상당히 있다. 그 가운데에도 가장 긴요한 문제는 인사, 군수, 경리, 시설, 조변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내지 통제이다. 구악과 병폐의 요소가 되었던 병사업무와 군인처우문제의 개선을 보아 인사관리운영의 획기적인 향상을 보았지만 아직도 ① 인력관리의 개선과 ② 효율적인 군수기관제도의 확립 ③ 경리군기의 확립 ④ 영구시설 및 관리의 합리화, 유휴재산의 처리 ⑤ 군조달기구의 정비 ⑥ 엄격한 예산집행 실정검토에 의한 예산통제등 우리들이 경제개발 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협조하는 길은 많다 할 것이다.

이제 항공기 보기의 기지수리에 의하여 군원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겠다. 한국이 보유하고있는 항공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다. 기종 F-86F기의 부분품이 ○○○○품목 이나 되니 다른 종류의 것을 합하면 상당수의 품목이 될 것이다. 이들은 한 개에 1센트짜리서 부터 수 만불 하는 부분품 보기까지 있다. 수년전만 해도 고장만 나면 미국에서 신품을 도입하여 쓰던 부분품을 점차 기지에서 수리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지의 경우 1년간의 발전기 수리 실적이 34개였는데 발전기 현대의 원가가 1,200불 정도이니 수리품을 신품가격의 반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600불이 절약되는 셈이며 34개에 20,400불을 절약한 것이 된다.

현행의 기지 수리란 초보단계이므로 앞으로 대규모로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절약된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바로 우리 곁에서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150마일 휴전선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경제실정으로 보아 군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중한 것만은 사실인즉 국가재정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방비와 경제건설의 균형적인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당국의 시책에 호응하여 가일층 절약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우리가 근대화에 있어서 뒤떨어졌음은 사실이다. 산업에 있어서 그렇고 생활이 그렇고 사고방식마저 그렇다. 이것은 이렇다 할 근대화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봉건국가에서 현대국가로 비약한 까닭에 그렇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필자는 후진적인 입장에서 한국을 구출하기 위하여 몇 가지 면에 관해서 논하여 왔다. 그것은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고 국가사회의 안녕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인간성 개조에 관해서 약간이나마 고찰하고 이들이 민주국가건설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마지막으로 논하겠다.

우리들의 인간성은 다른 어떠한 국가의 민족성보다도 다른 점이 현저한 모양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자연환경의 영향력을 받았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인은 권위주의 적이며 아침하고 모함하며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고 허례 허식적이라 한다. 또한 감투, 족보, 토경비결을 존귀하게 여기고 의타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이 있겠지만 여기서 알뜰 보기에 권력적인 지배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직감되고 대부분의 특징이 무식과 빈곤 그리고 폐쇄적인 태도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봉건적인 권력구조에서 그러한 성품이 생긴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러한 원인은 민주적 생활을 원활히 하고 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는데 본질적인 사실이 된것임에 틀림 없다. 민주주의적 인간형이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며 책임을 느끼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생활양식이 된다는 것과 의를 추구한다는 사회인으로서 갖는 미덕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상실케 하고 실용과 지성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인은 오랜 봉건적 생활에서 비개방적 독선적 기질을 갖게 되었고 빈곤한 생활과 피지배적인 입장으로 열등감과 욕구불만에 사로잡혀 한국인으로서의 자각을 잃게 되고 따라서 선진국가의 문화를 모방만 하고 관념적으로 이식하는 피상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체의 전통마저 상실하게 될 우려가 깊어졌던 것이다.

봉건사회의 권력층인 양반계급의 압정으로 인하여 아침하는 습성이 생기게 되고 권력층도 그 상위층의 권세로 아침을 배웠던 것이다. 그들에 아침만 하면 정당한 노력 없이도 의식이 해결되기 때문에, 또한 권력층은 그대로 용이하게 생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게으른 습관이 생겼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개인 또는 당파와 문벌만을 위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관속이라 한들 공복의식이 생길 리 없었고 공중도덕은 싹트지 않았다. 근대에 이르러서도 반봉건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우리들의 인간성은 역시 그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8·15해방 후에도 파쟁은 여전하였으며 공중도덕은 이름만으로 충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였다.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도입하였어도 속살 없는 겉치장만을 그럴싸하고 번지레하게 꾸며 현대인 인체 넘새만 풍기며 형식적이고 무질서한 민주생활만을 영위하여 왔다. 우리의 인간성은 빈곤과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개조하기 어려울 것이며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폐쇄적인 성향을 제거 또는 개방하기 전에는 바람직한 준법정신과 사회성은 싹트지 않을 것이다. 이것과는 반대로 우리들의 민족성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정된 사회질서를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거족적으로 우리의 민족성을 개조하기 위한 재건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시기인 것이다. 우리들 군인은 이러한 뜻 깊은 전환기에 처하여 대중적 계몽과 범사회적 훈련에 자진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대 내에서도 인간성 개조를 위한 운동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일반사회인에 비하여 확실히 장병들의 품성이 민주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이 개선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려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니 이제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들어 보겠다. ① 상관의 권위주의적 경향, 그 경향에서 오는 권력의 남용, 이에 대한 하급자의 아부 ② 상하급자간의 비개방적인 분위기, 공식적인 입장을 떠나서의 상호간의 협조정신 희박 ③ 상급자 자신의 규정위반 ④ 회의시 하급자의 의사 경시 ⑤ 출신별 파벌조성 ⑥ 선진국 것의 무조건 모방 등이다. 군대사회에 있어서 개개인의 성품을 개선하려 할 때는 특히 상급자로부터 시범을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군대조직이나 우리나라 역사적 견지에서 그 까닭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우리나라 민족성의 개조는 기형적인 발달과정을 밟은 우리들의 인간성이기 때문에 선진 민주국가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와 과정을 꼭 밟으며 개조되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형태는 여하간에 우리들의 인간성이 참된 한국의 민주주의정치를 받아 드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고 경제개발계획이 성공리에 달성하여 국민들의 경제생활수준이 높아지며 올바른 민주제도를 세우게 될 때 우리들이 갈망하는 민주국가는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성을 개조하는 것이나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개발이란 그리 가까운 장래에 기대할 수 없는 것,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와 생활보장을 통한 평등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분발.....아이작크·뉴턴은 영국의 한 가난한 늑가에 태어났다. 그가 자라난 마을에는 맑은 강물이 가까운 산에서부터 흘러내렸고 왼편 기슭에는 조그만 골자기가 있어 마치 수정을 녹여 놓은 듯 맑은 샘이 솟고 있었다.

뉴턴은 유복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흠어머니 손에 자라났다.

그는 소년시절에 체격도 작고 허약하였으며 국민학교에서의 성적은 나쁜편이었다. 어느 날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무슨 언쟁 끝에 그를 크게 모욕했다.

그는 이 모욕감을 참지 못했다. 그는 결심했다. 어디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체력으로나 학력으로나 그를 능가하고 말겠다고. 그리하여 그는 더욱 분발한 결과 우수한 학생이 되었고 후에는 지구의 인력까지 발견한 원인이 되었다.

◇노력.....농부 존·히스코트가 레이스를 짜는 기계를 발명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을 때였다.

일찍부터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빌며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남편을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던 아내는 어느 날 남편 히스코트를 향해 물었다.

『여보, 기계가 쓸 만하게 되었어요』

『아직 쓸 수 없소.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참이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의 괴로운 심정을 생각하여 애처로운 마음에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러나 그 후 십 여일이 지나서 히스코트는 희색이 가득 찬 표정으로 그물을 짠 레이스를 아내에게 보여 주었다. 여태껏 노력해 온 정성이 드디어 결실한 것이다.

마치 사람의 손으로 짠 듯 기계의 손을 빌어 대량으로 교묘히 짜내는 이 발명품도 처음에는 신발명에 흔히 있는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두뇌가 우수한 그는 드디어 입신출세의 길을 열어 이천명의 직공을 거느리게 된 것이다.



전 쟁 과 항 공 기

항 공
역 사

〈항공 발달사〉④
K·나이트

국제정세라는 새로운 요소가 이제야 항공기의 발달에 박차를 가하였다. 구라파 각국의 정부는 군사적 이점에 착목하여 비행기 발달의 장래를 시작했다. 이미 「샤뉴드」가 지적한 것처럼 하늘로 번지는 전쟁이 된다면 「적진을 탐색하고 그 방위선을 확인 한다」등, 정찰목적에 비행기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구라파의 전쟁참전국들은 현재의 수준으로 본다면 물론 형편없는 숫자 이기는 하지마는 비행가능의 여러 가지 비행기를 끌어 모아서 조그마한 공군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에는 절대 필요하다는 견지 하에 비용을 도외시하고 구라파의 모든 지능을 총동원해서 비행기 만들기에 전력을 경주했다.

전쟁에서 대서양을 건너 떨어져 있는 미국의 항공공업은 이 때 구라파에 비해서 그 수준이 뒤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곡예비행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린캉·피·치는 고도기록을 깨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위를 날으는가 하면 교량의 밑을 날고 공중에서 덕수를 넘어서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찰라·프리스·로자스는 미국 대륙횡단을 단행하였는데 이것은 무모하여 49일을 소요하는 모험적 실험이기도 했다. 아루·오빈톤은 낫소·부루발에서 룡그·아이란드의 「미네오라」까지 5마일 거리를 처음으로 항공우편을 개시, 후랑크·코핀은 뉴욕의 이스트·리바에 걸려있는 모든 다리의 밑을 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 군부는 전연 등한시하고 있었다. 일부 식자층으로 부터 미국 공군창설의 열렬한 요망이 있었으나 전쟁은 곧 그칠 것이니 두고 보자는 태도였다. 1914년의 해군소속기는 9기, 육군은 17기, 육군비행대는 모두가 사관 23명 하사관병 91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 사태는 긴박하여 두고 보자는 견해는 완전히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행기의 역사에서는 라이트 형제의 1년1년 쌓아올린 업적을 12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무명에서 일약 호레이슨·알제(미국 아동문학자 1834-99)처럼 총아가 되고 한편 색다른 착상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일종의 자랑을 느끼기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최초로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라이트형제의 이같은 업적을 의심하는 소리가 미국의 랑그레교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랑그레복좌단엽기(複座單葉機)를 스미소니양 박물관에 진열하고 「사람이 타는 비행기로서 자유로이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것」이라는 설명을 붙여서 랑그레가 라이트 형제에게 앞섰다고 시사하였다.

이 유명한 설명서는 라이트 형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임은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도 이의가 없음을 들어서 강력히 옹호하였다. 1914년 제1차 대전 종결 후, 왕립비행병단의 7권에 이르는 공식기록의 첫 권이 「윌타·로레이」에 의해서 집필되었는데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914년 8월,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행하여 자유국가로서의 자국의 존립을 위기로 몰아넣는 모험을 하려 하였다……. 그런데 항공기를 가지는 가능성은 짐작할 수가 없다. 라이트 형제가 동력을 부친 비행기로서 최초의 공중비행을 행한 1903년 12월 17일의 비행은 세계사상 신기원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1903년에서 대전이 폭발한 1914년까지 11년간에 항공기의 진보는 이리저리 옆길을 걷기도 했지만 급속한 발달을 보였다. 1914년까지에 수종의 단엽기와 복엽기가 발달하였고 회전 액냉(液冷) 및 공냉식(空冷式) 엔진을 동력으로 한 추진형 비행기와 견인 형 비행기가 있어서 어느것이나 제각기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의 4개년간은 군부의 긴급요구에 의해서 속도와 설계의 진보에 눈부신 발달을 보였다. 각국 정부는 민간의 부유한 비행기 호사가로서 자금의 곤난을 받는 발명가의 사업을 인계받아 군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거액의 자금과 최고의 두뇌를 집중시켰다.

1912년까지 독일은 비행기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뒤지고 있었으나 얼마 후 프랑스가 전쟁에 많은 비행기를 동원하여 착탄거리의 관측이며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알자 즉시 비밀리에 국산기의 생산에 착수하였다. 1914년까지에 독일은 츠에츠베린



사상최초로 공습을 한 독일의 타우베기

병기로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온 육해군 장교들과 싸워야만 했다. 싸우고 싸워서 간신히 왕립 비행병단을 편성한 것이 1912년이였다.

그런데 대전 처음, 수주간에 영국 정규군의 일대가 프랑스 동맹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진격하는 독일군의 태세를 영국 왕립비행병단 전 4비행중대가 확연히 정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부터 군부에서는 비행기의 전력적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한사람도 없게 되었다. 「몬스」에서 영국군이 철퇴할 때에는 악천후에 지상포화를 무릅쓰고 비행하였고 밤에도 갑자기 만든 어설픈 비행장에서 출격하는가 하면 왕립비행병단은 거의 시간마다 적의 동향을 육군 참모본부에 보고하여 고급장교들로부터 가치를 재인식케 하였다.

프랑스 공군도 영국과 같은 많은 시련을 받았다. 단지 다른 점은 새삼스러이 비행기의 가치를 사령관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다.

대전 초기에는 비행기의 속도에는 그다지 큰 관심거리는 아니었다. 병력 이동상황이며 착탄거리의 관측 등에는 오히려 느린 속도가 좋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비행사들 끼리 총이며 자동 피스톨을 서로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등 상대방의 항공 활동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정되었다. 처음에는 전방에 방해물이 없는 발사 총을 장비한 추진형 비행기가 환영을 받았으나 등속사격장치가 속도적으로 우수한 견인식 비행기에 장치되자 기관총화가 푸로페라의 회전축 사이로부터 일정 속도로 사격되기 때문에 추진식 비행기는 야간 폭격용으로 이용되고 훈련용 등으로 격이 낮아지고 말았다. 등속발사장치는 1915년 연말경에 포획된 독일제 폭카단엽기에 처음으로 실용적인 것이 발견되어 연합군은 재빨리 모방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실전에 비행기가 사용되고 필요를 느낄 때마다 새로운 발명이 생겨났다. 항공사진은 지상군에 있어서 특히 신속한 작전이 끝나고 참호를 사이에 둔 교착상태 전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적의 상황이며 포대의 방향등을 알리는 항공사진이며 정찰기 조종사의 정보수집의 착안점, 기술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설비를 음폐하는 정공한 위장 방법이 연구 발달되었다. 마크베스, 바남·우드 시대로부터 위장은 전쟁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새로이 항공기가 출현하자 더욱 발달하였다.

화살처럼 날며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불안정한 비행기에서 기관총으로 표적을 정확히 사격한다는 것은 처음은 여간 어려운 노릇이 아니었다. 얼마 후 이 문제는 발사되는 탄도 영광탄을 사용하고 착탄을 조종사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 되었다.

양군의 전투부대의 비행기는 기관총을 장비하고 공중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명확해지자 조종사들은 마침내 독일 군이 고안한 V자형 편대비행이 안전함을 알게 되었다.

제1차대전 때 갑자기 유명해진 말로 「에이스」라는 칭호가 있다. 이것은 적기를 5대 이상 격추시킨 비행사를 뜻한다. 육군이나 해군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은 없으며 공군에서는 오늘도 이 칭호 「하늘의 영웅」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프랑스공군「에스카를」SM-23형기를 조종한 「로오란·가로」는 연합군 비행사로서 최초로 이 칭호를 가지게 된 용사일 것이다. 그러나 1915년 4월에 독일군의 포로가 된지 얼마 안되어 그와 동등한 전공을 세운 조종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태리, 독일 등 몇백 명의 「이스즈」가 나타났다. 「가로」는 대전 개시 이전에 오랜동안 비행사로서 경험을 가졌고 비행경회화가 있으면 어디에나 나타나서는 입상을 하였다. 여러나라 에서 시범비행을 하였고 미국에는 1911년에 방문하였고 전시동원이 개시 되었을 무렵에는 독일에 있었다. 그는 곧 전시의 항공임무에 참가하기 위하여 파리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들 초기의 비행기들은 곧 새로운 전투용 비행대를 편성하였다. 급격히 공군을 증강할 필요가 있었고 또 손실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애국심을 가진과 동시에 비행의 흥분과 매력을 가지는 용감한 청년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또 그러한 청년들은 때를 지어 모여들었다. 전투 군용기에는 빠른 재치와 시력이 좋고 기력이 왕성한 청년을 필요로 하며 육군에서는 어느 부대에서나 청년들이 비행기대로 전근하겠다는 사람이 속출하여 상관을 골머리를 앓게하였다. 학교를 갓나온 하사관 병들은 열심히 비행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원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각국 공군은 젊은 청년들이 넘쳐나서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갔다. 노년병들은 노년답게 그것을 즐겁게 바라보았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눈치로 보였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참모본부에서는 공군의 너무나 급작스러운 확장에 놀라기도 하였다. 포병대며 육군의 사람들이 공군을 부러워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상부대는 참호 속에서 음울한 기분으로 위험을 무릎쓰고 있는데 공군들은 하늘 높이 날라서는 자랑스러운 기술을 보이고 한 달의 임무가 끝나면 비교적 좋은 위안이 있고 맛있는 식사, 좋은 잠자리와 휴식이 있다고 일반은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전통적으로 시대에 뒤졌다는 것을 알게 된 영국은 군사면에서도 기민하게 왕립비행병단에도 독립된 장을 두기로 하였다. 각 비행중대는 정도의 차는 있으나 중대장을 임명하였다. 만약 대장이 의지강고하고 신뢰되는 인격이라면 그가 통솔하는 중대도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보통이지마는 다른데서 온 고급장교 출신의 중대장은 근무시간외에 중대의 식탁에서 어린애같은 장난을 함으로써 때때로 깜짝 놀라게 하였다. 부하들의 심명풀이로서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가요, 허지만 급강하, 총격급상승, 지상 수 마일의 상공에서 난전을 연출하고 대공포화 속을 무사히 생존한 그들 젊은이들에게는 실내에서의 그러한 장난이 최상의 안전번인 결요』

알바트·볼 대위는 1919년 5월, 독일의 리히트호펜 남작으로 부터 만 21세가 되기 직전에 격추되었지만 최초의 가장 우수한 영국의 하늘의 용사였다. 그가 육군연대로 부터 비행대로 접근한 것은 1915년 겨울이었다. 그는 프랑스로 즉시 파견되었다. 작은 몸집에 여윈 편인 그는 그러나 패기가 있는 청년이었으며 비행 조종사로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처럼 정확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천후에도 출격하여 단독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적기에는 상대가 편대인든 아니든 돌진하였다. 그는 귀신과 같은 사격의 명수였다. 43기를 격추한 기록을 가지고 전사 하였을 때 빅토리아 십자장 수훈장과 전공 십자장등 최고의 영예를 받았다.

동년배로 캐나다의 윌리엄·A·비쇼프는 알바트·볼 대위가 인솔하는 비행중대에 이 위대한 하늘의 용사가 전사한 2개월 전에 참가하였다. 이해 3월 25일, 비쇼프는 비로소 적기를 격추하였는데 같은 날 리히트호펜의 31기체의 격추기록이 만들어졌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 캐나다인과 독일인은 서로 비슷한 훈련을 받았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한 일이 있었고 최초는 기병대대에 배속되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공군의 관측자로서 참가하였고 그 뒤 조종연습을 받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그들은 다 같이 우수한 발군의 조종사로서 그 사격술도 비슷하여 조종기술은 그들의 사격기술이 너무나 뛰어난 바람에 오히려 희미해지고 말았다. 비쇼프의 정확무비한 사격은 전광처럼 빨라서 귀신과 같았다. 다른 조종사가 천후가 나빠서 날으지 않는 날에도 그는 애기 「뉴볼」단좌기에 올라 빈 강통을 높은데서 던지고는 기관총으로 멋있게 쏘아 보이곤 하였다. 이 같은 연습으로 그의 사격기술은 날로 우수해져서 대전말기까지에 격추한 적기는 80에 가까워 영국 제일의 하늘의 용사가 되었다.

한편 리히트호펜은 독일군에서 80기 격추의 기록을 자랑하였는데 1918년 4월 21일, 지상 가까이 영국기를 공격 중 캐나다인 로이·부라운 대위의 기습으로 추락 전사하였다.

공중전에 있어서 기습공격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경험이 미숙한 조종사들은 하늘이 무한히 넓고 2천 피트 이상을 날고 있기 때문에 접근해 오는 비행기는 곧 발견될 것 같이 생각하였지만 추격기는 교묘하게 높은 곳에서 태양의 반사, 또는 구름 사이를 이용하여 급강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일 찻 속기가 쉽다. 좀 둔한 조종사는 뒤에서 적기가 기관총을 쏘아 총알이 기체에 박힌 다음에야 비로소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아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공격에서 반격에 가하는 전법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최초의 독일의 하늘의 용사였던 「맑스·인메루만」이다. 기습의 최초의 총소리를 듣자 덕수를 넘는 듯 급강하여 원편으로 반전한다. 이리하여 고도를 충분히 잡고는 방향을 역전해서 반격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 「인메루만」선회법은 곧 각국의 비행사들이 사용하여 위기에서 많은 생명을 구해 내었다.

대다수의 군용비행사들은 얼마 후, 특정한 국적의 비행사가 들어나게 비행기술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공중전은 각국이 모두 대등할 만치 발달하였고 새로운 공격법이며 방어법이 완성됨에 따라 매월 그것이 달라져 갔다. 또 이에 따라 비행기도 급속히 변화해 갔다. 전투기의 무장이며 속도등 우수하고 보다 행동성이 풍부한 신형기를 생산하여도 그동안에 적국은 보다 우수한 신형기를 만들어 어느새 구식화 되고 마는 것이다.

회전식 엔진을 장치한 프랑스의 뉴·볼 비행기는 얼마후 액랭식 히스파노·스이자제 엔진을 장비하고 속도도 장갑도 우수하며 비익카스 기관총 2정을 가진 스파드 비행기로 바뀌어졌다. 1917년까지에 영국에서는 모두 비익카스 병렬 기총을 장비한 SE5형과 소프·위이즈·카멜논의 2종의 우수한 전투기가 발달하였다. 전쟁초기



후랑크·류우크는 17일간에 곤난한 기구 격추를 14회나 행하여 기구격추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떠나서까지 연합군의 공군에 참가하였다. 영국 왕립비행병단은 그들을 즐거이 받아들였고 프랑스에서는 미국인만의 비행중대 「라파이에트」비행대의 창설이 장려되어 1916년 3월에 활동을 개시 하였다. 이 「라파이에트」비행대의 초기의 대원이었던 윌리엄·S·노만·프리스, 킷펜·록큰웰, 에리웃트·코오진, 제임스·노만·홀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인들은 프랑스의 외인부대에 계속 근무하여 비행훈련을 받은 뒤 모두 결출한 연합군의 비행사가 되었다.

1917년까지에 미국정부는 자유의 입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몇천 명의 비행훈련을 본국에서, 일부는 영국, 이태리, 프랑스등 각국에서 대규모로 실시하는 한편 비행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국 국산 신예기를 완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구라파의 공중전에 참가한 미국전투기 분견대는 소수의 미국제의 영국설계를 모방한 「데·하비랜드」4형기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도 정찰용이나 폭격용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 육군 비행사들이 사용한 고속전투기는 모두 프랑스나 영국의 비행기였다.

그러나 미국 육해군의 비행사들은 참전에 뒤졌으나 중요한 시간에 그들이 끼친 공헌은 전국의 결정적 요소가 되어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 오게 하였다.

미국 공군장교 중에서 가장 이름을 떨친 사람은 정력적이고 선견지명이 있었던 「비리·밋첼」장군으로 미국 군복을 입고 전 전선을 처음으로 횡단한 장교다. 그는 미국의 참전 후 1년이 된 1918년 여름에 그의 부하가 실전에 참가하였을 때 미국공군의 편성에 힘을 기울여 드디어 성공 하였다.

용명을 날린 용사를 전부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 몇명의 이름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아리조나주 페닉스 출신의 「후랑크·류크」는 격정적이고 강직한 청년이었다. 그는 비행선을 격추하는 명수로서 이름을 떨쳤다. 당시 교전국은 피차가 포병은 착탄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선의 적당한 곳에 거대한 소세지 형의 기구를 올려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연락방법은 기구의 하부에 있는 탑승원 자리에서 장교가 전화로 아방의 포병사격을 지시하게끔 되어 있었다.

이 기구가 비행사들의 좋은 목표였다. 이 기구는 그 밑에 지상군이 배치되어 기관총화로 방위되어 있다. 기구를 공격하는 눈치가 보이면 지상군의 탄막으로 비행기는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류크」는 기구공격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14조의 기구를 화염속에 매장하였는데 전사할 때까지 적기 4기를 격추하였다. 전사하자 그에게 성형명예훈장이 수여되었다.

미국의 가장 우수한 용사였던 「에디이·릿켄파카」대위는 26기를 격추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초 경주용 자동차의 드라이버로서 그의 오랜동안의 경험을 인정받고 「파싱그」장군의 본부배속 승용차 운전수가 되어 프랑스로 건너갔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상관에 의뢰하여 비행부대에 전근하였다. 그는 제94비행중대의 지휘관으로 명성을 올렸고 이 중대는 그의 지휘아래 미국 육군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전공을 수립하였다.

최초로 영국 왕립비행병단에 있었고 다음, 미국 비행중대에서 훈련을 받았다. 교관 속에는 이미 13기를 격추한 「조오지·비온」이며 12기를 격추한 「에리웃트·호아이트·스프링」도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격렬한 실전을 겪고 영국의 항공대를 떠났는데 이러한 전투경험은 아직 미경험자들로 편성된 미국비행중대를 가르치는데는 이미 때가 늦었었다. 또 해군 유일의 제1차 대전의 「하늘의 용사」였던 「데이빗드·잉글로스」는 단게르크의 근방에서 영국 왕립비행단에 배속되어 있던 6주간의 근무 중에 이 「하늘의 용사」의 칭호를 획득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경우에서도 불구하고 무명으로 그치는 비행군인의 무리가 있는 법이다. 신문이 전투기 탑승원의 적기 격추 수자를 과장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그럴법한 일이지마는 한편, 적진지 깊숙이 파들어가서 무선기나 레이더의 정보도 없는 당시에 독일군의 총격의 좋은 밤이 되는 착탄관측, 폭격, 정보수집 등 그다지 화려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완전히 수행한 비행사들에 대해서는 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장거리 중폭격기 또는 관측기- 프랑스의 「코오드롱」, 「부레게」, 「사투무손」, 영국의 「프스톨·파이타」 「데하비란드」, 「한드레·페지」와 「푸알츠」, 「알바포르스」, 「포카」형 등은 독일군 전투기와는 속도의 차는 불과 15마일에서 20마일에 지나지 않았지마는 폭격기며 관측기는 행동이 둔하고 조종이 어려웠다.

쾌속전투기가 위험한 임무며 속도가 느린 자기편의 비행기를 원호하기 위해서 과전되어 협동작전을 전개하려 하여도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 넓은 공중에서는 서로 연락이 어렵고 또 약속된 지점에서 지나가거나 하면 속도가 느린 폭격기나 정찰기만으로서 군사목표 위에 도달하기 때문에 적기를 항상, 영격하려고 기대되고 있는 적의 전투기와 만나기가 쉽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의 4년간에 군사항공은 크게 진보하였으나 기체설계상으로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었다. 어느 미국인이 말하듯 「군용기는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이 많은 위험한 것」이었다.

오늘날 생각하면 당시의 비행사가 그러한 조잡한 비행기로서 어떻게 공중전을 할 수가 있었는지 신송스러워할 정도의 비행기 였다.

군용기는 속도, 기동성, 화력, 그밖에 정비가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 절대 필요하지마는 그것을 긴급히 생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행 훈련은 단순히 하늘을 날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화기의 취급법을 비롯해서 중요한 팀워크의 짜는 법, 여하히 재빨리 행동하여 지휘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으로 상당히 시일이 요하게 된다.

1914년의 대전시에 각국 공군의 지휘층은 누구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으나 사태가 긴급했기 때문에 단독 비행시간 30시간이면 전투에 참가해야만 했다. 위대한 용기와 우수한 기술 없이는 그만한 역할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공군의 지도자들은 비행기가 기총을 발사하고 폭격을 행하며 또는 사진을 찍는 이동하는 기계로만 생각하며 비행사들도 그정도로만 여기고 이 기계를 유리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어쨌던 영화음악의 초기에는 이와 같은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영화 음악이라면 사실은 영화의 실감을 우리에게 돌구어 주는데 그다지 큰 힘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프랑스」사람들은 영화에 대한 음악의 앵무새 노릇이라고 웃고 있다.

《에이젠슈타인》, 《프롭킨》, 《아렉산드롭》의 저 유명한 「토오키·선인」(1928)은 영화 음악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토오키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겠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음악가가 자기가 작곡해야 할 영화의 시사를 본다. 화면을 내려다보면서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악상을 오선지에 적는다. 이때에 화면이 갖고있는 「드라마틱」한 억양(抑揚)과 음악적인 억양을 어떻게 일치시키느냐에 문제는 달려있다.

또 어떻게 그것을 옹하게 하는가는 그것이 지니는 둘째 번의 문제라고 보여 진다.

화면의 리듬, 템포 또한 그 극적내용=(배우의 연기, 심리적인 긴장을 포함해서)과 같은 등가의 음악을 설해없이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새들이 노래 부르고 음악이 또한 노래 부르는 것뿐이 될 것이다.

새들이 노래하지 않을 때, 음악은 노래한다. 또한 새들이 노래 부르고 음악이 또한 노래 부를때, 음악은 새들의 노래와 다른 목소리와 다른 「리듬」으로 노래하는 것이 들려온다.

화면과 음악과의 이 대위법적인 「뫼파주」가 영화음악의 기본이 되는 타입으로서 음악의 창조적 사용법이었다. 《후우기》라든가 《카논》이라든가 또는 《쁘리휘니》나 《콘트라퐁크트》라든가 하는 수확적인 복잡한 형식에 익숙한 음악가에게는 순섭게 현대 영화 음악 창조에 대해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이에 대한 음악가들의 노력으로 해서 영화에 있어서의 음악은 반주의 무성시대로부터 창조의 독자적인 영화 음악으로서의 창조의 시대로 한발을 내디디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영화를 볼때 줄거리의 가치, 배우의 연기 및 연기자로서의 육체조건과 카메라의 작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음악의 효과와 가치도 흥미를 지니고 분석해 갈 필요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필자·시인 영화평론가)

핏땀흘려 배운기술
무사고로 빛내자



제 밋에 산다

고객자

◇설 익은 감

언젠가 용무가 있어 미용정형 외과에 들렀더니 환자가 장사진을 치고 있는 통에 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말았다. 수술실에서는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비명소리가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데도 그 환자들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에 쌍꺼풀을 넣고 콧대를 높이고 이마의 주름살을 없애고…… 이밖에도 하는 일이 많겠지. 간호원은 대합실을 내다 보면서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했는데 어디를 보아도 멀쩡한 여자들이니 『환자』같지는 않았지만은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역시 환자인 모양이다. 더 아름답고 더 예뻐지고픈 생각은 여자라면 누구나 가지려니와 그 중에는 그만 만해도 어지간히 예쁜 촉에 들어갈 만한 용모를 가졌는데도 그 얼굴에 인공을 가하려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환자』치고는 중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만일 그 여자가 옳게 익은 사람이라면 인공을 가한다는 생각은 우선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인데…… 「천충 만충 구만충」이니 구태여 그 여자들만을 닦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설 익은 감」은 아무래도 제 맛이 나지 않는 법이다. 또 그만큼 배탈이 나기가 쉽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설익은 사람일수록 일을 잘 저지르는데 가장 처치에 곤란한 사람, 즉 다루기 가장 힘든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들인 것 같다.

아주 덜 익은 것과 설익은 것은 그 성질이 판이하다. 덜 익은 것은 익도록 기다리는 수가 있지마는 설익은 것은 가다려야 헛 일이기 때문에 대개는 버리는 수밖에 없다. 어떠한 과일이건 설익은 과일은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익은 사람도 설익은 과일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천지지만, 만물지중에 무용지물은 인간지폐물인』이라 지푸라기도 소용되는 경우가 있지마는 사람 못 쓰는 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라 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 5·16 혁명 이전의 우리 민주주의가 마치 설익은 감과 같았다 해서 과히 망발은 아니겠다. 아주 안 익은 민주주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덜 익은 민주주의도 아니었고 설익은 민주주의였다. 사람마다 민주주의 입마다 민주주의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는 제 맛을 내지 못하고 사사건건 배탈만 일으키는 민주주의 였고보니 아마도 이 민주주의 설익었는가 한다. 모든 민주주의적인 먼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이 설익은 민주주의를 옳게 익혀보려고 4·19라는 방부제를 써보았으나 임시적이고 응급수당밖에는 못되고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설익은 쓴맛을 풍기게 되자 이제는 이 「설익은 감」을 아예 버리고 새 감으로 익히자 해서 5·16 혁명이라는 새 감나무를 심었다.

무릇 설 익은 과일은 결국 버리는 수 밖에는 없는가보다.

한때 농촌에는 맹자가 공자보다 먼저 탄생하였다는 말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모당의 선거를 비방하는 말이었다. 이유나 방법을 불문하고 다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만 생각하는 「리버티·파티즘 데모크라시」를 빈정대어 생겨난 시어인데 그 근원·이라기보다 곡서를 캐어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일화가 있다.

어느날 한 마을의 노인들이 논매기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우연히 맹자와 공자 얘기가 났다. 그러다가 누가 맹자가 죽은 백년 뒤에 공자가 났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웃으며 공자가 맹자보다 훨씬 먼저 난 성인이라고 수정했다. 그러나 맹자가 먼저 났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두 사람은 서로 우겨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듣고 있던 노인들은 대다수가 맹자가 먼저 났다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맞다고 지지했다. 공자가 먼저 났다고 말한 노인은 모두가 무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맹자가 먼저 났다고 말한 노인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 다수결원리에 따라 맹자는 공자보다 먼저난 사람이 되는 것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위에 다가 노인은 덧붙여 말하기를 김씨보다 박씨가 월등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마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을 지지하니가 많으니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설익은 민주주의 정치는 아직 생생한 농촌의 덜 익은 민주주의 마저 못 쓰게 만든 좋은 예라 하겠다.

다수결 원칙이란 한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극히 초보적인 이같은 말을 왜 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 초보적인 말에 느끼는 점이 있을 것이다.

갑동이라는 국민학교 6학년 생이 일요일에 여러 동무들과 마을 앞에서 야구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이때 이 마을에서 침 보는 한 노인이 찾아와서 갑동이를 불렀다.

노인 「네가 갑동이냐」

갑동 「네, 제가 갑동이에요」

노인 「잘 됐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인데 급한

불일로 왔으니 곧 너의 집으로 나를 안내해 다오. 나는 너의 집을 모른다.」

갑동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노인 「어째서?」

갑동 「이 게임이 끝나야 하겠습니까. 저 한사람이 빠지면 여기 있는 모든 아희들이 게임을 중단해야 하나까요.」

노인 「그까짓 뭐 대단하냐?네가 돌아올 때까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

갑동 「한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희생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노인 「뭐라구? 그럼 지금 집을 가르쳐 줄 수 없단 말인가?」

갑동(태연하게) 「그렇습니다.」

이래서 노인은 하는 수 없이 달리 길을 알아서 갑동이 집을 찾아 할아버지를 만나서 불일을 치루고 돌아가는 길에 갑동이 얘기를 말해 주었다.

노인이 돌아간 뒤 대노한 할아버지는 갑동이와 아들(갑동 아버지)를 불러서 고안 놓이라 호통을 하고 아들에게는 자식들의 교육이 그래서 되겠느냐고 꾸짖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더욱 놀랐고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란 한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 괴물이라고 탄식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은 갑동이 한 일이 옳다는 것이며 그것은 민주주의적 신도덕이라고 우겨대었다는 점이다. 눈이 둥그레진 할아버지는 체념을 하듯 장탄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이 그러하고 신도덕이 그러할진댄 나는 이 집에서 그러한 도덕 밑에서는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다. 나도 그 신도덕을 본 따서 내가 일해서 내가 번 이 집과 내가 가진 논과 그리고 모든 나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떠날 것이니 그렇게 해도 너희들에게는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 아희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두가지 원칙 다수결원칙과 자유(자기재산의 자유처분)의 원칙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으나 어쨌든 설익은 사람이나 설익은 지식이 어떠한 그림자를 가져온다는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니겠는지?

모르는 사람 일수록 더욱 아는체 한다. 설 익은 탓이다. 아는체 하는 그 「체」로서 모른다는 그 자체를 보충하려는 것이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우리 속담은 이런 뜻에서 백만불의 가치가 있는 침이다.

명문장가였던 영서는 문장을 자랑한 바 없었고 명필채군오는 글씨를 자랑한일 없었으며 명기여제서는 바둑을 자랑하지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자랑을 일삼은 자치고 옳게 바르게 아는 자없다. 「동계기사」에 「구양영서는 정사를 자랑하며 문장을 자랑하지 않고 채군오는 서를 자랑치 않았으며 여제서는 바둑을 모른체 하였고 주호 사마간은 취중을 몰랐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다운 미 참의 아름다움을 아는 옳게 익은 여성이라면 그 아름다움을 자신 속에 찾으려 할 것이지 외형으로만 미를 갖추어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려 들지는 않겠지. 미용정형외과 대합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는 분명 다른 의미에서의 「환자」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제 멋에 산다

멋을 부린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수 있겠는가? 단지, 그 멋이라는 것을 부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제대로의 멋이 있음직하다. 「멋대가리 없는 사람」은 정말 사귀어 보고 싶지도 않는 사람이 아닐까? 단지, 참 멋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멋을 부리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과 같이 그 사람의 차림이나 그 사람의 언어동작이 그 사람의 교양의 거울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는 멋은 그 사람의 교양의 거울일지도 모른다. 영국의 속담에 In the forehead and the eye, the lecture of the mind doth lie 라 하여 이마와 눈 속에 마음이 들어난다는 식으로 교양은 그 사람의 멋을 규정지워 주는 상 싶다.

개성이 분명치 않는 사람은 제 것이라고 할만한 멋을 가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멋이란 나쁜 것이 아니요 제멋에 살아서 하등 닳할 바 없지 않겠는가. 영국사람엔 영국사람의 멋이 있고 미국사람엔, 일본사람엔, 프랑스 사람엔, 중국 사람엔 중국 사람의 멋이 있듯이 각개인엔 각개인의 멋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복입고 갓 쓰는 꼴을 우리는 멋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렇다고 유행만 따르는 것은 더욱 멋이 아니잖겠는가? 유행이란 원래가 상업주의에 의해서 상업시장에서 상인들이 만들어내는 상술의 하나이니 이것을 따른다고 해서 멋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남의 멋이지 내것이 아니다. 멋만은 남의 것을 빌릴 수는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남의 멋을 빌려 보는 사람도 있고 본을 따보는 사람도 없지 않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멋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무엇이던 제멋 이 아닌 것을 제멋인 양 하는 것을 우리는 『남의 옷 빌려 입은것 같다』라는 속담을 쓰지 않는가.

「멋쟁이」는 벌써 멋이 못된다. 남으로 부터 「멋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실은 멋쟁이가 아닌 것이다. 「멋쟁이」는 의식적으로 멋을 꾸미는 사람이며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이나 생리와 더불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 멋은 결코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잖겠는가? 「제 멋에 사는 사람」은 남에게 그 멋을 풍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이 아니며 나자신에게도 오불관여다.

헌데-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멋을 꾸미려 들고 있는 편이 아닐까?

고객자 어느날 명동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오가는 많은 남녀들의 행렬을 바라고 있을때 한국사람의 멋이, 아니라 「사치와 허영」으로 통하는 길이 아닌가고 본것은 필자 뿐이었을까?

남자의 멋쟁이는 드문 드문 보였다. 그러나 여자의 멋쟁이는 거리에 넘쳐 흘렀다. 「멋 있는」 여성이 아니고 「멋쟁이」여성이 많입니다. 첫째 느낀 것이 여성은 물론 남성보다 외양에 관심이 크다고는 하지마는 어쩌면 여자는 그렇게도 한결같이「멋쟁이」

뿐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느낀 것은 그 「멋쟁이」 일사 천편일률이라는 점이다. 의상의 칼라도 색색이고 헤어스타일도 형형이 있으나 그 원형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개성도 특징도 없이 입(葉)사귀의 색깔만 다르다는 것이다.

왜 이럴까? 제 멋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멋에 살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서 남의 멋이란「유행에 따르는」 그것일 것이다.) 「덜 익은 감」이 아니고 「설 익은 멋」이랄까.

셋째로 느낀 것 은 멋과는 거리가 먼 사치와 허영이라는 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나라가 들어서 국가재건에 강행군을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수도 서울의 젊은 여성의 얼마 마치가 이 국가적 국민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재건 하처풍(何處風)이다. 내뺏하는 국민이 따로 있고 사치해도 좋은 국민이 따로 있단 말인가. 정부와 관계당국에서 그리고 신문잡지에서 가는 곳마다 발 닿는 곳마다 것처럼 내뺏이니 겹소니 간소화니 하고 외치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마이동풍」이었다면 대단히 미안한 말이나 그들의 귀는 사람의 귀가 아니고 말의 귀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그 화려한 옷차림은 그들의 주머니가 용납 했을까?. 미국과 같이 풍요한 나라의 국민들도 Cu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cloth. 라 하여 낭비를 항상 경계하고 있거늘.

멋에 대한 우화 하나. 옛날 옛적 간날갔적 오천년 묵은 대추나무 소년적에… 멋쟁이 임금이 있었다. 그는 천하의 비단을 다 한번 씹 입고 보니

<세계경이순례>

파나마운하의 경이



리차아드·하리바톤

우리들의 경이의 탐방은 하이치 섬에서 바로 파나마로 직행합니다. 여기에는 지금과는 색다른 세계의 경이 「파나마 운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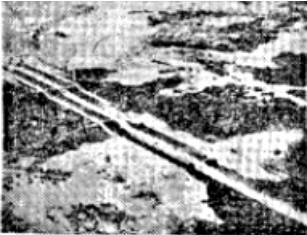
이운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색다른 매력을 준다. 나는 아직 파나마 운하를 보기 전에 책에서 지협을 본 일이 있다. 그 책에는 파나마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이틀테면 황금을 둘러싼 무시무시한 싸움, 해적들의 약탈품, 이 지방을 발견한 코롬브스를 비롯해서 용감한 영웅, 혈기 왕성한 악한들의 얘기가 쓰여 있었다. 소년시절 이 로맨틱한 지방을 횡단하여 운하를 만들고 최초의 기선이 운하를 통과했을 때의 감격적인 광경을 머리 속에 그려보곤 했었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 다년간의 소원이 었던 파나마에 여행했을 때 나는 운하를 만든 그 귀신과 같은 솜씨며 그 땅에 묻힌 여러가지 역사를 상기하고는 불현듯이 운하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헤엄쳐 보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나는 대서양 쪽에서 태평양 쪽까지 81키로를 헤엄쳐 갔다. 그 사이에 있는 록크(갑문)며 인공 못이며 잘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다.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가 발견된 이래, 4백년 동안, 여러 사람들은 파나마 지협을 횡단하는 것과 1만6천키로의 남아메리카를 드르는 문제를 늘 비교해 보곤 했다. 「발보아」라는 사람이 남해(남해=그는 태평양을 남해라고 불렀다)를 발견한지 얼마 후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파나마지협을 가로 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자고 국왕에게 진언하였으나 국왕은 너무나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세기가 흘러갔고 그간, 몇 번이나 운하계획이 머리를 쳐들었다가는 좌절되곤 했다. 유명한 드·세프가 주재 하는 프랑스 운하회사가 파나마 운하개설에 착수한 것은 1881년이였다.

드레세프는 이로부터 12년전인 1879년, 지중해에서 홍해로 통하는 160키로에 달하는 스에즈 운하를 완성한 프랑스의 토모기사이며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파나마에 또 하나의 운하를 성공시키려 하였으나 역사에 남는 최대의 비극의 하나로써 전연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은 충분하였고 기술도 그만하면 되었고 기계도 정비되어 있었는데 스에즈와는 달리 여기에는 단단한 암석의 산맥이 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면의 수위문제, 제피슨 요새와 같이 황열병이며 마라리아 열을 운반하는 무서운 모기떼를 계산에 넣지 않았었다. 공사 현장에 마라리아며 황열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아직 착공 초차도 하지 않았을 때이다. 이러한 열병으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으나 적어도 2만명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건설단은 운하를 파는 대신으로 많은 무덤을 파기에 바빴다.



이제는 몇 부릴 천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는 천하에 알리어 좋은 옷감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천금을 주리라 고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짜는 옷감을 짤 수 있다. 돈은 필요 없지만은 하늘에서 선녀를 청하는 데는 크게 공을 들이고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먼저 주면 그 천을 짜 주겠노라는 것이다. 임금은 크게 좋아하며 곧 제사 비용과 배 짜는 공장을 세울 비용을 주었다. 젊은이는 즉시 궁성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경치 좋은 산 속에서 제사를 지내고 공장을 세워서 배를 짜기 시작했다. 임금은 하루 빨리 그 곳이 입고 싶어서 아직 기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많은 신하를 시켜서 그 짜는 배가 얼마나 곱고 좋은가를 보고 오라고 분부했다.

신하들이 가보니까 공장에는 단지 그 젊은이 혼자서 바쁘게 왔다 갔다할 뿐 선녀도 없고 배도 아직 한필도 짜 있지 않았다. 젊은이는 신하들이 나타나자 이렇게 말했다. 참 깜박 잊었습니다. 지금 짜고 있는 배는 선녀들의 솜씨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선녀도 안보입니다.

그리고는 저쪽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데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무엇을 들고 이리로 왔다. 그가 들고 온 것이 신하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먼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선녀들이 짠 베울시다.』

드·레세프는, 이 무서운 열병을 끝내 막아내지 못하고 영웅적인 그러나 무익한 노력과 더불어 그가 그렸던 꿈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3억2천만 팔라의 비용을 소진하고 몇백 대의 기관차 몇 천대의 기중기, 화차, 그밖에 많은 기계와 시설을 그대로 버리고 파나마를 떠난다, 레세프의 심정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후는 아무도 손을 내밀어보는 사람이 없다가 1903년, 파나마 공화국의 독립과 동시에 미국정부가 파나마 공화국과 운하조약을 맺고 드·레세프가 하던 공사며 이권을 4천만팔라로 매수하여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은 그 무서운 모기의 성질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힘으로 위생시설을 완비하고 황열병이며 마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모기를 전멸시키는 등 1906년 이 지대에는 한 마리의 모기도 열칠 못하게까지 만들 때까지는 돌 하나 옮기는 공사도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전염병의 근원을 전멸시킨 다음 비로소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에서 동시에 증기샤벨로서 파기 시작했다. 운하가 통과하는 중간지점의 산악에는 높이 2백미터되는 언덕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기좋게 파헤쳐서 도랑을 만들었다. 이것을 「크레브라」의 도랑이라하여 인류가 만든 도랑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또 상그레스 하천의 하류를 막아 커다란 못을 만들고 운하의 일부로서 이용하였는데 이못을 「가충」이라하여 인간이 만든 인공 못 중에서 가장 큰 못이다. 이 「가즈」못이 파나마 운하 통로의 태반을 차지한다. 호수의 수면면적 423평방키로, 수면은 태서양보다 26미터 높으며 배를 인공호수에 올리고 내리는 록크가 장치되어 있다. 이리하여 완성된 것이 1914년 1월 길이81키로의 파나마 운하에는 큰기선도 군함도 통과되게 되어 대양과 대양을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세계 교통사상 획기적인 것으로 지리상으로나 역사상으로도 대서특필할 사업이다.

우리들이 탄 기선은 운하의 태서양쪽입구 크리스토팔에 도착한다. 이 전후에는 몇십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보인다. 이들 배들은 여러 나라 여러 항구에서 모여든 배들이다. 군함, 화물선, 여객선, 기름 배, 원양항행 기선, 이 가운데에는 돛대를 쫓은 배도 있고 조그마한 기선도 있어 그들이 달고 있는 깃발은 형형색색이다. 이들 배는 열대의 태양속에 마법의 「물의 계단」을 향해서 바다가 허용하는 최대의 로맨틱한 여행을 맞본다. 나는 운하의 입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곳을 헤엄치고 있을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추의를 시켜주는 것이었다. 물고기를 한테 잡아 먹힌다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헤엄친 사람은 없었다. 또 록크에서 흘러내리는 물살은 굉장히 강해서 4·8키로를 헤엄치는데 일곱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우리가 탄 배는 처음 가장 큰 록크에 도달한다. 7층 건물의 높이와 동일한 이중의 강철 수문이 소리도 없이 위로 올라간다. 24개나 되는 이 강철문은 폭이 21미터, 무게가 4백톤이다. 배는 전기기관차에 연결되어 높이 3백 미터가 되는 독크로 조용히 운반된다. 이것은 뒤에 있는 록크로 부터 몇 십개의 철도 튜넬과 같은 큰 구멍을 통해서 물이 흘러들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세 번 되풀이하면 배는 해발 27미터의 가충호수에 뜨게된다. 내가 헤엄쳐 파나마 운하를 통과했을 때 배와 마찬가지로 이 록크에 들어간 것은 유쾌하였다. 나는 길이 3백미터 폭이 33미터의 거대한 콘크리트 못에 헤엄치고 있었다. 내가 제3록크에 이르렀을때 정세원이 내가 바다의 수면에서 가충호수의 수면에 까지 27미터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된 270만임방미터의 물(세계 최대의 배를 끌어 올리는데 소요되는 동일한 양)의 대금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가라고 질문하였다. 나는 직석에서 대답하였다. 「나는 S·S·리차아드·하리바톤이란 자인데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것과 동일하게 톤수에 의해서 통행세를 지불 하겠다」고. 그래서 당장에 내 체중을 달아본 결과 13분의 1톤, 통행세 39센트, 아마 이 운하가 생긴 이래 가장 소액의 통행세 요금을 물었을 것이다. 현재의 통행세는 톤 당 130팔라, 1년 통과 수는 약 56천 척, 총 톤수는 약 3천만톤. 가충 호수는 세계 최대의 인공호수이지만은 이제는 어디를 돌아보아도 인공이라고 느껴지는 곳은 없다. 태서양쪽 수로에는 밀림이 우거져 있고 온갖 짐승들이 온갖 소리를 내어 첩첩 산중이다.

하고 젊은이는 자랑을 했다. 여러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말을 했다.

『이것 참, 기가 막히게 고은 배로다. 이렇게 부드러운 수가 있으며 색이 이처럼 고울 수가 있나.』

하고 그 신하는 무엇을 만지기 까지 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도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했다. 한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하자 다른 신하들도 그렇게 능청을 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안 보인다면 그는 마음이 좋지 못한 신하로서 목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궁성으로 돌아온 신하들은 임금에게 보고 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기가막히는 옷감이라고 물론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는 보아서 보이지 않고 만져서 만져지지 않는다는 조건 부로.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임금님이 입을 것이라는 소문이 궁궐 내에 확 퍼졌다.

얼마 후 옷이 다 되었다는 젊은이의 보고에 따라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며칠 날 임금님이 이 세상에 없는 좋은 옷을 입고 성 안을 한 바퀴 걸어다닐 것이니 만백성은 모두 길가에 나와서 함께 축복을 드리라는 내각 관방장령 제멋호가 나렸다.

궁녀들이 나와서 임금에게 옷을 입혔다. 궁녀들은 이구동성으로 옷을 칭찬하고 어떤 궁녀는 그 배로 자기도 한 벌 입어 보고 싶다고 까지 말했다.

임금은 벌거 벗고 서서도 대만족인 양 싱글싱글 웃었다. 옷을 다 입은 임금은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궁궐 문을 나섰다. 문밖에는 수만 군중들이 줄비서 있었다. 처음 군중들은 눈이 둥그레졌고 임금이 걸어오자 수천명 모여있던 부녀자들이 절집을 하고 손으로 얼굴을 싸고는 소리를 치며 도망치기 시작 하자 군중들도 해괴 망칙한 일이다 임금님이 노망하셨다 하고는 모두 도망치다시피 달아나고 말았다.

임금은 크게 망신을 하고 크게 노했으나 그 젊은이가 자기 멋쟁이 버릇을 고치려는 뜻을 깨닫고 오히려 고맙게 여기어 상을 주고는 그 젊은이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간데 없어졌다나……

멋과 사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아한당년 무이와(我恨當年無二蛙)

정사에 있어서 아침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은 구태여 옛날의 예를 들 필요는 없다. 「은감(殷鑑) 가까이 있다」는 고사에 따라 바로 어제의 일인 자유당 정부의 예로도 충분하다. 원래 부하나 아랫사람에 대해서 교만을 부리는 자일수록 윗사람에 아침하고 윗사람에 대하여 아침을 아니 하는 자는 아랫사람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는 법이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파리가 모인다』는 속담을 빌리면 아침이 통하기 때문에 아침배가 날뛰는 것이다. 모름지기 초롱을 든 자는 뒤에 따라 오는 사람들 중에 도적이 섞여 있지 않는가를 가릴줄 알아야 한다. 현군과 우군은 여기서 판정이 난다. 이 정권은 아침배로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니 그 아침으로 얻어진 권력과 세도가 문자 그대로 「권불삼년이요 세불십년」으로 끝난 것이다.

그러면 그 호수는 어떤가하면 옛날에기에 나오는 호수처럼 아름답기 짝이 없다. 조그마한 섬들이 산재하여 꽃이라도 피는 계절이면 천연 공원을 방불케 한다. 나무가지에는 날 짐승들이 물을 들여다 보면서 고기를 노리고 있다. 하늘에는 솜과 같은 열대의 구름이 겹쳐 아름답기 비길 데 없다.

배는 지금에 메랄드와 토르코의 구슬색깔과 같은 분위기 속에 싸여 운하의 40키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양쪽 제방이 점점 좁아들어 유명한「구겐브라」에 이른다. 수로는 150미터로 좁아들고 양편의 제방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다. 악어들이 제방 가에 놀고 있다가 우리가 탄 배가 오자 물속으로 기어든다.

내가 한때 이곳을 헤엄쳐 갔을 때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무서워서 떨었던 것이다. 사격의 명수인 수병이 포오드 위에서 총을 가지고 나를 악어로 부터 지켜 주었다. 하지만 악어가 내발을 물었을 때 수병이 당황하여 악어를 쏜다는 것이 잘 못하여 나를 쏘지나 않을가, 여기에 신경을 쓰곤 했었다.

배는 지금 골드·빌의 중심부를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수로는 더 좁아져서 90미터로 줄어 든다. 그러나 양쪽에는 깎아 내린 산이 벽처럼 180미터의 높이로 서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절벽 사이로 항행할 때면 록크를 지나는 것처럼 스틸을 느낀다. 지금은 거대한 계곡이 되어있는 이 절벽사이에는 한때는 그 위에 커다란 바윗돌들이 있었는데가고 생각하면 록크 이상으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신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고 느껴진다.

나는 이곳을 헤엄쳐 이 절벽에 기어올라 산 위에 까지 올라가 보았었다.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배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 또 전방에 있는 태평양 록크는 축소한 지도처럼 보이는가 하면 16키로 저쪽에 있는 파나마시와 그 앞에 펼쳐진 태평양이 보였다.

태평양 쪽에 있는 페트로미겔, 미라후로 레스등의 록크는 우들이 지금타고 있는 배보다 낮은 곳에 있다. 어째서 이런 식의 록크를 설계했는가 하면中间的 높은 곳은 별개로 하고 태평양쪽의 평균 수면이 태서양의 그것에 비해서 24센치 높이고 또 태평양의 만조 건조는 차가 너무 심하여 때로는 6미터나 되지만은 태서양쪽은 기껏 30센치에 불과하며 만일 이 차를 고려하지 않고 해수면식에 의하면 운하의 흐름이 상당히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 만간의 차는 어째서 생기는가 이 것은 아직껏 아는 사람이 없다.

헌데 태평양쪽의 록크를 통과하면 태평양 안의 출입구 「발보아」 항구에 들어가게 된다. 「크리스토팔」에서 9시간이 걸린다. 만약 여러분이 나처럼 헤엄쳐서 건널려면 8일간이 소요된다. 사실 나는 8일간이 걸렸던 것이다. 만일 이 파나마수로가 없고 남아메리카 남단의 케이프호른을 둘러서 간다면 세계 제1의 쾌속을 가진 함정이라도 2주일을 요하게 된다.

굉장한 록크장치, 꿈나라와 같은 인공 호수, 사람이 만든 거대한 계곡, 이 사이를 오가는 함선의 행렬을 볼 때 인류가 자연에 도전하고 또는 자연을 이용한 이 세계의 경이에 잠시 정신을 빼앗길 것이다. (김영주역)



그런데 아침이란 대개가 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뇌물을 수반한다. 「견물생심」의 원리(?)에 따라 그런 생각이 없는 자도 그 뇌물에 현혹되어 그만 안개가 눈앞을 가리게 되고 만다. 한때 우리나라에 너도 아침 나도 아침 취도 새도 아침을 일삼게 되고 보니 「말」의 아침은 값어치가 없어지고 뇌물이 말을 하게 되어 재물이 없는 자는 아침할 자격조차도 상실하게 되었다. 「아한당년 무이와」라는 문자가 식자층에 유행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라 기억된다.

원래 이 말은 숙종대왕 야행기에서 출전된 문자인데 실력이 있어도 뇌물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얻지 못하고 야에 묻혀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어느날 밤 숙종 대왕은 민정을 살피고자 객처럼 변장하고 성 밖을 둘러볼 때 어느 조그마한 초가에 불이 뻗하고 글 읽는 소리가 처량해서 봉창으로 몰래들어가 보니 40세쯤 되는 사람이 람루 한 옷을 입고 글을 암송하고 있는데 벽에 「아한당년 무이와」라고 붙은 것이 눈에 띄었다. 숙종대왕은 그 글이 몹시 궁금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뜻을 알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구리 두 마리 없는 것이 환탄」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고?

숙종대왕은 객을 하룻 밤 쉬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방으로 들어가서 몇 마디 잡담 끝에 벽에 붙은 글패를 물었다. 주인은 좀체 말하지 않았으나 객이 여러 번 청하자 겨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아득한 옛날 노고지리와 엉머구리(리개구리의 일종)와 부영이가 한 자리에 모여 누가 더 잘 우는 가를 시합했다. 모두가 한번 씩 울었으나 모두가 제가 더 잘 울었다는 주장으로 결판이 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렇다면 내일 학님 앞에서 심판을 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꽤 많은 노고지리는 개구리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학을 찾아갔다. 학은 마침 배가 고파서 출출해 있었는데 매우 좋아하며 개구리 두 마리를 맛있게 먹었다.

『학님께서 시장하실까 생각해서 이 앞을 지나는 길에 문안드리고자 들렀나이다. 맛이 좋으시면 언제라도 잡아서 학님께 올릴까 하나이다.』

하고 공손히 절을 했다. 학은 물론 크게 만족하고 노고지리가 떠날려 할 때

『이사람 매우 고맙네.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힘이 되어 주겠네.』라고 말했다.

이튿날, 노고지리와 엉머구리와 부영이는 3자가 학님 앞에서 제 각기 멋있게 한번씩 울고는 학의 판정을 기다렸다. 학은 서슴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강평하고 톱쟁거를 판정하였다.

『부영이 군은 성량이 풍부하고 우렁찬 남성다움이 있는 좋은 울음이나 때때로 탁함이 있었다. 엉머구리군은 음질이 고르고 탁함이 없어 대단히 좋았으나 비함이 있었다. 노고지리군은 성량이 빈하고 음질이 간사하였으나 그러나 명(明)함이 있었다. 탁, 비, 명이니 우선 울음은 밝아야 하렸다.』고-

노고지리는 이래서 개구리 두 마리의 뇌물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다는 이야기.

얘기를 다 듣고 난 숙종대왕은 크게 느낀 바 있어 후일 그 거사를 등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방금 우리 혁명정부는 아침하는 공무원들 철저히 검색 축출하는 방침이라 하니 이제는 그따위 「개구리 격정」없이 제택제비하고 명랑하게 공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노자학자의 무덤

진나라 때의 시인 육기의 아우 육운은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다. 세상에서는 이룩 곧 육 형제를 시단의 쌍벽으로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때 장화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장화 또한 시단의 대가의 한 사람이었다.

때때로 당대의 명사로 알려진 순은도 그들과 더불어 초대를 받았읍니다.

이 초대연 석상에서 장화는 말하기를 두 분은 꼭 만나야 할 처지에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자 운은 손을 높이 들어 말하였다.

「이 사람은 구름 속의 육사용이라 합니다」 그 말을 받아 은은 이렇게 응수했다.

「저는 태양 아래쪽의 순명학이라 합니다」

사용은 운의 자이며, 명학은 은의 자였다. 즉석에서 그들은 이러한 댓귀로써 기묘하게 서로의 소개를 한 셈이었다.

운은 시인이었으나 또한 당시의 노자 철학의 학자였다.

이 운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다. 어느 날 밤에 육운이 친지 집을 찾다가 길을 잃어 들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다. 그가 당황하였을 때, 문득 우거진 풀밭 저쪽에 불빛이 보이므로 줄달음질 쳐 가봤다. 거기에는 한 채의 허술한 집에서 용모가 단정한 한 선비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운은 사정 얘기를 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그 선비는 선뜻 승낙했다. 운은 몸도 피곤하여 잠자리를 보게 되자 그 선비는 노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다. 운은 그 선비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로서는 감히 미치지 못한 바라고 감탄을 마지않았다.

마침내 날이 밝아 그 집을 하직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지난밤 얘기를 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하기를 그 들판에는 집이 없다는 것이었다.

육운은 이상아릇한 생각이 들어 어젯밤 자신이 묵었던 곳을 찾아가 보았다. 가서 보니 친구가 말한 대로 인가는 없었고 다만 오래된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 비에 「왕필지묘」라고 써어 있었다.

왕필은 노자 철학의 학자로서 후세까지 길이 빛나는 주석서를 쓴 사람이다.

△오페라(Opera 가극)

음악에 의한 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와 음악, 미술, 무용등 모든 예술의 총합으로 된 종합예술이라고 할 것이다. 음악에는 독창, 중창, 합창등의 여러 형식을 넣었으며 오케스트라 반주로 공연한다.

이 오페라는 1600년 이태리<프리렌체>에서 시작되었다.

△아리아(Aria 명창)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중에서 나오는 독창곡인데 흐름과 같은 멜로디를 말한다.

△레시타티브(Recitative 서창)

이 곡은 말하듯이 노래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특히 오페라에 많이 사용한다. <아리아>와는 전혀 다른 것인데 선율적이지 아니며 이야기 하듯이 한다.

△오페레타(Operetta 경가극)

내용이 가벼운 작은 오페라라고 할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희가극 혹은 가벼운 가극인데 극의 진행에 있어서 대화가 주로 되어 있다.

음악적인 내용은 좀 저급한 편이며 오케스트라의 반주도 20내지 25명 정도로 소규모적이다.

2. 기악(Instrumental music)

악기에 의한 음악을 말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악과 대비되는 말로서 음악은 이 둘로 나누어져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미미했던 악기가 점차 발전하였는데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악기의 발달이 눈부실 정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에서 합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연주형태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악기는 각기 음색을 가지고서 독특한 효과를 내고 있다. 넓은 음역에다 폭이 넓은 강악과 장식음과 사람의 가슴을 두드리는 듯한 힘찬 박력을 가진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악이 지닌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기악을 충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기의 내용과 특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기의 종류에는 현악기와 관악기(목관과 금관)그리고 타악기와 건반 악기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악기의 종류

바이올린(Violin) 비올라(Violia) 첼로(Cello) 더블베이스(Double bass) 하아프(Harp) 기타(Guitar) 만도링(Mandolin) 반쵸(Banjo) 우크레(Ukulele)

△목관악기(Woodwind instruments)

피콜로(Piccolo) 플루트(Flute) 오보에(Oboe) 잉글리시 호른(English horn) 클라리넷(Clarinet) 색스폰(Saxophone) 파곳 또는 바순(Bassoon Fagott)

△금관악기(Brass-wind instruments)

트럼펫(Trumpet) 코넷(Cornett) 호른(Horn) 트럼본(Trombone) 알토호른(Alto horn) 유포니움(Euphonium) 베이스(Bass) 튜바(Tuba) 스자폰(Sousaphone)

△타악기(Percussion instruments)

팀파니(Timpani) 목금(Xylophone) 철금(Orchestra bells) 비브라폰(Vibraphone) 작은 북(Side drum) 큰 북(Bass drum) 심벌즈(Cymbals) 트라이앵글(Triangle) 탬버린(Tambourin) 카스타넷(Castanet) 차임(Chime) 탐탐(Tam-Tam)

△건반악기(Keyboard instrument)

피아노(Piano) 하프시코드(Harpsichord) 첼레스타(Celesta) 오르간(Organ) 파이프 오르간(Pipe Organ) 하모니움(Harmonium) 리드 오르간(Reed Organ) 하몬드 오르간(Hamona Organ)

△그 밖의 악기로서

아코디온(Accordion) 하모니가(Harmonica) 통수 횡저 등이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악기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는데 우리가 지금 서양음악에 관한 감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기악의 종류

악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기악의 종류는 적이나 많지만 독주부문을 제외한 몇몇 인원으로 구성된 것만을 이에 소개하는 바이다.

△실내악(Chamber music)

이것은 현악기 관악기 피아노 등으로 된 소수의 중현음악이다. 그래서 3,4인 혹은 8인 정도의 인원으로 된 합주인데 작은 실내에서 연주하기에 적당한 음악이다.

실내악에는 이중연(Duet) 삼중연(Trio) 사중연(Quartet) 오중연(Qiniet) 그밖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관현악(Orchestra 관현악)

이것은 규모가 가장 큰 기악의 합주체라고 하겠다. 이 오케스트라는 17세기 이후에 유럽의 음악에서 시작되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악기와 목관과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등 여러 종류의 악기로 이를 편성하는데 시대와 또는 작곡자의 작품에 따라 인원수도 변하는 것이다.

이 합주체가 대규모적으로 편성되기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악기와 그 주법이 개량된 때부터이다.

더구나 이때는 훌륭한 지휘자(Conducting)가 나타나므로서 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가능성을 극도로 발휘할 수 있었다. <바그너> <마일러> <R슈트라우스>등의 관현악의 인원은 100명을 넘는 편성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7,8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여기서 지휘자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 한다면 <오케스트라>나 <합창> <오페라> 등의 연주에서 단원 전체를

지휘 통솔함은 물론 악곡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를 주관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현악합주(String orchestra)

현악기만으로 편성하여 합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표준 편성은 <바이올린2부>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모두 1부로 되어 있다.

이 합주의 형태는 오케스트라보다 먼저 생겼으므로 현악합주에 관한 명곡이 많이 있다.

△관악단(Brass band)

브라스 비번드는 금관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목관악기 타악기와 같은 것을 합하여 편성한 합주단체이다.

음색이 명랑하고 강하며 웅장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연주하는데 더욱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예술적인 표현력에 있어서는 오케스트라를 따를 수 없지만 사기를 돋우는 데는 그만인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군악대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연주기술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필자·음악평론가)



회화

송병돈

전반에 이 쉬운 회화감상법이라는 것은 무조건하고 그림을 보아서 친하여지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그림을 볼 때에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음악감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곡조이던 싫어하는 곡이던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그 맛있는 이야기를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예술은 과학이나 학술과 달라서 여러 가지 형상과 음성이 우리들의 눈이나 귀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아름답고 즐겁게도 하여 주고 때로는 분노가 충천하고 저항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속칭 예술미의 아름다움(미)이라고 명명하여 두고 있다. 이래서 미자를 탐 미술만을 들추어 본다면 미술에는 회화 조각 건축으로 위시해서 여러 가지가 또 있다.

이 중에서 회화감상이야기를 다시한번 하기 위하여 이 번에는 「본다」 「친한다」의 다음으로 다소간의 이론을 써 보기로 한다.

회화감상에는 동양화도 있을 것이요 서양화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양화에서 근대적인 것 혹은 현대미술적인 것(Modern art)으로 유도하여서 문제꺼리가 되어 있는 추상회화의 감상과 이해에 첫걸음이 되기를 기획하기로 한다. 그래서 추상회화가 생기기까지의 시간과 환경을 사적으로 더듬어 올라가서 살펴 보느라하면 서양미술사상에 획기적인 업적을 쌓아올린 「세잔」(Paul Cezanne 1839-1906)에서 시작이 되고 현대회화의 시조라고도 말한다. 현대회화라고 시작된 것은 태양광선의 분해에서 오는 자연형태의 현상과 그 색채의 변모에서 오는 재미스러운 것을 분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즐겼다. 짧게 말하여서 이것을 인상파라고 하였고 이 다음에 나타난 것이 「세잔」이 개척한 후기인상파라는 것이다. 이 후기인상파는 고전주의와 사실주의에서 판가름하여 현대미술에 커다란 공적을 끼쳤다.

인상파 이전의 그림은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시각에 비치는 대로 그렸다. 이것을 객관묘사라고 하였다. 그런데 후기인상파이후에는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형태를 화가 자신이 제 마음대로 좀 뜯어 고치어서 자연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을 그렸다. 이것을 주관적 묘사라고 하여서 현대회화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피카소」라는 화가는 말하기를 「자연은 존재한다 그러나 화포(그림을 그리는 화면의 재료)도 역시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리는 자연의 실체가 있듯이 화포의 독립의 존재와의 양자를 우연으로 말하는 작품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말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전 미술과 현대미술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만 보고 자연에만 의존하지 말고 회화의 원주인이 되고 제바탕이 되는 화포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고 거기에서 선과 색채로 그림이라는 것을 꾸며 놓는 것이 진짜 회화라고 한것이 대단히 의의가 큰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연은 참고로 하기는 하나 화포에 그려지는 과정과 결과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즉 화포에 긋는 선·면·색채는 화포에 어울리고 화포에서 효과적이어야 한다. 사람의 형상이나 경치의 형태가 좀 비뚤어지고 이그러졌다하더라도 그 그림의 폭에 즉 화포에 잘 어울리고 보기 좋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은 존재한다 그러나 화포도 역시 존재한다」이 말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금언이다. 이 말에서 출발하고 이해하는 것이 추상회화의 이해로 가는 시발점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다시 만든다는 것보다 화포를 잘 만들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미묘하고도 웅장한 회화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이 회화의 요소라는 것이 현대에 새로 된 술어인데 그림의 이론으로서 가지각색으로 쏟아져 나오는 회화의 요소라는 것도 재미있는 말이다.

다시 「세잔」에서 말을 시작한다면 근세서양의 사실주의회화는 19세기후반에서 하나의 정점에 달하였었는데 그 시기는 사진술이 한창 기술적 성립의 시기로 들어갔을 때이다.

회화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대부분은 사진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연의 외모를 그려서

기록으로 남겨 둔다는 것은 금후로는 사진이 맡아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회화는 딴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외적인 사정에 대한 관심이 의식적으로 「췌잔」에게 있었는지 어떤지를 이제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다. 사진술의 진보완성과 병행하면서 근대적인 방법으로 회화독자의 세계가 「췌잔」으로 해서 확립되었다는 것이라는 사실이 소중한 것이다.

그림이라는 것은 원래 한적한 것이다. 가장 훌륭한 그림은 우리들을 무한의 침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것인데 「췌잔」의 예술은 그 대표적인 현저한 일례인 것이다. 「그림은 무성의 시」라는 동양의 통칭도 있듯이 「췌잔」의 그림은 그것들을 연상케 한다.

회화가 문학의 힘을 뒷받침하여 그린다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 것이 「췌잔」이었는데 그가 젊었을 때에는 자신이 시도 썼고 시인의 혼이 담백 잠긴 그의 작품에는 확실히 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무성의 순전이 회화적인 시라는 것이 그의 위대한 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구도를 보든지 색채를 보든지 필촉에 있어서든지 보드럽고 훌륭한 조화를 보여 주는 말년의 그의 작품이야말로 순수한 불란서적이라 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도회지적인 연약한 맛이라든지 공허감 같은 것은 없고 풍옥한 땅에서 생성하는 불란서농민의 힘찬 양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명랑하고 중후하고 소박한 느낌까지도 엿보인다. 「췌잔」의 화풍은 한 개의 사과라든지 수인의 리부라든지가 사진에다가 채색을 한 것처럼 그렸든지 혹은 그것이 어떠한 소위 문학적 연상을 이르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다. 「췌잔」이 확립한 회화라는 것은 그러한 것 이외에 있다는 것을 단정하고서 사진판을 통하여서라도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감상태도라면 비로소 넓고 깊은 참으로 회화적인 세계가 크게 열릴 것이다. 동시에 그것이 「췌잔」이 개척하여 놓은 거지반의 근대회화에 대한 올바른 감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사진적상이성이나 문학적 연상을 거부해가면서 회화를 감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도 한 것이며 또한 때로는 답답한 감이 없지 않으나 참된 회화감상법의 첩경은 여기에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조형예술로서의 회화는 입체적 조각이나 공간적인 건축과 굳게 결탁하였을 때에 그 건전한 자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췌잔」의 인물은 어디까지나 회화적인 것이며 동시에 두툼한 양감을 지니고 있는 점 모두가 절절한 조각이기도 하고 또는 그 정물화나 군상들은 간소하고 구성의 짜임새는 대건축과 같이 표현 되었다. 이와 같이 양감이나 공간의 구성 등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다면 근대회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의 간소하고 당당한 양감과 구성은 그 자체가 감상인의 정신을 강하고 고매하게 하는 심원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힘이라는 것에 근접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동시에 위대한 조각가의 「끝」의 흔적 같기도 한 정신의 「리듬」의 출현인 것이다. 「췌잔」의 필촉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는 것은 또한 우리들의 정신을 신선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양감이라든지 공간구성과 필촉의 「리듬」등과 또한 회화독자의 세계의 색채와 명암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고결한 것 심원한 것들은 모두가 작자의 중후한 인간성의 뒷받침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절절한 회화의 진미를 맛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감명이 대단히 심원하고 정밀한 것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회화예술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의 세계는 무한한 것이며 회화의 영역도 광범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적인 회화의 걸작이라는 것도 적지 않으나 가장 본격적인 회화의 본래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정적인 것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한한 울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췌잔」의 허다한 작품은 근대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예일 것이다. 이렇게 「췌잔」의 회화예술을 몇 가지 술어로 해설하여서 근대회화에 발전상의 초 단계를 이룩하여 보았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파가 파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췌잔」의 후기인상주의라는 모태에서 파생된 야수파라든지 입체파는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수다한 유파중에서 근대회화에 공헌이 더 컸던 것은 입체주의의 회화이념이었다. 입체주의의 이념과 화풍은 현급에 있어서는 대폭적으로 변모하였으며 추상 회화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후기인상주의의 다음으로 입체주의의 화풍과 그 이념을 살펴본다면 현대미술(Modernart)의 요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필자·서울대미대교수)



영 화

김규동

A. 이야기 줄거리의 가치

극영화에서 제일 귀중하게 여겨지고 관객의 흥미를 당기는 것은 「스토오리」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흐름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야기의 흐름이 잔잔한 개울처럼 흐르다가도 홍수처럼 휩쓸어

내려가는 성난 모습을 지나 대해로 이를 때에는 유유히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기록과 「췌스펜스」와 「스릴」, 이런 것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스토오리」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에 극영화(Dramafilm)의 재미가 숨어 있다 하겠다.

모성애를 취급한다든가 또는 형제애까지 취급하는 작품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랑을 그린다는 것은 중요한 제제가 아닐 수 없겠다.

모성애에는 <스테라·다라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아메리카」 영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지도 못한 작품으로 관객에게서 눈물을 짜내려 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있어도 참된 모성애를 그린 작품은 드물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작품이 울어달라고 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관객) 모르게 작품을 봄으로써 그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르네·프렐》은 반 농담조로 빈정대는 의미에서 부성영화의 전형으로서는 <췌레르의 아들>이 있고 형 제애에는 <보오·체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으며 이밖에 아버지애에 대한 어린이의 사랑을 취급한 것으로(Over the hill)이라는 것이 있다고 중얼거렸다.

그의 이 말은 사랑의 가지수, 다시 말하면 그 하고 많은 「메뉴」에 대해서 바웃은 「아이로니」의 한 표현으로 말한 것이겠지만 하여간 이러한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별로 본 기억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상론을 피하기로 한다.

그런데 《르네·프렐》은 이러한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작품들은 모두 관객의 눈물을 짜낸 것들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은 대개가 희생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양녀가 되어있는 아가씨한테로 정말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와서 이름을 밝히려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가씨가 훌륭한 청년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어머니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쓸쓸히 단념하고 자기 딸의 행복을 빌며 그림자를 감추고 만다.

이러한 줄거리만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이좋은 형제가 한 사람의 연인에게 애정을 느끼나 결국엔 서로 양보를 하고 자취를 감추거나 나쁜 놈의 흉내를 내어 여인으로 하여금 단념케 하고는 서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루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말하자면 자기희생을 해서라도 형이 동생의 애정세계를 이루어 주려고 하거나 동생이 언니의 애정을 성취시켜 주려고 한다.

이것도 그 희생의 도화선이 되는 「플롯트」를 궁리해서 여러 가지로 바꿔본다면 아주 틀린 여러가지의 「스토오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삼각관계도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이 남자에 한 사람의 여성 또는 두 사람의 여성에 한 사람의 남자와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이것이 더 심해지고 사건을 더 얹히게 하여 「스릴」과 「췌스펜스」를 더하려는 심리상의 효과를 노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각관계 오각관계 같은 것도 그려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누가 행복의 종말을 얻게 되느냐 하는데에 관객의 흥미는 쏠리게 되는 것이다.

신분의 귀천이 사이에 끼어서 모처럼의 연애도 단념 하잖으면 안되게 되어 관객들에게 눈물을 요구하는 못된 버릇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영화 거개의 경향이 되어있는 것이다.

「프롯트」라는 것은 얼마 던지었다. 우리가 열른 생각해보더라도 동생을 위해서 일생을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내서라도 학비를 대며 동생이 한사람의 사회인이 될 때까지 희생을 자진 감수하는 타일과 같은 희생형이 있고, 무슨 큰 인테리젠스는 없다하더라도 남편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잘 일가를 처리해 가는 그런 여인은 가정형에 속할 것이고 이밖에도 모험형이나 공포형이나 또는 범죄형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수량이 많고 수질이 좋은 우물은 아무리 퍼내어도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백 몇만의 영화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플롯트」가 고갈되는 길은 없다.

오직 있다면 「플롯트」를 발견 못하는 「췌나리오·라이터」가 되려면 이런 것을 염두에 일단 두고 인간과 사회와 문명의 여러 과정을 몸소 겪으며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다. 동시에 감상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플롯트」의 우열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B.

우리는 배우의 이름에 끌려 영화 구경을 가게 되는 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배우는 관객에게 있어서 제일 가깝고 또 친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가가 돈벌이 하는데 제일 귀중한 존재인 것도 참말이다.

홍행가치라는 것은 거의 「스타아」의 이름이 좌우한다는 평판이 나붙는 것도 순전히 이러한 데에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배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무대배우라든가 「래디오」의 성우와 어떠한 차이가 거기에 가로놓여 있을까?

영화배우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개성과 연기력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기초라고 하겠다.

육체미라든가 성격이 특징이라든가 매력있는 표정이나 그 처리의 오묘한 눈길 같은 종류의 다채로운 구사가 배우의 연기에는 따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기에 영화예술의 근본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지도 모른다.

화면에서 보는 이 매력, 이 얼굴, 그

연기에다가 그럴듯하게 애타는 연애장면 같은 것을 그려넣는 「스토오리」가 화면에 전개될 때 그것은 정말 일반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영화배우에게 있어서 육체나 성격의 특징이나 매력이 중요하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이유는 영화가 사물이나 인물의 보이지 않는 구성구석까지 그려서 화면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성질을 띄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배우의 몸집이라든가 얼굴이라는 것은 관객들의 눈앞에 비쳐 나온다.

연극일 경우에는 객석과 무대와의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고 관객은 배우들을 좀 떨어진데서 보게 된다. 따라서 분장으로써 감춰 버릴 수도 있다.

그 얼굴의 결합이나 표정의 미비같은 것을.

상당한 연기수준에 도달한 여우라고 한다면 50세가 되어도 17, 8세의 소녀역을 담당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에는 「크로오즈·업」이 있고 또 「츄랙·업」이나 「폴·숏트」같은 것이 있어서 아무리 분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관객의 눈을 속여낼 재간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거기에는 한도가 있고 화면 가득히 커다랗게 비치면 그만 나이가 드러나고 주름살이나 구겨진 얼굴의 자취가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또 라디오의 성우인 경우에는 아무리 못난 얼굴을 가졌다 하더라도 목소리에 아름다운 감정을 담고 예쁜 목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문제없이 성우 형세가 가능한 것이고 청중들도 귀로 들으면 족하고 또 눈으로는 볼래야 볼 수 없으니 무방하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무리 목소리가 예쁘더라도 관객의 귀보다도 관객의 눈에 흡족한 만족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목소리는 어쨌든 얼굴이 아름다워서 일반적으로는 눈요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객에게 눈요기가 되려면 역시 연기가 좋아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영화에서도 메이크·업 즉 화장으로써 어느 정도 얼굴이 캄푸라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원체 지니고 있는 육체미가 「스타아」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됨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배우는 그가 지닌 선천적인 용모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C. 배우와 사진 기술

실제의 눈에 비친 것과 「카메라」에 비쳐오는 때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육안으로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보아 아름답지 않으면 이것 역시 낙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사진에서 찍혀진 얼굴이 좋으나 나쁘나 즉 전문어로 말한다면 포트제닉크(Photogeique)인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카메라·웨이스(Camera face)가 좋으나 나쁘나에 대개 달려있는 것이므로 문제는 언제나 여기에 걸리게 된다는 말이다.

<허리운>에는 용모에 자신이 있는 아가씨들이 아메리카 전역에서 모여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온 마을에서 또는 도시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이 아가씨들이라 해도 촬영소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얼굴이 카메라에 합당치 않다는 까닭으로 그만 사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용모뿐만이 아니다. 온몸에 걸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일견 보아서 모양이 나지 않는 육체적 조건으로써는 도저히 「스크린」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도 흥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양이 있고 「카메라·웨이스」가 좋으면 다 배우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밖에도 사람의 흥미를 둘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극단의 예를 든다면 「지미·뉴란티」라는 배우는 그 커다란 코가 상당히 팔린다. 또 <쥬오·E·부라운>과 같이 돈지갑과도 같은 커다란 입으로 한뼘 보는 인기 스타아도 있다.

<마리린·몬로>와 같은 배우는 위워크·아웨이(Walk away)와 같은 엉덩이 걸음으로 이름이 났던 것도 웃지 못할 일이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지니고 태어난 육체상의 특색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수도 있다.

육체상의 특색은 이른 바 타입으로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우의 육체적 특색이 무대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명백하게 확대되어 그려지는 데도 원인이 있다.

가령 일례를 들어서 말한다면 보기만 해도 악한과 같은 얼굴을 가진 배우가 있는가 하면 당당한 체격에 꼭 무슨 실업가를 연상케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순진한 아가씨 타입이 있는가 하면 아양을 떨면서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할만한 여급과 같은 여성도 있다.

이와 같이 제 각기 하나의 타입을 몸에 지니고 훌륭한 연기으로써 이것을 소화해 버릴 때 배우의 조건은 일단 구비되는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D. 영화음악의 조건

영화감독이 음악을 모르는데 비하면 음악가는 비교적 영화를 아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영화 음악에 대해서 그 효과와 형태에 대한 포착에 꽤 재빠른 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음악은 사이렌트 시대의 반주와 거의 같은 생각과 방식으로 작곡되었다.

즉 화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소리로 번역해서 화면의 장식으로서 그 효용성을 간주한다든가 또는 효과로 생각하든가 이 두가지중의 하나로서 그것은 쓰여 졌었다.

<한스·아이스파아>의 <영화를 위한 작곡>이라는 책을 뒤져보면 이와 같은 영화음악의 방식을 가리켜 <허리운>에서는 형용하기를 「Birdie Sing, Music Sings」라고 비꼬고 있다는 것이다.

(59P로 계속)



사 상

전환의 모색

박종홍

☆ 사 상
☆ 정 네
☆ 정 네
☆ 정 네

정 네의 정 네

정네 하나의 전환이 싹트고 있다. 갈 곳까지 가고야 만 근대적인 세계관은 이제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새로운 모색에 의하여 이미 낡은 것으로 낙인이 찍히어지면서 있다.

여기에 새로운 모색이란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존사상 말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과학철학도 실존사상도 새로운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근

대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연장시켜 철저화한 것 뿐이다. 그러기에 갈 곳까지 가본 것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못된다.

1,

도대체 과학철학 자체가 그 본령으로 하는 바는 그 어떠한 성질의 것임을 막론하고 하나의 세계관(Weltanschauung)을 제공하려는데 있지 않다.

실사 세계를 운운한다 치더라도 오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그림적하다고 생각되는 세계상(Weltbild)을 그려 보이는데 그친다. 대상화된 세계관이 그대로 세계관인 것은 아니다. 과학자는 그저 우주는 시시각각으로 팽창하면서 있다든가, 지구를 향한 달의 저쪽 뒤의 표면이 이러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든가, 있는 그대로 알려 줄 뿐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이라는데까지 나간다면 그것은 벌써 순 과학적인 영역을 넘어서선 발언인 것이다.

세상을 그리는 과학자라고 하여 하나의 세계관을 가져서 안 될리는 없다. 그러나 이때의 세계관은 벌써 단순한 과학이상의 것이다.

이러한 과학의 본질을 밝히려는 과학철학도 역시 어떻게 하여 세계상이 그려지는가는 분석 해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자기의 본령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선부는 세계관의 주장은 삼갈것만 같다. 만일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필시 과학철학 아닌 또 하나의 다른 관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세기말적인 모든 퇴폐상의 책임을 근대과학의 발달에 전가함은 천만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학자체는 어디까지라도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 내려고 할 뿐이요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리든가, 화근을 만 들어서는 안된다든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교훈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이 나의 대상으로서의 세계상을 그리는 것 인만큼, 나를 문제삼을 때에도 대상화된 내가 문제요 대상화하는 주체로서의 나까지도 대상화 해버리고 만다.

내가 과학철학적인 사고방식을 향 외적이라고 하여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상화할 수 없는 것은 언제나 과학의 영역 밖이다.

그런데 세계상 아닌 세계관은 이 주체로서의 나를 제외할 수가 없다. 대상화하는 주체로서의 나 자신도 틀림없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주체를 빼놓은 세계는 알맹이를 빼놓은 세계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전체적이어야 할 세계자체일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니이체는 그의 「짜라투스트라」에서 세계는 한없이 깊은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2,

세계를 나의 대상으로서 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속으로 침잠하면서 찾으려고 한 것이 실존사상이다. 나의 주체성을 떠난 실존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원래 실존이란 예외자요 고독한 것이었다. 거기에 무슨 세계를 생각할 여지가 있는가 할런지 모른다. 키엘케골도 온 세계를 잃어버린들 실존만 확보하면 그만이라는 의미의 말을 하지 않았던가? 실존사상에는 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안중에 없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것처럼 예외자의 고독한 실존사상이 어찌하여 나 아닌 타인의 실존을 다름 아닌 실존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베토벤의 음악은 베토벤만이 알아야 하고, 도스토포예프스키의 소설은 도스토포예프스키만이 알아야 함직한 일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명곡이라고 하며 걸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고독한 예외자로서 자처한 키엘케골이나 니이체의 남기고 간 글이 어찌하여 널리 읽혀졌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까지 특히 청년층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음은 웬일인가?

고독한 예외자의 주체성을 꿰뚫고 넘어서므로써 도리어 어떤 공통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실존사상을 나의 속으로 침잠하면서 세계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하는 소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 실존사상을 항내적이라고 하여왔다.

과학철학은 세계를 나에 대한 대상으로서 항외적으로 보려는 것이요 실존사상은 항내적으로 나의 속으로 기어들면서 세계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하여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연장이며 더구나 갈 곳까지 가고만 것이 되는 것인가?

3,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표현은 「나는 생각한다.」에 있다. 데카르트의 Cogito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칸트의 Ich denke로서의 통각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 생각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 키이포인트다. 철두철미 <나>중심이다. 빠스칼의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인간도 나요, 피히테의 비아를 정립하는 것도 나요, 헤겔 변증법의 골자인 An sich, für Sich, an und für sich의 Sich도 나다. 나로부터 출발하여 나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그러기에 근대의 철학사를 나의 자각사라고 함도 그림직한 말이다. 이것이 중세기의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로부터 모든 사상을 전개하려던 것과 대조적인 점이다.

15,6세기의 르네상스는 <나>중심으로 사상의 방향을 들었고 그것이 근대철학 내지 세계관의 밑받침으로서 커다란 기초가 되고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중심의 사상은 하이텍거에 의하면 니이체의 「권력에의 의지」에 이르러 의지예의 의지, 의지자체를 의욕하는 극단적인 것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단계보다는 하나 앞에 있는 것이요,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에 대하여 에네르기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이 현대의 과학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모든 것에 대하여 미리 세워진 계획대로 자기를 관철하려는 무조건적인 의욕을 가진채 인간은 스스로 대지의 주인노릇을 하려고 대들고 있다. 이것이 갈 곳까지 다 가버린 근대적 사고방식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갈 곳까지 다 가서 이제 더 갈 데가 없다면 방향을 전환하는 도리밖에 남지 않았다. 현대의 많은 지식인 들은 또 하나의 르네상스의 도래를 외친다. 이 새로운 현대의 르네상스는 과연 어떠한 현대관의 각광을 받으며 등장할 것인가?

과학철학은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보려하고 실존철학은 속으로 기어들면서 세계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향외니 향내니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태도다. 나 없이 대상이 있을 리 없고, 나 없이 실존은 무의미하다. 자가적인 의식이야 하건 말건 나를 주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사상들임은 마찬가지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현대철학의 커다란 두 조류를 하나같이 근대사상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관의 새로운 전환은 과학철학에서도 실존사상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전환은 어떻게 짚고 있는 것인가? 중세기의 하나님 중심으로 복귀하려는 것인가? 기독교의 오랜 전통적 정신으로 밑받침 되어 있는 서양사상만 하더라도 새로운 철학적인 사색으로서는 쉽사리 그렇게 되돌아가기 힘든 것도 같다. 인격화된 존재자로서의 신은 신앙의 대상으로는 생각하기 좋으나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통과하여 온 현대의 지식인으로서는 무엇인지 다른것을 모색하며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의 지식인은 구세주의 재림에도 미륵불의 출현에도 믿음으로써의 기대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약아졌고 회의적이다. 더구나 계몽산 정도령이 잣을 벗어야 했을 날은 벌써 지나간 지도 오래다.

4,

그리하여 하이텍거는 존재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나>중심이 아니라 존재중심의 세계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현존재는 그것이 이미 어떻게 있게끔 존재에 의하여 던져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철학적인 사색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것도 곧 존재 자체다. 철학적인 사색은 그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리면서 그 존재가 언표로서 드러날 수 있는 말을 신중한 태도로 찾음으로써 그의 사명을 다한다고 한다. 철학에 대한 이러한 견해로 미루어 하이텍거가 자기의 철학을 실존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실존론에 정립하는 것이라고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나라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철학적 사색을 하게끔 하게 하는 한에 있어서 조심 조심 그에 응답함으로써 마치 존재가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려는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 뿐이다.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다름아닌 진리다. 그리고 존재가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존재 자체인 것과 같이 존재가 은폐되어 존재망각 속에서 사색을 하게 되는 것도 다름아닌 존재자체로부터 시켜지는 일이라고 하이텍거는 생각한다. 그런만큼 근대의 존재망각의 철학사는 물론이요, 현대의 과학적인 기술도 <나>중심으로 그쳐 인위적인 것 같이 보이나, 그의 <본질>을 추궁하면 인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오히려 그에게 봉사하여야 되는 존재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기술 자체라든가, 원자폭탄 자체라든가 그대로 현대의 위험인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본질>이 존재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몰라보고 인간이 제 스스로 대지의 주인인양 잘 못 생각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현대적인 위기로부터의 구원은 잃어버렸던 고향을 다시 찾듯이 존재망각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운명이 그로부터 생겨나는 근원적인 것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있다는 것이다. <나>중심,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이 마치 180도의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로부터 아이텍거의 철학을 신이 없는 신학이라고 비난하여온 학자들이 있었거니와, 일찍이 하이텍거의 문인이었던 뢰비트는 하이텍거의 철학이 기독교신학의 변형에 불과함을 폭로한다. 모든 존재자를

초월해 있는 하이텍거의 존재가 역사적인 운명을 결정하면서 있다고 함은 마치 초월적인 신이 그의 섭리에 의하여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그리고 현존재의 존재이해를 발판으로 우선 현존재의 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하이텍거의 기초적 존재론이 아직도 인간학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고 하여 오히려 하이텍거 자신이 의도하는 바 <나>중심의 잔재 극복이 수행되고 있지 못함을 밝힌다. 그리하여 뢰비트 자신은 하이텍거의 존재대신에 자연, 초월적인 신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자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연을 배울 것을 주장한다. 세계는, 하이텍거의 공허한 존재가 역사적인 운명을 전개하는 것과는 달리, 항존적이며 자기동일적인 질서를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뢰비트의 사상에서 우리는, <나>도 아니요, 신도 아닌 자연 자체로서의 세계를 중심으로 하려는 새로운 전환을 엿볼 수 있다.

5,

전환의 모색은 존재를 넘어 자연에까지 있다. 하이텍거 자신도 최근에 이르러 희랍 고대에 있어서 씌어진 physis(자연)와 Logos라는 말들을 새로이 해석하고 있다. 원래가 Ontologisch 할 뿐 Ontisch 한 면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을 받아 온 사상인 만큼, 존재의 초월에 의하여 분리되어버린 존재자를 되살림으로써 존재만으로서의 공허를 메우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 하여간 하이텍거나 뢰비트나 자연을 현대과학적인 대상화된 자연으로 보는 것이 아님은 알 수 있다. 동양은 고대로 자연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만큼 위에서 본 자연중심의 사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의 서구의 세계관은 과연 동양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양학자가 한갓 된 호기심에서 동양사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된다. 특히 무위이무불위라는 동양의 자연사상이 새로운 흥미를 이끌게 되고 있음도 무리가 아닌 상 싶다. 그러나 동양에 있어서 자연은 동시에 하늘이요, 하늘이 하는 일이 그대로 자연의 질서며, 세계자체의 질서인 것이다. 그리하여 질서란 곧 천리이었다. 사람의 본성도 천명이외의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도리는 천리 그대로를 실현하는 것 밖에 없다. 새로운 전환이라고는 하나, 우리의 선인들은 이러한 이치를 그 옛날부터 이미 밝혀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재생이라는 의미 그대로의 르네상스 같기도 하다.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어떤 시사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람의 하는 일이 비록 <나>를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천리 그대로인 한에 있어서 자연의 질서에 어긋날 리가 없다. 과학철학도 실존사상도 이 천리를 벗어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과학이나 실존을 그쳐 박차버리기만 하는 자연이나 하늘이어서는 안된다. 만일 하이텍거의 존재나 뢰비트의 자연이라는 것이 획기적인 새 출발에 임하여 반발에만 급급한 나머지 근대적인 것을 다시금 올바르게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서양의 근대사상을 무턱대고 멸시만 하려는 일부 동양의 미흡한 자연관과 다를 바 없게 되고 말 것이다. 현대의 과학적 기술을 살려서 포섭하지 못하며 인간적인 <나>중심의 사상을 그의 적극적인 의의에 있어서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새로운 전환은 오히려 그의 성취가 의심 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세계관은 근대적인 것을 그쳐 박차버리는 방향으로 갈 수 없고 그것을 자기 밑에 지양하여 <나>중심의 사상을 그의 진의에 있어서 되살릴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신 자연이며, 천이며 자기의 이법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그것이 동시에 인위 있어서 모색되어야 할 유일 진정한 세계일 것 같다.

연극



비논리성과 재연극화

- 연극은 왜 연극이어야 하는가 -

여석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유명한 『시사』에서 연극을 정의하여 행동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 행동가운데 포착하는 예술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물론 인간 그 자체와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고 그 행동에다 내적이건 외적이건 논리를 부여해주는 어떤 일정한 상황을 아울러 지칭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간조건 아래서 발생하는 근원적인 갈등을 그릴 때 진정한 드라마가 성립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는 보편적으로 승인되어 왔던 것이다. 다만 시대와 유파를 달리 했을 때 그 그리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를테면 고전주의가 가장 전형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룬다고 주장하고 상징주의가 감각적이며 암시적으로 다루기를 고집하는 반면에 자연주의는 과학적이며, 구체적으로 인간을 그려 보겠다는 태도를 표방한다.

이 자연주의적 방법, 현실의 어김없는 재현이라고 그 신봉자들이 주장하는바 실은 일상성의 지극히 자연스런 외면묘사를 크게 넘어서지 못한 연극관은 리얼리즘 연극의 급과옥조로서 현대극(혹은 근대극이라 함이

74

타당할까)이 디디고 선 기반을 이루었다. 연극의 일상적 현실의 차원으로 환원시키고자한 이러한 시도는 19세기 후반의 정신적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당연 이상으로 당연했다고 할 것이며 행동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파악함에 있어 고전적 또는 낭만적 인간형-글자 그대로 히어로(영웅)라 불릴 수 있는 주인공들의 그 이상화된 배일을 벗기어 특권을 박탈하고 그 대신 더할나위 없이 평범하고 구체적인 인간을 무대 위에 등장시킨 그 혁명적 의의를 물론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생활과 행동을 지나치게 평면화시켜버려 연극이 일상적 현실을 구차하게도 묘사하는데만 자족하고 그 묘사를 통한 현실의 <환영>의 획득에만 급급하게 됨에 리얼리즘 연극에 대한 반발이 여러가지 형태로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혹자는 내면성의 논리를 찾아 주관의 강조와 묘사가 아니라 호소에 의한 표현을 찾고자 노력했고 또 혹자는 일상성의 차원을 초극하고자 꿈의 세계로, 유전이나 환경으로서 설명되어 오던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의 세계로 날아가 버렸다.

이러한 반사실의 흐름이 여전히 주류를 고집하는 리얼리즘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현대연극의 활로를 개척해 온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도가 지나치게 실험적이고 전위적이고 때로는 호기에 흘러버렸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현대의 방향을 지시해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경향 즉 타이틀에다 표시한 바 연극의 재연극화와 비논리성의 입장에서 현대연극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보고져 한다.

<연극의 재연극화>란 용어는 프랑스의 유명한 연극지도자였던 「자끄·코뽀오」가 1913년에 자신의 소극장 「뷔·코롱뷔에」좌를 창설 하였을때 <연극으로 하여금 다시 연극이게 하라>는 구호 아래 주창하였는데 그때 그가 반발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상업주의적 연극의 비속성과 동시에 당시의 극단을 풍미했던 자연주의연극의 지나친 현실묘사였었다. 연극의 연극다운 요소를 다시 찾아내야겠다는 일종의 복권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장은 근대극의 기치를 처음 들고 나선 「앙드레·앙뜨와느」의 자유극장(1887)운동이 재래의 신파조와 영리주의를 대담하게 비판하여 극단의 혁명을 일으켜 연극에다 문학성과 현실성을 주입시킨 그 공적의 부산물로서 「트리비알리즘」에 빠지게 된데 대한 경고를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코뽀오뿐만 아니라 넬리 예술극장운동이라고 일컫는 일련의 시도에 공통되는 현상이었다.

이 운동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리얼리즘의 퇴조를 자극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 중요한 일환을 이루는 인사가운데 영국의 「고든·크레이그」, 스위스의 「아돌프·아피어」, 독일의 「막스·라인할트」, 러시아의 「메이엘홀리드」등 쟁쟁한 무대예술의 대담한 실험가를 들 수 있다. 크레이그는 연출자가 갖는 의의, 즉 한 개의 연극을 창조하는데 통일성을 가진 예술적 두뇌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여 연극으로 하여금 그 자체에 봉사하는 순수한 예술임을 재확인 하고자 들었다. 그의 주저 『극장예술론』(1905)등에서 강조하는바 그의 주장은 <극예술은 연기도 아니고 희곡도 아니다. 그것은 또한 배경도 아니며 무용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것들이 성립되어 있는 바 일체의 요소 즉 연기의 진수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동작, 희곡의 육체인 언어, 배경의 틀림없는 진수인 선과 색채, 무용의 본질인 리듬. 극예술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연극을 구성하는 미학적 인자를 그 근본적인 것으로 일단 환원시켜 그것의 유기적 조화를 통하여 연극이라도 순수한 앙상블을 재구성해 보기를 원했으며 그 주체로서의 연출자의 기능을 매우 중요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일체의 불순을 용납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극단에 흐를 때 산 배우의 말살과 「초인형」의 이론을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연기는 예술일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배우를 예술가라 함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연은 예술의 적이기 때문이다. ……예술이란 오직 설계로서만 이룩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경우 우리가 사용가능한 재료만을 사용해야 함은 백명한 노릇이다. 그런데 인간이란 그런 종류의 재료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극단적인 언명가운데 우리는 <연극으로 하여금 다시 연극이게 하라>는 요청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여하튼 이러한 반사실 반자연주의의 주장<리얼리즘은 한 개의 회화이다. 사실에 의존하는 한 극장은 필경 삼류 악극장으로 타락해 버릴 것이다. 왜냐면 리얼리즘에는 상충이 있을 수 없고 언제나 하강뿐이기 때문이다>은 무대의 조형성을 강조하여 무대미학을 수립하고자한 아피어나 일상적무대의 충충한 분위기를 버리고 다채로움과 미적균제를 강조하는 감각적 무대를 이룩한 라인할트나 리얼리스틱한 정서와 심리의 묘사를 부정하여 구성적 무대와 역학적 연기체계에 의존한 메이엘포르트에 모두 공통되는 바로서 그들이 지향한 「연극적연극」의 방향은 리얼리즘연극이 공적과 족적이 컸고 근대극창시에 이바지한 그 역사적 의의가 막중하였음에 반비례해서 더욱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대양식을 널리 대별하여 재현적 형식과 시현적 형식으로 양분하여 전자를 <극장바깥에 극장과는 전연 독립해서 존재하는 인생에 충실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후자를 <극장안에 존재하고 극장의 형식에 따라서 표현되는 인생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라 설명한다면 전자의 것이 곧 이 무대위의 리얼리즘 내지 자연주의이고 각자는 거기 대립하는 이른바 「극장주의」의 연극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후자의 움직임은 이렇듯 활발하기 짝이 없었으며 현대극의 다채로움을 약속하는 새로운 활로의 구실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연극내에서 고개를 들게끔 기운이 성숙해 있었다는 자체의

이유와 병행해서 현세기의 여러모에 걸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변화가 무대에도 불가피하게 부단한 영향을 주어왔다는 점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1차대전후 특히 패전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표현주의 연극은 그것이 전후적 혼미와 절망을 보다더 내면적으로 보다더 절박하게 무대위에 나타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러시아의 메이일포르드가 뒤에는 완전히 부정당하고 말았지만 그 기능주의적 연극관을 혁명기의 현실에서 자극받았음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그밖에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동안 꽃이핀 초자연주의 이타리의 미래파 등의 흐름도 문학이나 미술 기타의 분야와 병행해서 연극에도 역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위적 실험이 비록 영속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연극의 거름이 되고 연극의 영토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무대를 언제나 새롭고도 생기에 찬 곳, 희색의 현실의 따분한 묘사가 아니라 미와 상상의 영원히 아름다운 궁전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 연극의 재연극화를 위한 움직임이 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비록 크게 눈에 띄이는 일이 없으나-치더라도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연극이 왜 연극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은 현대에 와서 위에 말한 바 재연극화의 방향으로만 나간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전형식의 재검토라는 명제를 내걸고 거기서 현대에 살려야 할 연극본연의 요소를 추출하는 노력으로 발전하였는데 사실이지 현재만을 고전·고희랍에서 쉼스피어에 이르는 그 다채로운 유산의 새롭고도 다양한 해석이 무대위에서 시도된 적이 일찍이 없었는 듯 하다. 그 일익으로서 말의 매력을 다시 찾자는 시극부활의 움직임도 산발적이나마 일어났고 무대의 양식화를 위한 시도도 많이 엿볼 수 있었다. 소포클레스와 쉼스피어와 올리엘이 현재에 갖는 의의가 새삼 강조되었고 그들의 소재가 현재적인 의의를 부여받아 새롭게 해석되는 계기를 가진일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적 의식적인 <연극의 존재이유>의 현대적 규명의 결과로 무대위에서의 현실의 <환영>을 전적으로 부정하여 사건을 이야기하고 관객을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하고 삽화적 구성을 택하고 <썬스펜스를 사용하는 대신 장면각자가 서로 긴장에 충만해 있으며 그 장면들의 상호연관가운데 썬스펜스가 성립되는> 이른바 <소격화의 효과>를 노리는 독일의 극작가연출자 브레히트의 <서사적연극>같은 매우 융통성이 있는 주장이 그 비리얼리즘이 수법으로 해서 연극 본연의 전통에 부응 하고져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연극의 재연극화의 색다른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는 달리 여기 극단의 반사실의 일례로서 근자에 일어난 <반연극>운동의 경우를 들어 현재의 제정후에 알맞게 연극의 어느만큼 형식파괴와 그 실험의 극화를 지향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950년에 들어와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연극>운동은 그 철저한 논리성의 부정으로 해서 <연극이 왜 연극이어야 하는가>하는 명제에 대한 매우 암시적인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 주는듯 하다. 「아다모프」, 「베켓트」 「이오네스코」등 색다른 배경들을 가진 극작가들이 전통과는 완전히 단절된 지점에서 출발하여 일으킨 이 운동은 그 색다른으로 해서 피상적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실은 연극의 재래적 전달방식에 대한 기본적 반성을 강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글의 첫머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빌려 연극을 행동하는 인간의 행동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예술이라 했고, 그 행동에는 일정한 상황이 설정되어 그것이 행동에다 내적이건 외적이건 논리를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극행동의 논리성은 고전극이건 근대 사실극이건 수법을 달리할 뿐 언제나 연극이 시작하고 진행되기 위한 전제로서 존재하기 마련인데 <반연극>은 이 논리성을 거부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그 등장인물은 많은 경우 기억을 상실하고 그것을 가다듬을 만한 논리를 결여한다. 그럼으로 해서 그들은 언뜻 보기 전후의 연관없이 행동이 일어나며 그 행동의 주체로서의 인격의 통일이 없는 것이다.이것은 이중인격이라 하는 경우의 그 변화 또는 변신과는 물론 다르다. 인간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보다 옳다고 보는데 반연극 작가들의 극행동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 있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인격이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인물들 사이에 전달이 없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들 처음부터 전달을 의도조차도 하지않고 있는 것이다. 대사가 상호간의 대화라는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각 인물의 독백의 병렬을 넘지않으며 그것조차도 일상적 언어의 해체에서 견을 수 있는 비논리성(때로는 우려하고 때로는 우스운 년센스)을 노린다. 다만 음이 비슷하다든가 대칭적 관계에 있다든가 함으로서 행동의 주체의 의사라는 관계없는 원리에 의거하여 그것도 그러한 잡다한 원리를 상호연관없이 사용함으로서 행동의 배열을 시도하는 것이다. 거기따라 상황과 행동이 전연 관계없이 설정됨으로서 연극이 갈등이고 대립이라는 고전적 질서는 완전히 묵살되고 만다.

이러한 제특징에서 웅당 생각할 수 있듯이 그들의 희곡에는 주제의 발전이라든가 철학 또는 문학성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작품은 시간의 예술이면서 한장의 그림같이 공간성의 근력을 갖는다. 순간적인 충동을 주는 대신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일상성은 <반연극>에 있어서도 전면적으로 취급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판이하다. 이오네스코를 인용하면 <새다른 것은 내생각으로는 더할나위 없이 퇴색하고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 일상생활의 산문을 그 일상성의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추구하는것 이외로는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나에게 있어 진부한 것 만큼 나를 놀라게 해주는 것은 없다. 초현실이 바로 거기있는 것이다.> 그들은 일상성을 있는 것대로가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이끌고 나감으로서 새로운 효과를 견우려고 드는 것이다. (p85로)



정 비 사 의 수 기



하사 최종인

삼복더위도, 휘몰아 치는 북풍도 아랑곳 없이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정비사의 심정에 울어 나는 잡상이 있다면 나의 수기로 메워 보려 한다.

기름으로 온갖 무늬를 수놓은 작업복 속에서 오늘의 괴로움보다 내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두손을 입김으로 녹이지 않으면 안될 정비사! 아니 나라의 영광을 사수하는 전투기의 위력, 누구의 힘이 담겨 있을까? 오늘도 내일도 낮이나 밤이나 살결을 에어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야 하며 삼복 더위에도 그늘을 찾을 수 있는 휴식의 시간마저 박탈당할 때가 허다한 정비사의 심정을 위로하여 달라고 외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옛말에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은 바르고 이치에 타당하다고 외친다는 말이 있다. 나도 정비사로써 내가 하는 정비는 어느 일보다 참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보다 저 막막한 푸른 창공을 마음대로 날으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누적된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처럼 오로지 나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자꾸만 자꾸만 하늘로 달리고 있다는 환희의 월등감이 나의 육신과 정신을 어루 만져 주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감상에 자아마져 던져 버린 정비사가 있다면 철없는 어린 아기라고 할지 모르나 이와 같은 무아경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힘으로 직접 비행기 정비 작업에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느껴 보지 못할 것으로 여기서 단정하려 한다.

물론 몸에 상처마저 받아가면서 아파마져 생각할 겨를 없이 모든 정성과 기술을 다하여 작업수행에 여념이 없어도 정비 불충분이란 낙인을 받아 재정비 지시를 받아야 했을 때의 심정은 그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괴로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항공기가 좋은 결과로 무사고비행의 쾌도에 오른다면 그것은 나의 기술과 능력이 월등하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고는 배겨낼수 없다. 또한 갖은 힘을 다하여 작업한 항공기가 시험비행을 하는 순간을 당할 때마다 정비사가 아니면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초조감과 긴장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렁찬 폭음과 함께 나의 입김에 서린 얘기가 비상해 오를 때의 그 환희 그 쾌한 감정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야전 정비대대 근무)

악 세 사 리

하사 김철식

「악세사리」하면 의례히 여자들만의 전용어처럼 되어 버린지 오래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핸드백... 세자면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식품들을 여자들은 가지고 있다.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약간 민망스럽게 들리려는지 모르나 목이긴 사람은 이러이러한 목걸이를 해야하고... 핸드백 색깔은 계절에 맞추고...구두땀 굵은 높아야 하느니 낮아야 하느니...따위의 쓸데없는 걸치레로 자기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걸치레들은 자신을 과장하기 위한 한낱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를 움직인 책들> ⑥

원시시대 이래로 인간은 천공의 현상에 관심을 갖고, 그 영향을 받아 전설, 종교, 예술등에 있어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 고대의 과학자와 사상가들에서 천문학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은 기원전 5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희랍사람들이었다. 기원 1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에집트 사람 클로디우스·톨레미는 그 자신 및 그 당시까지에 알려진 고전적인 지식을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체제로 만들어 놓았다. 이 이론은 거의 1500년간을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주에 대한 참된 개념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톨레미의 이론은,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이며, 태양과 항성을 포함한 모든 천체가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는 생각위에 세워진 것이다. 유성마다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구가 있고, 지구는 그 중심에 있다. 항성은 이 유성계의 밖에 있는 다른 일개의 구에 부착되어 있어, 이들 모든 구는 24시간만에 한번 회전한다. 유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동쪽을 향하여 움직여가며 주기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다가 마침내 정지하고 이로부터 한참동안은 역행(동에서 서로)하여 다시금 동쪽제로의 운동을 시작한다. 이러한 운동을 한없이 계속한다. 따라서 우주는 구모양의 덮개로 한정된 폐쇄된 공간이다. 이 우주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톨레미의 이론이 일반적인 찬동을 얻은 것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두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다. 첫째로 이 체계는 자연의 외견과 일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측자에게도 보이는 그대로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인간의 자아를 만족시켰다는 점이다. 지구가 하늘의 중심이며 유성과 항성이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우주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같이 생각되어 즐거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구조는 유럽에서 지성이 눈뜨던 시대 르네상스에 와서야 한 천재에 의해서 문어지게 된 것이다. 코페르니쿠스가 그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시도한 혁명적인 학설은 톨레미의 설과는 정반대되는 곧 지구는 부동이 아니며 지축 주위를 하루에 일회전하고, 1년에 한번 태양의 주위를 운행한다는 것이다. 16세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은 극히 기괴한 것이었으므로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자료에 대하여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얻기전에는 제시하기를 삼가하여 그 때문에 발표가 30년 이상이나 지연되었던 것이다. 1543년 5월 24일 그의 대작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의 제 1권을 가지고 온 사자가 프라우엔베르그에 도착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손에 그것을 전한 것은 그가 죽기 겨우 몇시간 전이었다. 로오마법성 파울3세에게 바친 헌사와 오시안데르의 허위의 서언(천문학자를 위한 편의적 가설이니 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적어 교회의 관심을 흠어지게 함)에 이어 6편으

로 나뉘어지고 각편은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 1편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 태양중심설에 관한 논의·지구도 다른 유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는 생각 및 계절에 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본편의 마지막 몇장은 삼각법의 텍스트로서, 이 수학상의 정리는 후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제 2편에서는 천체의 운동이 수학적으로 다루어져 있으며, 최후로 천공의 별의 위치를 표시하는 일람표·약간의 정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톨레미에게서 인계받은 것가 있다. 다른 네편에는 지구, 달, 유성의 운동에 관한 상세한 기술이 있다. 어떤 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언제나 코페르니쿠스의 계산을 기초로 하는 천체의 진로를 표시하는 기하학적인 도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책이 인쇄되는 인쇄소가 대학생의 습격을 받는가 하면, 어떤 극단에서는 천문학자가 자기의 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그려내기도 하였으며, 마르틴·루테르는 “이 신인 천문학자는 하늘, 태양, 달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어리석은 자가 천문학을 뒤엎으려고 한다. 요슈야가 멋으라한 것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었다.”고 몹시 비판했다. 그의 제자 멜란히톤은 “그는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움직였다.”고

고발하고, 존·칼빈도 “그 누가 성령의 권위위에 감히 코페르니쿠스 같은 자를 올려놓을 것인가?” 하고 비난했다. 1615년까지 카톨릭교회는 가혹한 조처는 취하지 않았으나 이듬해 1616년에 금서목록에 넣고 해제된 것이 1835년의 일이었다. 천체는 정원상을 운동하지 않고 타원상을 운행한다거나, 태양계는 한정된 한계를 넘어

서서 무한히 있다거나 기타 오늘날의 지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점·우리의 유성계의 중심으로서 태양을 선택한 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으며, 근대과학으로서의 천문학의 기초를 확립한 것이다. 그 후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등에 의해서 실증되고, 법칙이 공식화되고 완전히 해명되었다.

괴테는 “모든 발견과 발명중에서도 인간의 정신에 대하여 코페르니쿠스의 학설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친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세계는 둥글며 그 자신으로서 완전하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제 지구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특권을 포기하도록 요청되었던 것이다. 인류가 이 이상 더 큰 요구를 당한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고 쓰고있고, 천문학자 스넷슨은 세계과학사상 가장 진보에 공헌한 사람으로 코페르니쿠스를 들면서 그 이유로 “왜냐하면 근대 천문학의 기초를 둔 사람도 바로 그였으며 그 기초 없이는 뉴턴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며, 진화론이 우리 사고에서 확고한 기반을 얻기전의 정통적인 사상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처음으로 문을 열어준 사람도 그였기 때문이다.”고 쓰고 있다.

(오병수)

니콜라우스·코페르니쿠스 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Nicolaus Copernicus:
<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

사색

박광인

시간은 영원을 쌓고
주위깊은 하늘 벽
인간들은 그 영원한 바닷가
파아란 바람에 시달렸다.

<고요히 수풀속
오솔길을 걸어갔다
무엇을 찾으려는 생각도없이

문득 눈에 띈 조그만 꽃
동그란 눈동자
별 이라 반짝인다.>
(괴에테의 「찾아낸 꽃」에서)

흙(토), 돌(석), 벽(벽),
찌즈가 울린 자리엔
피워 보지 못한
어느 「별」 같은 이름들.

「괴에테」의
찾아낸 꽃잎 같은
아름다움의 고요.

흙과 돌이 함께
떨이라 이룬 바람벽.
아쉬운 꿈들은
뿌리채 캐어가는 나의 뜰악.
(인사처 근무)



다행히 5·16혁명 후 사치꾼들이 신주같이 여기던 외래품들이 백화점에서 밀려나고 국산품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국민들은 걸치레보다 마음의 여백에 조금의 장식품이라도 채워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물 들기 쉬운 <악세사리>가 얼마든지 맴돌고 있다.

우스운 이야기일런지 모르지만 오늘도 수화기를 들면 들기가 바쁘게 「오스카」하는 교환수의 영롱한 음성
이 전선을 타고 들려온다.

전화기를 들은 우리 정비사에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전선줄을 타고오는 교환수 오스카 양의 티 없는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 미소가 저절로 나온다.

남자만의 세계인 군대생활에서 홍일점의 여자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 짓궂은 친구들은 전화기에 대고 어
떻고 어떻게 교환양에게 공용아닌 사용이 오고 간다.

친절을 베푸는 교환양의 맑은 목소리를 도리어 사용으로 돌리는 취미는 버려야할 악세사리다.

교환수의 미소짓는 목소리는 우리 정비사에게 다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음의 청량제가 되고 있다.

외면과 내면의 악세사리…….

우리 정비사는 이와 같은 악세사리에 대해 그릇된 망상에 집착 말고서 오늘을 돌이켜 보고 내일의 전투준
비에 만유감없도록 안정된 마음으로서 수화기를 들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악세사리>……이렇게 제목을 부치고 너무 지질구레한 말이 오갔지만 오스카의 교환수 양도 우리정비사들
도 따가운 햇볕에 마음을 펴고 멎있는 삶을 위해 단대발전에 더욱 이바지하자고 당부하는 마음 간절하다.

(야전 정비대대 근무)



<꿈 뜬>

관객

곽학송

『아저씨!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네 아저씨!』

『……?……』

『깡패가 따라와요. 저와 함께 좀 걸어주세요. 네 아저씨!』

『깡패? 응…… 그러지……』

책 가방을 든 제복의 소녀였다.

이년전 어느 여름의 오후, 남대문시장 근처의 길거리에서였다.

봉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 듯이 매어 달리는 소녀를 감싸주면서 그는 한참 걸었다.

이윽고 봉수의 눈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삼십대 사나이가 나타났다. 시비를 걸 아무런 구실도 찾을 수 없었
음인가, 그 험상궂은 사내는 봉수를 노려보며 지나가 버렸다.

『아저씨! 고마워요! 이젠 됐어요 아저씨!』

『조심해 가거라』

『안녕히 가세요』

소녀는 곱벽 인사를 하고 서울역 쪽으로 사라졌다.

봉수는 잠시 후련한 기분으로 포도를 걸었다. 길거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어
쩐지 봉수는 무슨 적선이라도 한 기분이었다.

그는 퇴근하는 길이었다. 봉수가 일을 보는 S출판사에서 하숙이 있는 후암동으로 가려면 남대문 시장 안을
거치는 것이 편리하다. 차편을 이용할 거리로는 좀 사치스러우며, 그렇다고 동화백화점 쪽으로 돌아가려면
거리가 배나 된다. 뽀비는 인파 속을 헤쳐가기가 구차스럽기도 하나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즐거울 때도 있
다. 인파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노라면 별나게 마음이 까라앉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날, 봉수는 참으로 후련한 기분으로 남대문 인파 속을 거처 하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하숙으로 돌아와 상의를 벗는 순간 봉수는 머리를 쇠망치 같은 것

으로 얻어 맞았을 때처럼 땡하였다. 회사에서 퇴근할 때 분명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던 월급 봉투가 없어진 것이었다.

대뜸 떠오르는 것이 불량배에게 쫓기던 소녀였다. 어느 사이에 뿔았을까? 그 공포에 질린 표정, 당황한 태도-그러나 그 험상궂은 삼십대 청년과 그 소녀는 공모이며, 그 표정과 태도가 꾸밈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은가. 『……원 나도 어지간히 교괴한 놈이군…… 세상사를 그렇게 악의로 해석하다니…… 남대문시장 안 인파속에서 당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아니 그편이 타당하다! 그렇구 말구……』

분명 소녀는 애 띄고 착하고 또 귀여운 얼굴이었다.

한 달 보수의 상실-그것은 봉수에게 있어 적지않은 타격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치명상은 아니었다. 아직 독신인 그는 다소간의 저축도 있어 매달 고정액인 서적구입비 지출을 한 달만 중지하면 하숙비에 궁할 것까지는 없었다.

『설사 소녀의 짓이라 해도 그렇게 여기지 말자. 세상에 그렇게 귀여운 소녀가 소매치기의 일당이라니 될 법이나 한 수작인가』

그러한 봉수는 엔간한 「로맨티스트」이다.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은 생각 할 나름이지 뭐냐.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회사 근처에 있는 M다방에서 소녀를 우연히 만나지 않았던들 봉수에게 있어 그 월급날의 사건은 아름답고 짝막 한 기억으로 그치었을지도 모른다.

『어마나! 아저씨!』

『으음……』

『요전엔 참 고마웠어요』

봉수를 대뜸 알아차린 소녀는 그전처럼 굽뼉 절을 하였다. 표정도 태도도 어색하질 않았다.

(그러면 그렇지 이 소녀가 소매치기의 일당이라니 될 법이나 한 수작인가)

소녀의 손에는 책가방과 행상목판이 들려있었다. 손톱깡기, 면도날, 수지구두칼 따위가 무슨 귀여운 장난감처럼 꽂쳐 있었다.

『잘 팔리나?』

『그저 그렇죠 뭐』

『학교는 어디지?』

『시시한데야요』

하고 소녀는 뺨찌를 가리우며 생긋 웃었다.

봉수는 그 이상 소녀의 신분을 묻지 않았다. 필경 괴로울, 그의 처지를 또 소란스러운 거리의 음향으로 그 괴로운 처지를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소녀로 하여금 우울케 한다면 내 본의가 아니지 않는가.

봉수는 오로지 그 소녀가 소매치기의 일당이 아닐 뿐 더러, 장한 고학생이라는 사실이 그저 기뻐를 뿐이었다.

그러나 세번째 만났을 때는 사정이 좀 달랐다.

그날은 마침 휴일이었다. 충무로에 있는 외국서점 구경이라도

할 겸 밖으로 나온 봉수는 미도와 앞 합승정류장에 멍하니 서있

는 소녀를 본 것이었다.

『오늘은 장사 안 하나?』

『어마나』

그 순간 소녀는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봉수임을 알고는 금

방 생긋 웃었다.

『노는 날도 있어야죠 뭐. 아저씨도 오늘 노시지요?』

『하하 맞았어, 맞았어……』

하며 봉수는 소녀의 어깨를 두어번 가볍게 두들겼다.

육친이 모두 이복에 있는 봉수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끝동생이 내가 월남하는 해 태어났으니까 애만 할 걸-봉수는 불연듯 소녀와 더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

그때 마침 정오 고동이 울렸다.

『우리 점심 함께 먹을까?』

『싫어요』

『왜?』

『전, 남의 것 공짜루 먹는 것 아주 질색이에요』

『허어』

봉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의 말투가 강경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저씨와 함께 식사하구는 싫어요』

『그래?』

『제각기 돈을 내기로 한다면 말씀이지』

『허어. 거 참 재미있다. 그런데 말야 제각기 내는 것보다 오늘은 아저씨가 내고 다음엔 아저씨가 얻어 먹고 하는 게 좋잖을까?』

『건 안 돼요. 언제 또 만날는지 누가 알아요』

소녀의 태도는 확고부동하였다.

결국 봉수가 진 셈이었다.

둘은 근처의 한식집에 들러 냉면을 한 그릇씩 먹으며 이러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그 후에도 봉수는 그 소녀와 한 두달에 한 번씩은 의례 만났다. 물론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연이었다. 그럴 때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점심도 먹고, 때로는 커피조차 나누기도 하였으나 소녀는 단 한번도 그 요금을 봉수로 하여금 지불케는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못난 사람 같아』

『왜?』

『연애를 안 하시니까』

『뭣?』

『그렇지 뭐예요. 밤낮 노오타이만 입구 넥타이도 한번 못 매구……호호』

『에키 놀! 하하』

그러한 소녀에게 봉수가 연정 비슷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일년 이상이 지난 뒤였다. 이른바, 인테리 여성, 이른바 양가의 귀수-그런 숙녀들에게 조금도 흥미가 없어 삼십이 지나도록 결혼을 안하는 봉수로서는 당연한 노릇인지도 모른다.

4·19에서 5·16.

그 사회적 격동 속에서도 봉수는 한두달에 한번은 의례 소녀와 만났다. 그러니까 5·16이 일어난지도 두어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하숙집 뒷뜰안에 침대를 내다놓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오라 그 소녀를 이번에는 석 달이나 못 만났군…… 어떻게 됐을까?)

하고 있는데 편지가 날라 들었다.

생전 편지라고는 올 곳도 또 온적도 없는 봉수인지라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살피었다. 수신인은 틀림 없는 자기인데 발신인은 <××소녀원> <조연실>이라고 적혀있지 않는가.

봉수는 급히 걸봉을 뜯었다.

<……(전략)…… 그러니까 아저씨를 처음 만난날 저는 아저씨의 월급 칠만오천이백오십환정을 제가 뿔아 낸 거예요……(전략)……저는 아저씨를 고마운 분으로 인정 많은 분으로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한편 제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는 반항은 끝끝 내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저씨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전략)……아저씨는 저에게 점심을 사줄려고도 했고 또 돈을 줄려는 눈치도 알았어요. 하지만 전 그런 것이 죽어도 싫어 두번째 만났을 때 딱 찢라버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전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늘 아저씨의 호주머니를 노렸어요. 그건 투쟁이니까요. 인생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구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 한번도 아저씨 호주머니에 손을 대지 못하고 말았어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 이 안에 잡혀 들어온 후 줄곧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전략)……앞으로 일년쯤 살아야 한대나요. 그 사이에 아저씨의 호주머니에 손을 못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하려고 해요.

몸성히 게서요.

연실 올림>

편지를 읽고 난 봉수는 펍 오랫동안 실신한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투쟁, 인생은 투쟁>-연실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으며, 또 그렇게까지 몸에 배었을까?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시작된 교제일망정, 이제 봉수는 연실을 용서할 마음이 된 것은 물론이다. 그가 소매치기의 일당이었다는 사실로 해서 봉수의 뇌리속에 백한 소녀의 귀여운 얼굴이 지워질 수는 없었다. 다만, 지금 봉수는 연실을 용서할 구실-자기 스스로의 신념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투쟁! 인생은 투쟁! 허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인생은 양보요. 관용일 수도 있지 않는가!)

봉수는 미소를 띄우며 일어났다. 연실을 찾아가 만나주자. 창살 사이로 연실의 손이 쑥 나와 내 호주머니를 노린다면, 모르는 체 해두자. 연실이 스스로 공세를 포기할 때까지, 투쟁 의식을 버릴 때까지. 어디 한번 내 마음을 털어 놓자꾸나-하며 봉수는 마침 뒷뜰안으로 내려서는 하숙집 여주인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소녀원으로 가려면 어디 버스를 타야하죠』

미(尾)

시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울 구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할머니 『여보 영감, 서울에 있는 돈 다 모으면 십만원이 넘겠지요?』
할아버지 『천치같은 소리! 백만원도 넘을 터인데……』



미 사 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